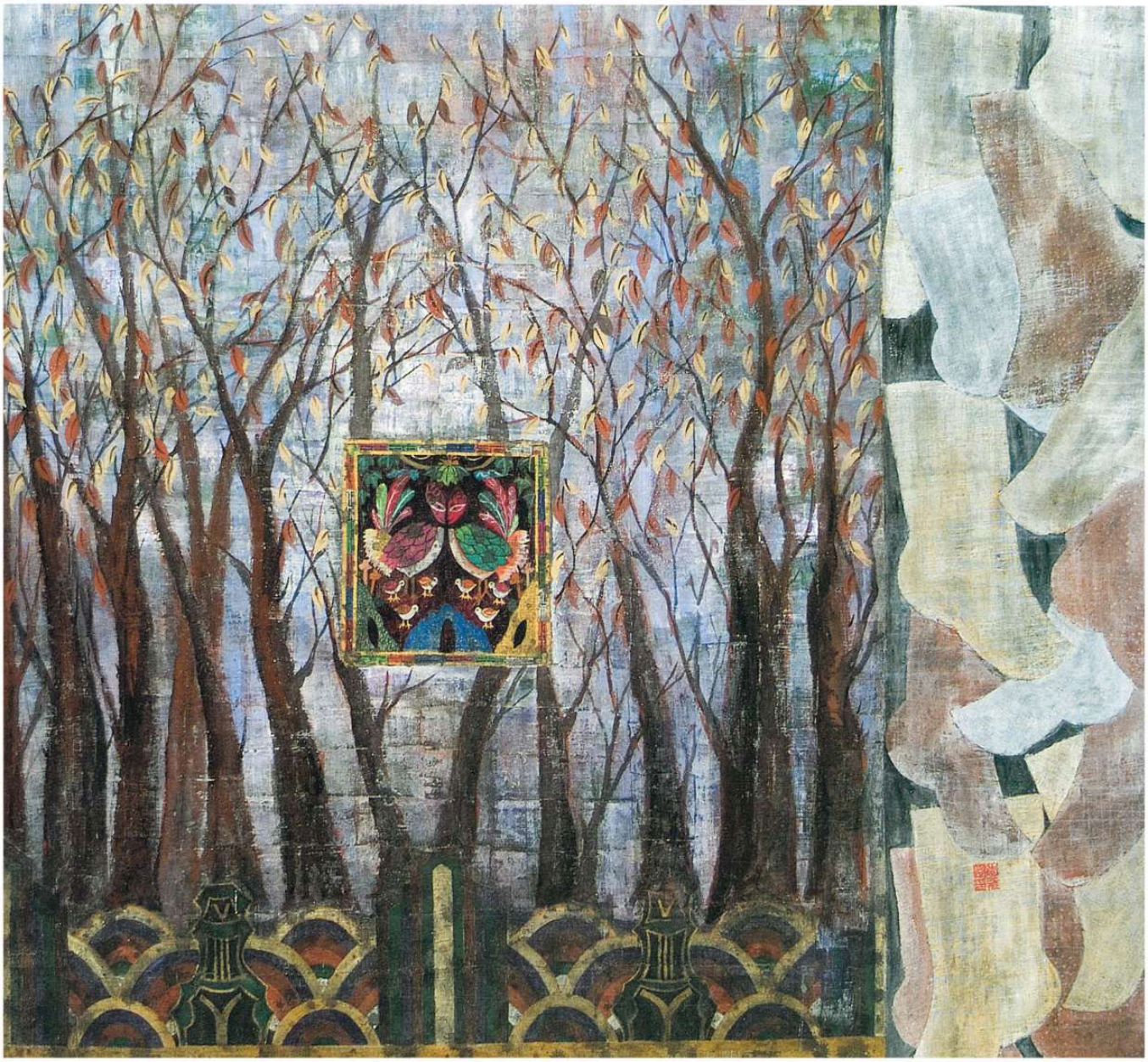
2007년 통권 제15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15. 2007.
http://cafe.daum.net/artjb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기다림

이 운 룡

기다림이란 나와 당신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의 틈새다

가까이, 좀더 가까이를 홰치며
만나기 위해 기다림의 너트를 조인다.
시간을 늦추거나
이미 다른 길로 마음을 휘었다면
십 년 백 년을 기다렸다 해도 기다린 것이 아니다
목마른 시간만 허공으로 날렸을 뿐

기다림이란 참는 아픔이다
아픔이 없는 화살은 순간을 못 참아
긴 시간을 뚫고 날아간다.
가서 뉘 가슴 한복판을 뚫는다, 하지만
부활의 시간은 영원을 참는다.

당신을 기다린다, 영원의 후일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목숨을 소화해야 할까

주검이 분동자를 파낸다, 해포
나의 기다림은 썩지 않을 벚일지니

당신을 기다린다.
영원 그 후일까지.

이운룡 문학박사
1984~89 『현대문학』 3회 추천완료, 『월간문학』 문학평론 당선, 『심상』 시세의 참여는 참여 없이 등 1권, 시론집 『시와 역사현실의 영합』 등 10권, 『한국시 시각화연구』, 『디지털 문학론』 외 다수. 한국문학평론가협회상, 서울시문화상, 2003대한민국 향토문화상 향토문화상 동리상 심상문학상 등 수상. E-mail: sy.in@hanmail.net

표지작가안내





이 광 원 〈흔적 100호 / 먹, 삼베, 채색〉

-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한국화전공)
- 현 전북회화회 회원
- 전주 하늘산바다 미술학원장
- 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아파트 3동 1104호
- 011-656-6292

전북회화

전·북·회·화·발·자·취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이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이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6. 2 미술 캠프 체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9. 29 정기세미나(허브랜드) – 전시회 및 회화지 발행 논의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1~1.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12 전북회화 발행



C.O.N.T.E.N.T.S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03 올해의 화가
04 전통화회화활성화
06 소리에 대한 명상전
나의작업노트
07 고기현
08 고형숙
09 김서영
10 김윤숙
11 박지여
12 방정열
13 서진숙
14 엄기석
15 안금자
16 우경은
17 이향희
18 이승훈
19 이우정
20 이진숙
21 이철규
22 정미현

전시리뷰
24 김서영 전
26 김윤숙 전
28 전북회화회 뉴욕전 ---------- 이철규
32 한국화에 대하여 – 여백의 미 ---------- 이승훈
34 우리그림 – 전통초상화 ---------- 이철규
36 작업실탐방 – 조영대씨를 찾아서 ---------- 김영애

미술관을 찾아서
38 풀뿌리생각전 ---------- 표영육
42 혼불전 ---------- 고기현
48 신산수풍경전 ---------- 엄기석
50 상하이 아트페어를 보고 ---------- 고형숙
52 쉬지 않는 손, 머물지 않는 정신전 ---------- 김서영

나의여행기
54 니스의 미술관들 ---------- 고기현
58 가을하늘을 날아서 미국으로 ---------- 이광원
62 아를의 햇볕은 강렬했다 ---------- 이진숙
68 미시간호를 품에 안은 시카고 ---------- 서진숙

여적
72 차를 마시며 ---------- 이성자
74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 이진숙
76 읽을만한 책 ---------- 편집부



소리에 대한 명상전

07.10.5(금)~10.11(목)『민촌아트센터』

가을 하늘은 멋집니다. 누구의 얼굴이기에 이다지도 선비 같고 누구의 입김이기에 청자 빛으로 높아집니까? 전북회화회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소리의 본향이다. 우리 고장은 매년 세계소리축제가 열리고 전주대사습놀이가 조선대부터 지금까지 보존계승 되어 우리나라 판소리의 역사를 이어간다. 소리를 쉽게 접하여 판소리 한 대목과 여느 소리도 멋들어지게 부르는 어르신이 많아 귀명창도 많은 곳이다. 모든 소리는 전북을 통하지 않고 나올 수 없다는 자긍심을 갖기도 한다. 자연의 소리 또한 전라북도에서 들어야한다. 자연은 온후하고 정말 천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살기로 들자면 공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민가의 작은 벌레의 소리부터 거대한 파도의 소리까지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봄부터 겨울까지 어린 아이의 울음부터 청장년의 고동치는 소리, 노인의 흥겨움까지 소리는 모두 즐거움이다. 타오르는 저 역사의 함성과 환호성에 만끽하는 월드컵 경기장 소리까지 모두 살아있는 소리이다. 이제 그 소리들을 명상하면서 하나 하나 자손만대까지 찾아줄 소리 들어보자. 이번 전북회화회에서 마련한 소리는 특별한 전시임에 틀림없다. 마침 전주는 소리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모두 찾아오셔서 그 소리를 명상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회화회 회원을 대신하여 – 이승훈 –

고기현, 고형숙, 김서영, 김윤숙, 박지예, 방정엽, 서진숙, 안순금, 엄기석
유기준, 이광원,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환배, 정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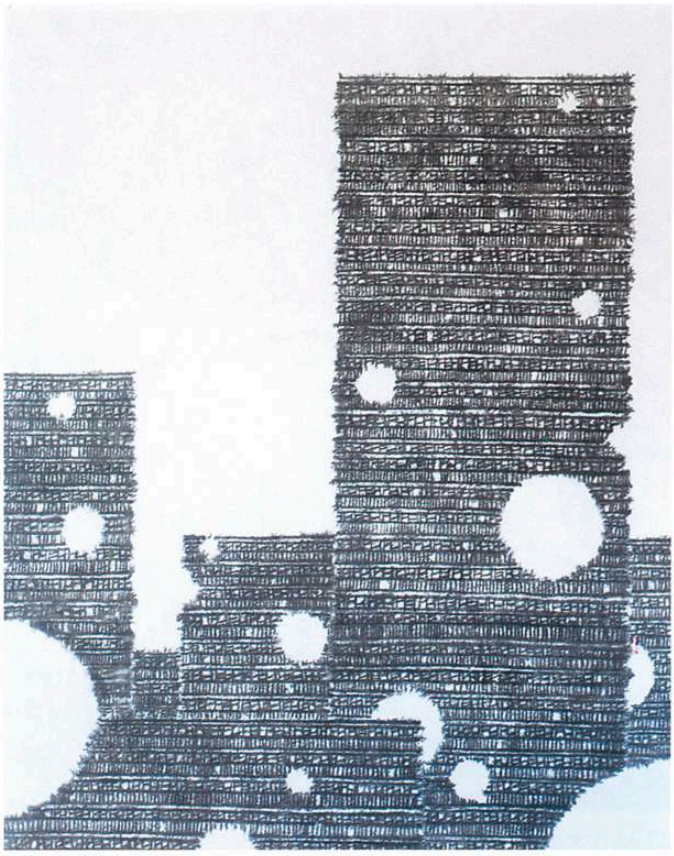
휴식/20호/한지, 색지, 먹/2007

근간 외면해오던 종전의 한지 작업은 새로운 작업방식으로
나를 몰입하게 만들고 있다.
닥섬유를 주무르고 치대면서 표현했던 종전의 작업방식과는 달리
한지나 색지를 겹겹이 쌓거나 떼어내는 데콜라주(decollage) 과정 속에서
보다 자유로운 나를 발견한다.
쌓여진 한지의 두터운 층들은 나만의 상징들을 은밀하게 감추어 주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대기와 빛을 끌어안으며 살며시 내게로 온다.
-작업노트, 2007년 11월 25일-



고 기 현 (Ko, Ki-hyun)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7회(서울, 전주, 오사카) / 단체전 70여회 / 제5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대상 수상 / 2005 오사카 아트페어 우수작가상 수상 / 2006 아트서울전 -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 2007 한국화 동질성전 - 광주 시립 미술관 / 2007 청년작가 초대전 - 서울 메트로 미술관 / 2007 중·한 유화요청전 - 닝보미술관초대, 중국 *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과 재학중, 시공회, 한국평면회화회 *전주시 완산구 교동 79-31 *전화 : (직)063-228-3517, (휴)011-1778-3520 *E-mail : milkkid2@hanmail.net



호흡 / 60호 / 장지에 수묵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실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커다란 나무도 많고 작은 풀과 꽃도 많은 곳이지만, 몇 년 안에 재개발을 바라보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다. 작업실에 앉아 무심하게 창밖을 바라볼 때 마다 보이는 낡은 아파트 건물들은 나에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과거에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가 재개발된 이후에 살아갈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아파트 안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낡은 건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후에도, 각기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겠지만 그들의 삶은 모습은 일정한 모양의 아파트 건물처럼 특별히 다르지 않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슷한 하루하루가 도시 안에 아파트의 모습과 닮은꼴이다.

나는 일정한 모양으로 도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의 외형을 통하여 다르지만 비슷한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자 한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모습이지만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가지각색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화면 안에 풀어보고자 한다.



고 형 숙 (Ko, Hyoung-sook)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04 ART SEOUL-예술의 전당, 서울 / 無我 · moi – 서신갤러리 전주 2005 눈을 감고 보다 – 우진문화공간, 전주 •단체전 : 2007 내일의 발견 : 전북 현대미술 다시 읽기 – 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 뉴욕에서 바라본 우리그림전 – World Fine Art Gallery, 미국 뉴욕 / 2006 상소와 시가의 만남전 – 전남 도립 옥과 미술관, 곡성 / 문화공간 푸른 개관 기념전 – 문화공간 푸른, 전주 / 자리 매김전 – 전북예술회관, 전주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럭키@ 5동 1501호 (우 561-771) •전화 : 016-653-1833 •E-mail : mimi1001@hanmail.net



생명-움직임 / 55cm×46cm / 수묵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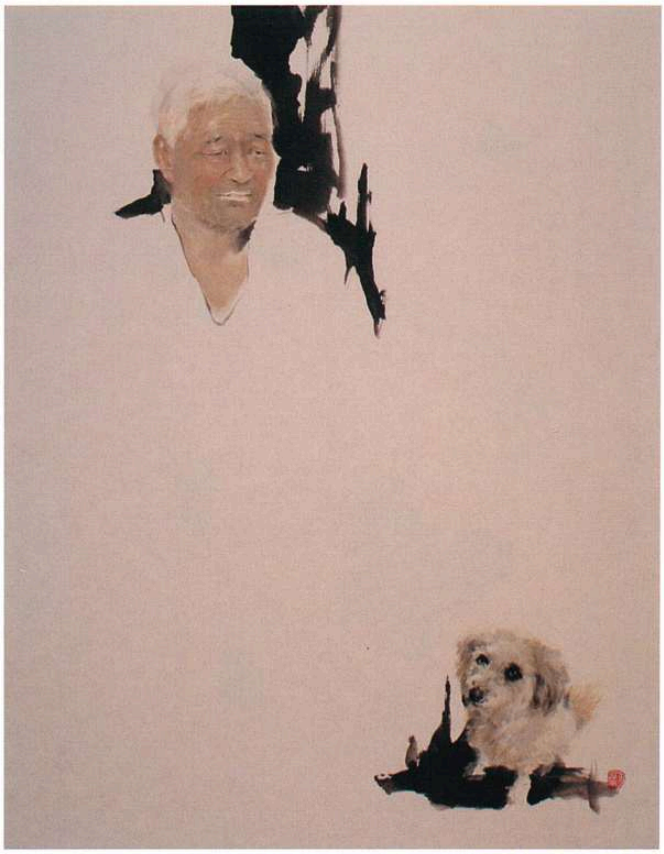
담묵과 비정형의 분방한 선들로 이루어지며 화면은 드러냄과 숨김, 혹은 허와 실이라는 상대적인 내용들의 대비와 조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목판으로 찍은 것과 같은 나비의 형상이나 언뜻언뜻 드러나는 꽃의 모양들은 행위의 흔적이자 결과이다.

금분이나 은분을 더하여 수묵을 다스리고 장식적인 효과를 더하며, 번지고 스며드는 우연의 효과를 통하여 순간적인 감성을 포착해 낸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전적으로 작가의 개성과 발상이 전제되는 것으로 경직된 수묵의 이해에서 일탈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서 영 (Kim, Seo-young)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2007 4회 개인전(중국) *2007 3회 개인전(인사아트센터) *2005 2회 개인전(안산단원미술관) *2002 1회 개인전(전북예술회관) *2007 뉴욕에서 바라본 우리그림전(월드파인아트갤러리/미국뉴욕) *10주년 기념 신예작가 초대전(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통과 새로운 조형의식 한국화 46인전 (백송화랑) *동으로 한국현대미술 2003전(서안미술학원 미술관 중국) *1995~1996 춘향미술대전-대상 및 입선 (남원 시민문화회관) *1996,97,99,2002 전라북도미술대전-입선(전주예술회관)외다수 수상 *현) 한국미술협회, 시공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원, 송파미협회원, 전북대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금호아파트 108동 907호 *전화 : 016-610-4264 *E-mail : apt105902@hanmail.net



친구 / 30호 / 수묵 담채

사람을 알아간다. 일을 배워간다.
책임감을 알고 생활하는 사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있다.
현실에 적응해 살아가는 이..
적응을 인연으로 돌리고 일을 작업으로 연장하며 올 한해 이리 정신없이 보낸다.
누군가..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고 그려내는 사이..
나의 이야기가 계속되어 자신의 삶속에 하나하나의 작은 방문을 열어두고 간직하게 된다.



김 윤 숙 (Kim, Youn-sook)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과 수료 •개인전 : 2007 이야기 — 人 / 우진문화공간, 2005 2005 JEON BUK ART-FAIR /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2005 일상 -雨-마음담기 / 전북예술회관 •단체전 : 2007 전북의 힘전 / 전북도청사갤러리, "뉴욕에서 바라본 우리 그림전" / New York New York World Fine Art Gallery 전북회화회 / 민촌 아트센터, IN OR OUT / 경주-아트스페이스 로하스, 터널전 / 우진 문화 공간, '숨-' 수리수리전, 일곱여자이야기 / 전북학생회관, 물뿌리 생각전 / 전북 도립 미술관 •단체전 : 2006 O's 갤러리 4주년 특별 기획전 / O's 갤러리, 두께를 위한 연습전 / 서신갤러리, '숨'전 – 피어오르다 / 전북예술회관, 전북미술의 현황전 / 전북도립미술관, 부안가는길전 / 전북예술회관 , 전북회화회 / 전북예술회관, '용머리숨바꼭질'전 / 완산동 용머리고개 일대, 꽃피는 미술시장전 / 서신갤러리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988-30 •전화 : (집) 063-275-9040, (휴) 011-674-5593 •E-mail : sougl2@hanmail.net



아버지의 초상화 / 70cm × 120cm / 진채화

하루 하루가 조바심나고 일은 산 더미처럼 많아지는 것 같다.
아직 미련은 많은데 작업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려주고 싶은 분도 많은데.....
아버지 초상화을 배우며 그리는일은 정말 뜻깊고 재미있었다.
전신사조적 의미에서 외양과 내면의 세계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것은
화공이 되어 누구가의 삶을 한장의 그림에 담아내다는것에 매력을 느낀다.
작업을 하지못했다는 핑계보다는 좀더 발전하는 모습을 찾아 나갈 것이다.
후회는 오늘로 하지 않겠다. 나태해진 삶에 반성과 함께 한번 더 힘을 내어 열심히 해보겠다.



박 지 예 (Park, Ji-ye)

•원광대 대학원 한국화전공(졸) •2002 석사학위청구 개인전 •2005 전국 누드크로키전 (단원미술관) •2005 전라북도 미술대전 (소리문화의 전당)
•(우 561-835)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00-68 •전화 : 011-624-9715



한국화 (송판) / 110cm × 45cm / 천+수묵 채색

작품소묘(作品素描)

웃으며 살고 싶네.
그리하여 나는
한없이 울고 있는 것이네.

내 관절의 깊은 바다에서
무수히 날으는 갈매기 떼,
그 슬픈 울음을 자네 듣는가, 듣고 있는가.

내 곁을 떠난 사람은 없네.
진정 내 곁을 떠난 사람은 없었네.

나에게 한 잔의 술을 주게.
톱날에 짤려 나가는
하얀 달빛의 우울을 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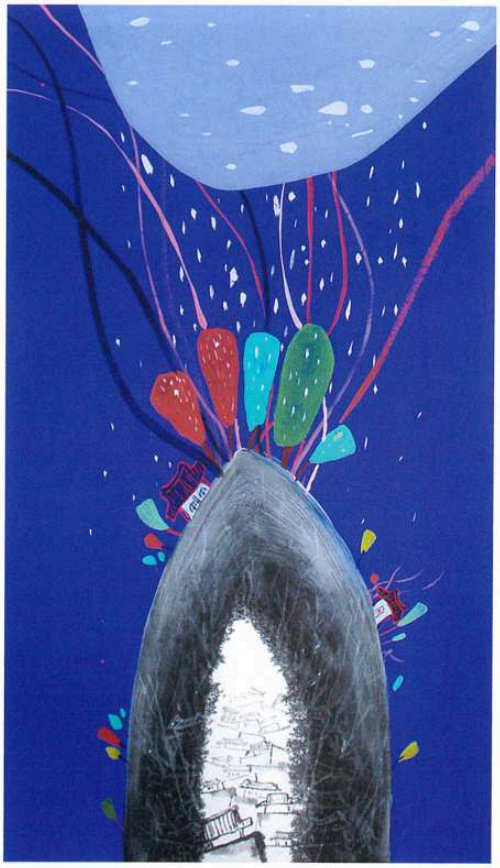
우린 어차피
모로만 모로만 밀려날 짐승들이 아닌가.

웅포 하구(河口)에 가을이 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철따라 날라온 새들은
화려한 비상(飛上)을 시작한다.
그 장엄한 군무(群舞)에 온 세상이 묻힌다.
속절없이 가는 계절을 차마 놓지 못한 채,
이제는 江건너 저편의 겨울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힘찬 새들의 날개 짓에 비상(飛上)을 꿈꾸며
묻혀둔 날개를 꺼내야 한다.
살다가 살다가
한 번 쯤은 그렇게 세상을 차오르며
힘차게 날개를 펴야만 한다.



방 정 엽 (Bang, Jeong-yeob)

•전북대 미교과 졸 •現 전라고등학교재직, 전북회화회 · 한국미술협회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아파트 207-802
•전화 : 063-246-3073, 011-681-7127



예 / 35cm×70cm / 장지에 수묵 채색

희비, 거짓, 통로, 욕심, 입구, 출구, 단절, 고독, 미움, 용서.어둠, 붉음....
긴 사유의 터널을 지나
눈길을 걸어 어디쯤 다녀오다 하얀 세상에 조용한 내 길 ...

(이철수의 판화 길모음집에서 퍼옴)

힘들고 지쳐 쓰러져도 기댈 곳 없이 걸어온 외길
이젠 둘이라 외롭지 않다네.
가시밭길이라도 좋다네.
동지가 있어...



서 진 숙 (Seo, Jin-sook)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1회('95) •단체전, 교류전, 초대전 80여회 참여 •현) 한국미협, 전북회화회, 전통미술연구회 회원
•주소: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4 •E-mail : mthill@hitel.net •전화 : 063)282-6304(직), 011-683-2506



바람소리 / 50호 / 장지+황토+먹+혼합재료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 의 책속에서 "꿈의정원"이 길을 잃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귀 때문입니다.

"시서화의 정신은 무엇보다 상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물이 맺고 있는 거대한 관계망을 깨닫게 하는 것이 상상력이며 그것이 시서화의 정신입니다. 시서화로 대표되는 예술적 정서는 우리의 경직된 사고의 틀을 열어주고, 우리가 갇혀 있는 우물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노래하는 꿈의정원은 생명들의 사랑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들판에 있는 민들레처럼 또는 질경이같이 보잘 것 없는 것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작은 돌맹이들과 산새들의 합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깨우쳤습니다.

나의 마음은 굳어진 단단한 바위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새삼스레 여뀌풀이 더욱더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넓은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꿈의정원에 날아온 새를 바라봅니다. - 2007년 가을 엄기석 -



엄 기 석 (Eom, Gi-seok)

*1986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졸업 *1990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2004 전통의 힘-한지와 모필의 조형(전북예술회관/전주) / 전북회화회(전주 국립박물관/전주) / 미술 초대전(한국소리문화의 전당/전주)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초대전(단원미술관/안산) / 한 · 중 현대미술 소통전(민촌아트센터/전주) / 전북 중견, 청년 작가 초대전(전북도립미술관/전주) *2005 들꽃의 향연전(민촌아트센터/전주) / 영 · 호남 상생의 만남전 (메트로 갤러리/광주) / 한국미술 정예작가 초대전(GEORGE MASON 갤러리/미국워싱턴) /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GIAF) (세종문화회관미술관/서울) / 민촌아트센터 초대전 (민촌아트센터/전주) *현) 한국미술협회, 전통미술연구회, 전북회화회 회원 / 순창 제일고등학교 재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406-3 우성중산타운 102동 1503호 *전화 : 063-226-8673 (S) 063-222-8357 (H · P) 011-681-8673 *E-mail : egs3344kr@hanmail.net



산 · 나무 - 그리움 / 67cm × 53cm / 수묵담채

1_ 비가 옵니다. 창밖에 보이는 등나무 기둥의 색이 까맣게 되도록 밤사이 많은 비가 왔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선배의 집에 머물렀던 탓에 오늘은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2층 작업실의 커다란 창문, 창밖에 보이는 헤아리기 아득한 골짜기의 깊이 때문에 생긴 희뿌연 회색 산들이 보이던 그 방이 부럽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워집니다. 내면의 침묵만큼이나 무겁고 말이 없는 그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2006)

2_ 어젯밤에 9시뉴스를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황사 때문에 1명이 죽고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을 한 탓에 집에 돌아와 먼지를 쓸고 닦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걸레 청소 하는걸 싫어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괜찮다고 해서 창문을 열고 출근했습니다. 산업도로 위에서, 태어나 진정 처음으로, 물안개가 먹구름처럼 일어나 퍼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항상 이미 피어오른 뒤에 도로나 산들을 메우고 있는 것만 보았지 오늘처럼 달리는 도중에 막 피어올라 마치 파도처럼 허공을 메우려는 찰나를 본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황사가 밀려오고 있나 보다 했지요. 내가 그 파도산 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2006)

3_ 내내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작업실이 없어서.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있는데 내 스스로 방해꾼이 되어 있지요. 산 · 나무가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멀고 아득한 것들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2007)



안 순 금 (An, Soon-geum)

•전북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 •전북대 교육대학교 미술전공 졸 "동양화의 추상성에 관한 연구"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예술대학원 졸 •1997-얼화랑(전주) •2004-허버트 아트 갤러리(영국) •2001-전북,부산 한국화 교류전(부산,금정문화회관 : 전주,삼성문화회관) •2002-'2002년 전북의 자연과 생성전'(전주, 소리문화전당) •2004-'새로운 지평선' (영국 버밍햄, 왕립 버밍햄 미술가협회 갤러리) / '합류'(영국 버밍햄, 왕립 버밍햄 미술가협회 갤러리) / '전북도립미술관 개관전-전북 미술의 조명' (전주, 전북도립미술관) •현) 전북회화회 회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재직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광진햇빛찬 101동 1204호 (560-833) •전화 : 016-635-6314(휴) •E-mail : 112-4@hanmail.net



Sound in love / 136cm×136cm / 골판지에 먹,콘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만
서로 하나씩은 필요한 것 같으다.

남과 여
겹쳐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남과 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만 서로 너만은 필요한 것 같으다.
그게 비록 생명이 없더라도
불어넣을 줄 아는 능력이 없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후회없을 것 같으다.



유 기 준 (You, Ki-zun)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미술전공 수료 •개인전 2회(전주, 서울) •전북미술의현장전-전북도립미술관 •전북아트페어 개인부스전-한국소리문화의전당
•초대기획전:사람에게 길을 묻다-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동이전:아름다운전북전-벽천미술관, 부안예술회관, 도청사갤러리 •전북인물작가회전-전북예술회관
•3.75전(3인전)-전북예술회관 •현) 전라북도미술대전 / 한국화대전 추천작가 •전주시 경원동1가 2-10 1층 •전화 : (직)063-282-2190, (휴)011-9644-5997
•E-mail : kiaoo55@nate.com



흔적 / 100호 / 장지,먹,삼베,채색

흔 적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에
찾고 찾아 헤매인지가 수 년
그 갈망을 감당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여유를 기르고 있는 이순간이
후회없이 순응할 수 있는 이 시간인 것 같다.
흔적이라는 명제를 놓고 작업을 구상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살다가 가는 삶을 그린 것이다.



이 광 원 (Lee, Kwang-won)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3회, 입선 2회 焼典 •개천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1회 •전국 무등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단원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신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벽골대전 입선 1회 •우수대학원생 초대전(안산단원미술관) •KAF 2005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초대전(세종문화회관) •전국 춘향미술대전 추천작가 •전북회화회 회원 •하늘산바다 미술학원장 •주소 : (우)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아파트 3동 1104호 •전화:063)225-6292, 241-8745(작업실), 011-656-6292 •E-mail : leekwon1117@hanmail.net



숲의 소리 / 60cm×50cm / 수묵담채

나는 나의 숲이 자랑스럽다

스위스 몽블랑에 간적이 있다. 일본과 중국의 산에 올라간 적이 있다. 산세는 크고 위험할 정도로 가파르다. 산새소리는 들리지 않고 야생화도 보이지 않는다. 내소사가 있는 내변산으로 간적이 있는데 여기엔 키 큰 엉컹퀴가 군락으로 피어 있고 계곡엔 물봉선화가 숨어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희귀한 꽃과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높지는 않지만 평온한 기분이 좋았다. 숲은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힘을 작용시킨다고 했다. 피톤치드가 자신을 위협하는 각종 곰팡이, 박테리아, 해충, 병균 등을 나무 자신이 자기방어하기 위하여 품어내는 독성 역할을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도리어 이롭게 작용한다. 피톤치드는 화학합성 물질이 아닌 천연물질이고, 인간의 신체에 흡수되어 해로운 균들을 선택적으로 살균한다. 피톤치드는 작지만 항균작용, 소취작용, 진정작용, 스트레스 해소작용 등 수많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랏빛 꽃을 단 산오이풀, 박달나무, 서어나무, 참회나무를 만나고 야생화, 은꿩의 다리와 산꿩의 다리와 참꿩의 다리, 모싯대와 잔대, 병조희풀, 원추리, 동자꽃, 물봉선, 나비나물, 가는장구채, 며느리배꼽, 말나리 등을 만나면 인사부터 하고 싶다. 작은 꽃잎이 왜 그리 이쁜 마음부터 드는지 모른다. 새소리는 물론 벌레소리가 더욱 정겹고, 버섯류를 발견하면 숲이 살아 있구나하면서 되뇌이곤 한다. 도시와 농촌, 어촌 주변은 온통 수거 안 된 쓰레기뿐이다. 아! 사람의 일은 하나 같이 몽매무지한 일이로구나. 숲을 거닐면 나는 나의 숲이 자랑스럽다.



이 승 훈 (Lee, Seng-hoon)

•全州大學 美術敎育科 卒 同 大學院 美術科 卒業 •個人展 1回(全北藝術會館) •東으로 韓國現代美術展(中國西安美術學院美術館) •全北人物列展(全北藝術會館) •傳統의 힘, 韓紙와 毛筆의 造形展 外 多數 •大陸의 메아리展(安山 丹園展示館) •全北美術의 照明(全北道立美術館) •現 : 山墨會, 志朋展, 全北繪畵, 韓國美協, 傳統美術敎育硏究會, ART, 益山古蹟硏究會, 천칭天秤文學會 會員, 群山大成中學校 勤務 •주소 :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 303동 607호 •전화 : 010-2073-0655



소식 / 45cm×70cm / 한지, 수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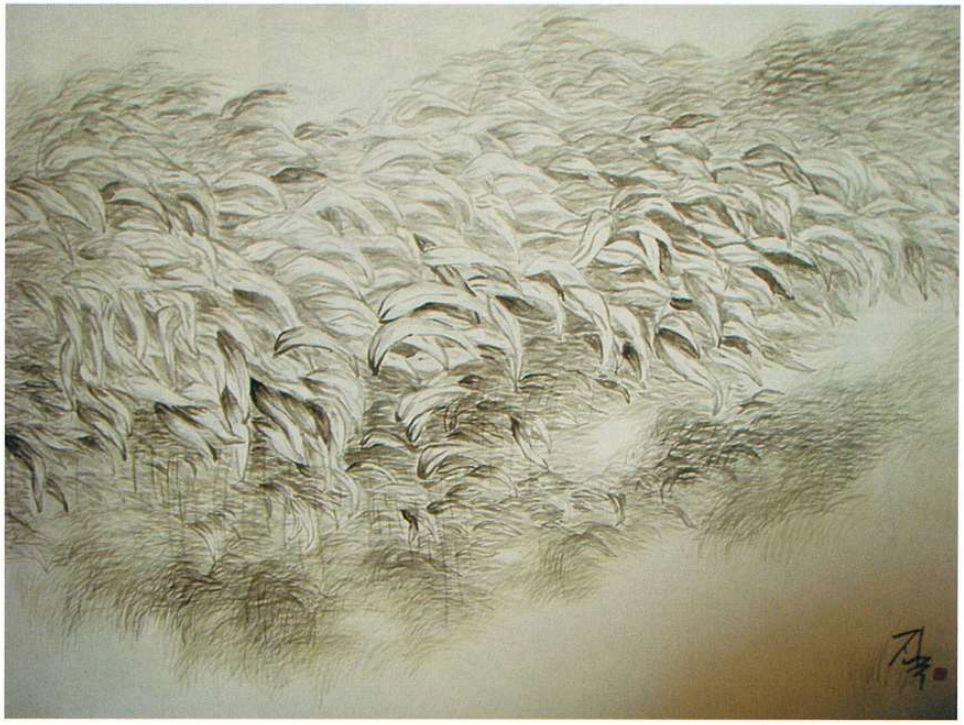
三 餘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근 버드나무는 하염없이 그를 즐기려 하건만
흐르는 물은 매정하게 흘러갈 뿐이다.
결국 새 한 마리 날아와 노니기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구나.



이 우 정 (Lee, Woo-Jeong)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현) 전북회회회 회원
•(우 560-77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현대아파트 101-202 •전화 : 016-299-2221



바람소리 / 50호 / 수묵담채

제3의 인생

늦은 아침에 일어나
더 늦은 아침을 먹고
거울 앞에 앉아
얼굴에 곱게곱게 분장을 한다.

대문을 나선다.
한산한 거리를 지나 더 한가한 극장에서
나만을 위해 상영하는 것 같은,
온 영화관이 내 것 같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온 종일 TV앞에서
누었다. 앉았다 하며 채널을 이리 저리 돌린다.
벌써 자정이 훌쩍 지났다.

뒤도 돌아보고 , 곁눈질도 하며,
난생 처음 본 사람과도 수다를 떠는 평범한 여인네처럼.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다.

때로는 마당에 서서 인스턴트커피를 마시며
여기저기 널려있는 잡초를 뽑으며.....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 진 숙 (Lee, Jin-sook)

•원광대학교 졸 •개인전 7회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참석 •현) 한국미협, 원묵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전북회화회 회원
•전주시 덕진구 진북 2동 거성고속 2차 912호 •전화 : 063)274-2662(자), 063)225-6605(작업실), H.P : 011-9437-2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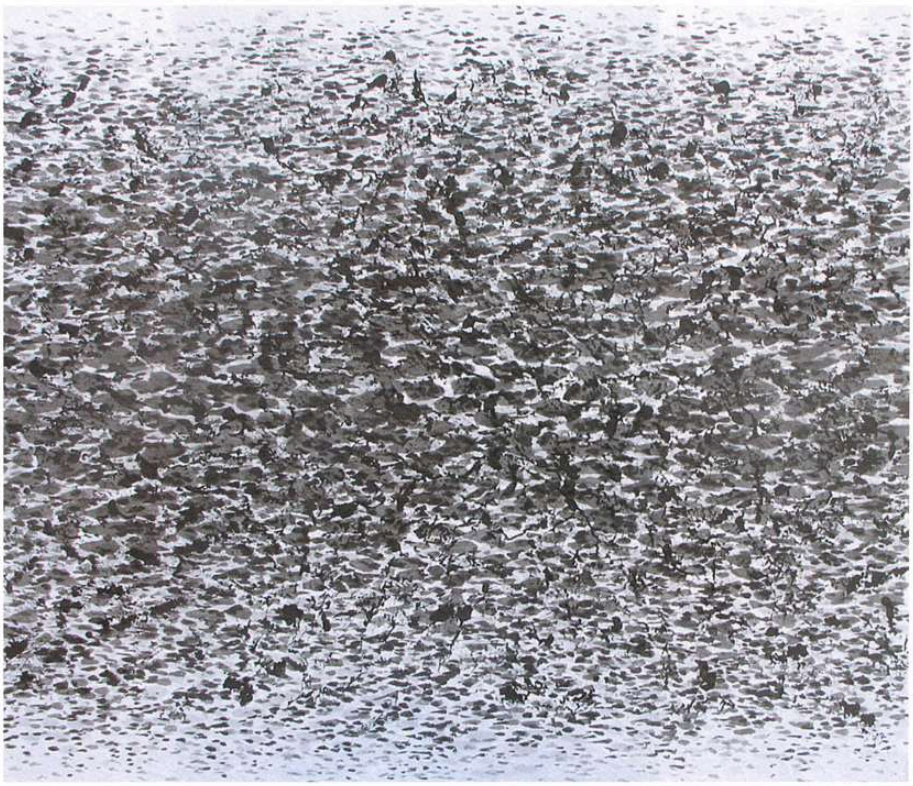
소리를 얻다 / 70×140cm / 한지, 수묵

예술에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뿌리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뿌리를 맹목적 복고주의자들처럼 썩힐 수도 있고, 창조적 예술가들에게 있어서처럼 미래를 투시하게 해주는 추진력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예술가의 비전 제시는 이처럼 축적된 과거와 아직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미래 사이의 현재적 이 순간에서 수행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라면 과거를 토대로 한 현재의 입장에서 미래의 이상이 무엇인가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철 규 (Lee, Choul-gyu)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홍익대학교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14회(서울, 전주, 미국) •전북청년미술상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본상 •3인삼색전(공평아트센터,서울) •02! MANIF-전(예술의전당, 서울) •풍경.산수.풍경전(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전북도립미술관개관-엄와-전(전북도립미술관, 전주) •독섬, 독도전(전북도립미술관,전주) •현) 전북회화, 시공, 우묵, 미협회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90-6 •전화 : 018-279-3775, 063)222-4247, 063)640-7205



묵상(默想) / 71x63cm / 한지에 수묵

나의 단상

마흔하고 넷, 그리고 12월이 가고 나면 마흔하고 다섯, 남은 시간을 헤어보니 살아갈 날들이 더 적은듯하다.
마흔하고도 넷이 가는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리석은 기억이 대부분이요,
부끄러운 날들에 가슴 쓸어내리는 한숨이 무거운 명치끝을 두드린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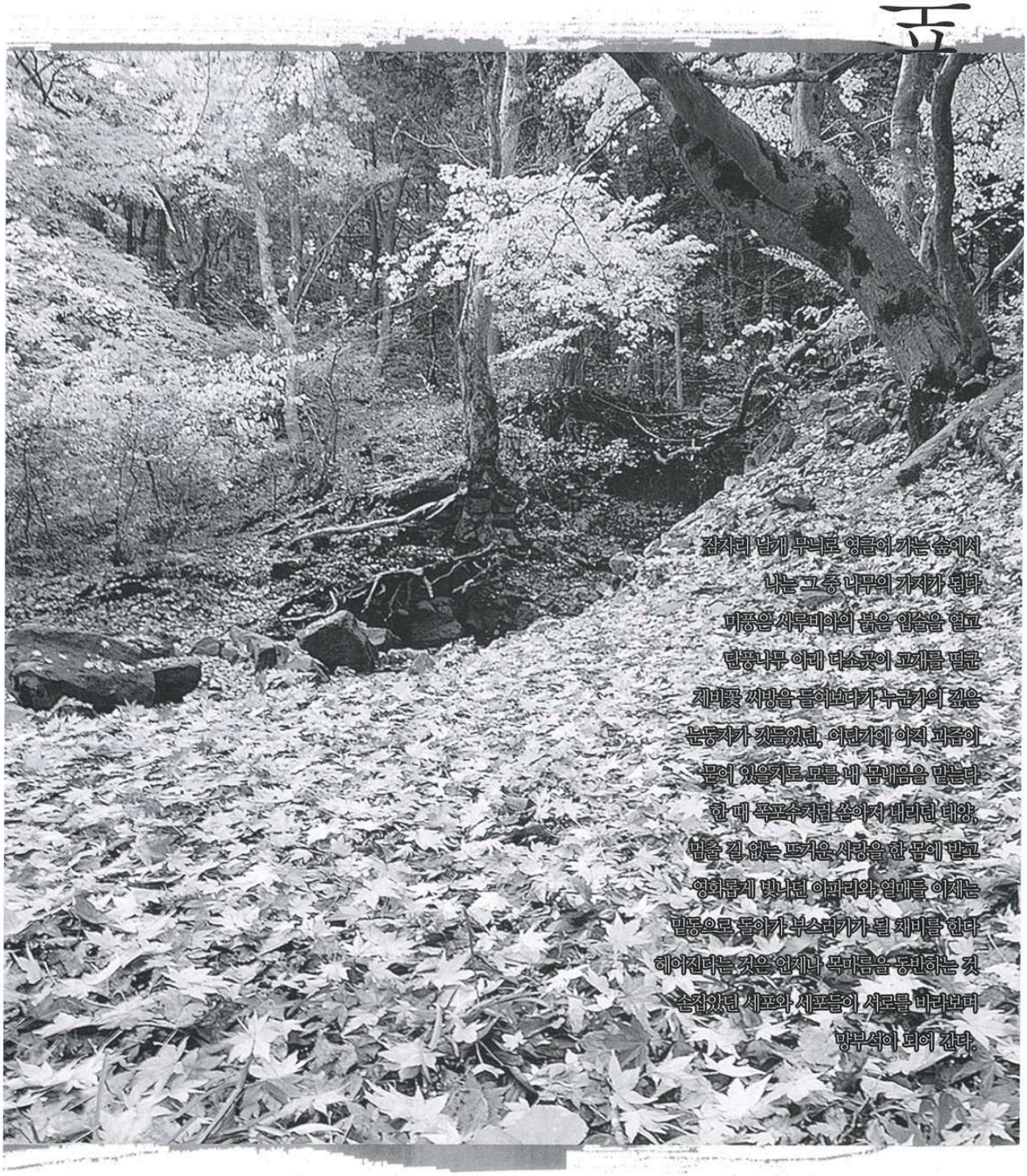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내 자신에게 깊이 천착해 들어가는 내면과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의 유희이기도 하다.
내안에 또는 너에게 담겨진 이야기를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나누는 생명력을 지닌 멋진 동행이다.



정 미 현 (Jeong, Mi-hyeon)

•개인전 6회 •단체전 및 초대전 110여회 참여 •뉴욕에서 바라본 우리그림전(파인아트갤러리/뉴욕) •전북회화회, 건지전, 전통미술교육연구회회원 •현) 군산산북중학교 재직 •주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778번지 •전화 : 011-682-3560 •E-mail : hyun3560@hanmail.net

숲



잠자리 날개 무늬로 영글어 가는 숲에서
나는 그 중 나무의 가지가 된다
미풍을 사루비아의 붉은 입술을 열고
단풍나무 아래 다소곳이 고개를 떨군
제비꽃 씨방을 들여보다가 누군가의 깊은
눈동자가 깃들었다, 어딘가에 아직 괴즙이
물어 있을지도 모를 내 몸내음을 맡는다
한 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던 태양,
멈출 길 없는 뜨거운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영화롭게 빛나던 아과리와 열매들 이제는
밀동으로 돌아가 부스러기가 될 채비를 한다
허어진다는 것은 언제나 목마름을 동반하는 것
손잡았던 세포와 세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방부석이 되어 간다.

김 시 림



생명-몽상몸 90.9×72.5cm 한지에 채색, 은분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감수성 짙은 담묵의 세계

김 서 영 개인전 리뷰

2007.5.17-5.23 (우진문화공간)

주지하듯이 수묵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형식이자 재료이다. 이러한 전통성은 풍부한 조형 경험들을 축적하여 독특한 심미관과 감상체계를 형성하였다. 수묵의 고유한 표현 방식과 정신성의 강조 등은 바로 이를 일컫는 말인 셈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전통의 축적은 다양한 조형적 경험들을 전해주고 있어 풍부한 재해석이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새로운 시도나 실험을 저해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수묵은 이미 완성되어 안정된 하나의 표현 형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 전통 제일주의를 표방하던 시절에야 이러한 전통성은 존중받고 추앙되었지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고 표출함에 있어서 수묵에 대한 일방적인 추종이나 답습은 오히려 저해되는 점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현란하고 자극적인 현대미술의 세례를 받은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작가 김서영은 세속적인 연령이나 작업의 연륜에 있어서 바로 이에 속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작가는 이미 일정한 조형 학습을 바탕으로 수묵을 수용하였으며, 개인의 개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수묵을 이해하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축적되어진 풍부한 수묵의 조형경험은 일종의 체질화된 감성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개성과 특질을 표출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그럼으로 작가에게 있어서 수묵은 진부한 전통의 모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 짙은 효과적인 매재로 이해되고 있다. 그럼으로 작가의 작업은 교조적인 원칙이나 법칙, 혹은 규율 같은 것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만의 개별적이고 일상적이며 체질적인 감수성을 표출해 내는 것이 우선한다.

담묵가 부정형의 선들이 조화를 이루며 구축해내는 화면은 억지스러운 운필이나 강요하는 듯 한 강한 먹색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수묵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질인 번지고 스며들며 어우러지는 우연의 심미가 가득하다. 사실 수묵은 인위적인 운용에 앞서 수묵 자체에 대한 일정한 용인가 이해가 전제된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우연의 효과 역시 조형의 한 부분으로 수용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수묵의 심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작가가 굳이 짙고 강한 먹선으로 사물을 규정하지 않고 분방하게 흐트러진 담묵의 심미를 취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수묵 표현에 있어서의 물성에 반응한 결과라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드러냄과 숨김, 혹은 허와 실이라는 상대적인 내용들의 대비와 조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목판으로 찍은 것과 같은 나비의 형상이나 언뜻언뜻 드러나는 꽃의 모양들은 비록 행위의 흔적이자 결과이지만 굳이 형상의 완전성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 일견 흐트러지고 불안전한 모양들을 띠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작위와 무작위, 필연과 우연이 교차하고 융합하는 작업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분방함과 비정형의 우연성을 십분 수용하여 특유의 담백하고 감수성 짙은 화면을 구축해 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작가가 운용하고 있는 수묵의 방식은 전통적인 수묵관을 원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추종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작가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금분이나 은분을 더하여 수묵을 다스리고 장식적인 효과를 더하며, 전지고 스며드는 우연의 효과를 통하여 순간적인 감성을 포착해 낸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전적으로 작가의 개성과 발상이 전제되는 것으로 경직된 수묵의 이해에서 일탈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지는 비정형의 선들은 분명 모필로 이루어지는 운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분방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인위적인 통제나 기교적인 운용을 배제한 체 오로지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감흥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들은 분명 중봉에 의한 유려한 모필의 선 긋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작가가 굳이 이러한 일탈의 내용과 요소들을 통하여 자신의 감성과 개성을 표출하고자 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수묵을 체질화된 감수성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시대적 심미를 반영해 내고자 함일 것이다. 물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감각에 의한 새로운 조형을 필요로 한다. 전통의 축적 역시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의 유입과 반영을 통하여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 보여주고 있는 수묵의 조형세계는 분명 흥미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전통적인 것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심미의 틀 역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수묵은 작가에 있어서는 하나의 체질화된 조건이자 감성의 근원인 것이라 여겨진다. 현재 작가에게 필요한 것은 체질화된 수묵에 대한 보다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발현가호자 하는 개별적인 심미의 특질을 보다 강화하고 심화시키고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작가의 작업이 일정한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에게는 그만큼의 가능성의 여지와 미답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있는 셈이다. 이는 전적으로 작가의 노력과 몰입을 통해 개척되고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김상철 (월간 미술세계편집주간)





이야기人

김윤숙 개인전 리뷰

2007.5.17–5.23 (우진문화공간)

인연을 맺어간다는 것..

좋은 인연으로 좋은 전시를 하게 되어 감사히 생각한다.

작업을 하고 싶어 불안해하던 시기.. 평소 좋은 작업으로 따르던 선배님으로부터 따뜻한 미풍이 전해졌다. 얼굴을 알기 전부터 작업으로 먼저 뵙고 지내던 분.. 그리 이번 전시의 기회가 나에게 다가온다.

언젠가부터 갈증이 느껴진다. 인연.. 사람.. 알고 지냄.. 관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는 이와의 인연, 기회.. 엮어감..사연.. 삶..

사람들에 섞여 살고, 자신의 이야기를 닮고, 자신의 인생을 묻어나가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져 인연이라는 관계로 형성되어진다.

완성됨보다는 하나하나 변해가고 쌓여가는 것, 그리 변해가는 것, 그것의 흐름에 마음아파하고 행복해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며 편안해하는 것 .. 그리 인물을 그려내 본다. 하나하나 생각하고 스며들듯.. 차분히 붓질을 하며 마음을 담아내 간다.

작은전시.. 공간..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려낸다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그때의 나 또한 기운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거북함을 느끼고...거스름을 인도하여 ...어느새..내가 녹아듭니다...
내..기운이 녹아들어 한스러움과 편안함..그리 차분함이 베어듭니다...
작은 공간에 마음을 담아 그려봅니다..
서러움도 기분 좋음도.. 행복함도...그리 차분히 내 곁에 맴돕니다...
나의 세상..나의 이야기...

생각을 정리 할 수 있어 좋았고..맘을 다스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작은 압박감이 좀먹으며 다가들 때도...
그리 애석해하지 않고 보냈더랬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에 겨워 할 때... 많은 변화를 겪듯...
그리 몇 해, 몇 시간을 보냈던 참입니다...
이리 성숙해가고 ..생활해가며 삶의 미덕을 배워갑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햇살은 소식을 전하네요...
어느덧 이리 더운 여름의 기운을 발끝에 전합니다...
초록의 푸르름을 잠시 봐주고, 어느새 여름의 아카시아 향이 풍기네요...
하얀 이팝나무의 화사함...

아카시아 향에 취해, 이팝 나무의 거창한 화사함에 취해 올여름...
이리 아쉽게 보냅니다.

새벽의 소쩍새 소리마냥... 그리 맑게 개인 오늘과 내일을 바라봅니다...
곧... 매미의 울림이 들리는 여름이네요...

2007 작업노트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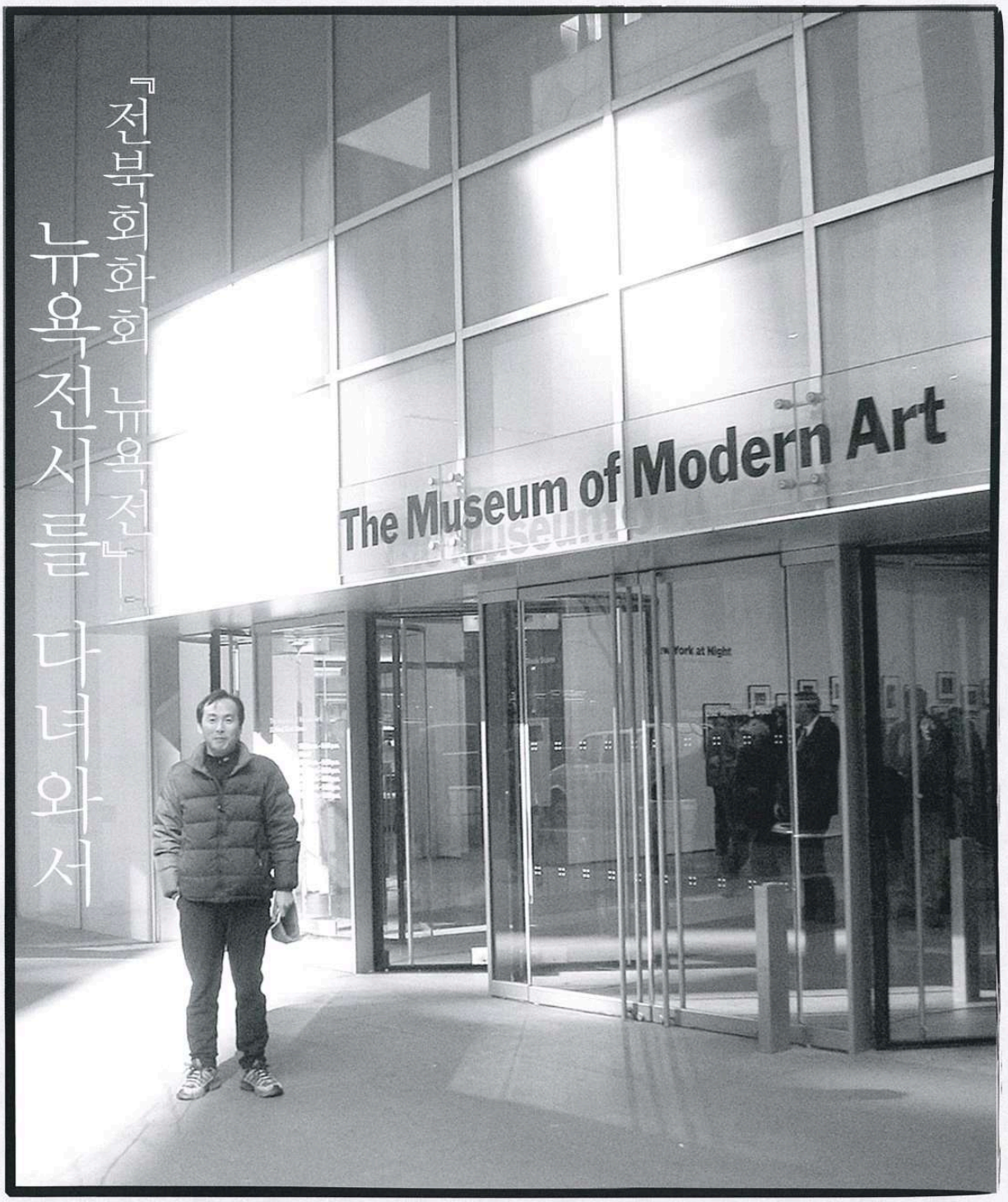


침묵...

현대인들은 바쁘다. 말로써 상처받고 상처 준다. 자신의 공간도 없다. 아니 공간을 찾아 허덕인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굉장히 넓은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영역이 확실하고 넓어서 자신이 서있는 곳 또한 일정하지 못해 한 곳 한 곳 기억하지 못한다. 여기에 나는 현대인이며 동시에 내가 아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닮아보았다. 현대인, 남이 아니며 타인이 아닌 인연을 맺은 이들 그들은 하나 하나의 개체가 아닌 한명 한명의 존재가 되어 나의 삶의 일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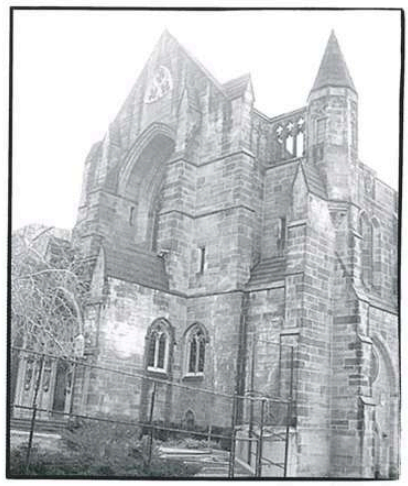
감사 할 이들이 많다. 좋은 인연이 참으로 많다. 보답해야 할 이들이 더 많아지는 듯하여 흐뭇하기도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지치고 지쳐도 쏟아 낼 수 있어 좋았고.. 전시를 봐주러오는 이들이 있어 좋았고, 또한 그런 기회를 주신 분들이 있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한가득 이다. 맘을 표현하는 법, 관계에 대처하는 법, 인연을 이어가는 법.. 이리 글을 정리하다 보니 이번 한해는 나에게 특별한 한 해를 선물해주신 분들이 있어 더욱 값짐을 느낀다. 사람 좋아하기만 하는 성격이라 말로써, 행동으로써 지인들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했다. 한 해, 한해.. 하나의 전시를 치러 낼 때 마다 성장하는 자신을 느낀다. 비워내고 담아내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

『전북회화회 뉴욕전』
뉴욕전시를 다녀와서



이 철 규 (회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개인적으로 이번 뉴욕여행은 두 번째 이다. 2002년 9월 휴스턴에서 열렸던 개인전 때문에 일주일간 여정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 이틀 동안 뉴욕을 들렸었던 적이 있다. 그 당시 퀸즈에 머물면서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둘러 본 뉴욕은 수박 겉 핥기라 할까? 뉴욕이라는 대 도시의 겉모습만 보고 가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 기회는 이러한 아쉬움을 한 번에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이었다.



❀ 단순히 여행목적이 아닌 갤러리 밀집 지역이자 미국미술 나아가 세계미술을 이끌어 가는 - 첼시지역에 위치한 화랑(월드파인아트갤러리)에서 전북회화회 전시가 열릴 뿐만 아니라 게다가 숙소도 맨하탄(Manhattan) 렉싱턴가(Lexington street)에 위치한 Radisson 호텔에서 10일 여정으로 머무르니 뉴욕이라는 도시를 제대로 보고 느껴 볼 수 있게구나 하는 기대감과 또한 미국 미술계의 동향을 여유 있게 좀 읽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잠시 이방인 뉴요커가 되어보는 설레임 또한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 여행에는 뉴욕 전시회를 마련한 학교 후배이자 전북회화회원인 이우정과 그녀의 초등학생 2년인 딸, 박지예 회원, 나 이렇게 4명이 동행하였다. 1월 30일 저녁 8시에 탑승한 비행기는 12시간의 장시간의 비행 끝에 다음 날 저녁 8시에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였다. 1월의 뉴욕의 겨울은 추위가 상당 하였다. 다음 날 오전에 뉴욕 맨하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버스투어를 하였다. 맨하탄 48st(코리아타운이 있는 지역)에서 출발하여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이 바다와 합류하는 지역 즉 부두쪽으로 관광하는 코스였다. 투어버스에는 약 20여명의 한국인들로 차있었다. NY대학교학생, NY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LA에서 온 한국 교포 가족관광객들 가지각색이었다.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여행사(드림투어)이다 보니 가이드, 기사, 관광객 모두 한국인 이었다.

6차선 도로가 수많은 자동차들로 좁게만 보이는 도로와 좌우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솟은 빌딩은 4년 전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과 그라운드제로(핵폭탄 실험 시 핵이 폭발 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명명한 9.11테러 현장과 Wall street를 지나 부두로 향하였다. 마침 부시 대통령이 Wall street에 있는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연설 계획이 있는 관계로 차량 정체가 극심하였다. 오전11시에 승선하기로 되어있었던 배편(자유의 여신상 유람선)은 1시간 연기되었다. 12시에 승선한 유람선은 자유의 여신상으로 향하였다. 4년 전 뉴욕까지 와서 가보지 못해 아쉬움만 남았던 터라 기대가 되었던 곳이었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건너편에는 붉은 벽돌 만든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미국의 이민역사를 보여주는 곳으로 유럽에서 미국 이민 시 신체검사(전염병내지는 질병)를 하였던 곳이라 한다. 자유의 여신상은 조그마한 섬에 위치하고 있었다. 9.11 테러 이후로 강화 된 검문검색으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유람선은 섬에 정박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도록 주위를 돌았다. 살을 에이는 차디 찬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대서양 바다에서 보는 맨하탄의 수 많은 건물들은 또 다른 뉴욕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선 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향하였다. 공사를 시작하여 2년 만에 지었다는 불가사의 한 빌딩으로 유명하며, 특히 개인적으로는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마지막 장면이 연상 되는 곳이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입구부터 철저한 검문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망대는 86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맨하탄을 투어하는 동안 하늘이나 빌딩을 보기위해서 밑에서 위로 눈을 치켜뜨고 쳐다만 보다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맨하탄의 빌딩들-GE, UN빌딩, 문선명빌딩 등 -은 마치 성냥갑들을 세로로 쭉 세워 놓은 듯한 모습은 마치 장난감 빌딩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왼쪽으로는 허드슨강이, 오른쪽으로 이스트강이 맨하튼을 끼고 흐르는 모습이 한국의 풍수로 말하면 좌청룡 우백호라 할까! 버스 곧바로 할렘가로 향하였다. 미국 동부 명문대학 중 하나인 콜럼비아 대학은 맨하탄 북부 할렘가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의 할렘가는 과거의 우범지역이 아닌 맨하탄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역으로 평가되어 그 면모가 한해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한다. 덩달아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 한다. 바로 10분여 거리에 2050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St Johns성당은 할렘가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투어는 UN빌딩, Time Square광장, Madison square Garden을 거쳐 뉴요커의 쉼터인 센트럴 파크를 지나 호텔로 돌아왔다. 센트럴 파크는 면적이 3.4㎢이며, 도시공원 형태의 시민공원으로 동물원, 시립미술관, 호수 등 있으며 공사가 1850년에 시작되어 1960에 완공 되었다 한다.

2월 1일 오늘은 전시회 오픈이 있는 날이다. 첼시지역 Gallery는 조용하였다. 아니 침묵 하고 있다고 나 할까!! 인맥이 뜸하였다. 서울의 인사동 같이 인파가 대단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인사동같이 잡화점이나 편의점, 화방, 필방 등이 모여 형성 된 복합적인 거리가 아니라 오로지 화랑들만이 존재하고,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오고가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다. World Fine Art Gallery는 전체가 갤러리와 작업실로만 구성 된 건물의 8층에 위치해 있었다. 한국에서 보낸 전북회회원들의 작품들은 화랑 전시장 벽면에 잘 배치되어 있었다. 벌써 3점이나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으며 한 점은 예약 중이라 하였다. 전시 오픈 전에 화랑 웹 사이트에 작품들을 올려놓고 미리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에서 미리 알고 왔지만 미국 뉴욕의 화랑답게 작품을 한점이라도 더 팔려는 직업정신 과 철저한 자본주의가 배어 있었다. 3점이나 판매 되었다는 사실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다. 군데 군데 하얀 새치머리를 가지고 있는 흑인혈통의 갤러리 관장은 우리들의 작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특히 작품을 제작한 공력에 비하여 저렴한 작품가격에 내심 놀라는 눈치이다. 월드파인아트 갤러리는 작가들이 화랑의 전체 내지는 한 벽면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독특한 형태의 상업화랑 이었다. 홍보는 화랑에서 담당하며, 고객들에게 메일내지는 홍보물을 발송하여 판매 시 일정비율의 커미션을 챙기는 형태의 화랑이었다. 소위 전속작가제도는 없지만 신진 화가들이나 무명의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주는 화랑이었다.

대부분의 첼시지역의 화랑들은 철저히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상업 화랑들로서 대관을 하지 않고 소속 및 전속 작가들만이 전시를 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었다. 한국에 있는 화랑같이 뉴욕의 화랑도 1년 전에 신청하면은 대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북회화회의 미국전시를 추진하였지만 전시장 섭외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전시장 섭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좀 더 좋은 화랑을 섭외하려고 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피치 못 할 이유로 이 화랑을 섭외하였던 것이다. 저녁 6시 오픈시간이 되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러 모여 들었다. 1층부터 건물 전체가 전시장으로 되어 있기에 관람객들은 꾸준히 시간을 두고 찾아 들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곳 뉴욕 첼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오픈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몇몇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특히 4층 에서는 3-4개의 전시회 오픈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전시장이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꽉 차있었다. 대부분 한손에는 접시에 다과류를, 다른 손에는 병 백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미국식 실용주의 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간단하게 오픈식이 열리고 있었다. 한국 같이 뷔페 형식으로 거하게 차리는 형태의 오픈이 아닌 동료내지는 축하객들이 각자가 십십일반으로 간단한 다과류, 음료, 주류를 가지고 와 나누어 먹고 마시는 마치 조그마한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첼시지역에 만 200여개의 화랑이 있는 관계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화랑을 구경해 볼 요량으로 급히 또 다른 몇 개의 화랑을 쭉 둘러보았다. 마침 한 화랑의 안내판에 한국작가의 이름이 눈에 들어 왔다. 영어로 유선구(SUNGHU, YU)적혀 있었다. 인물을 주제로 화려한 색칠을 한 현대 도예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미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시화랑의 소속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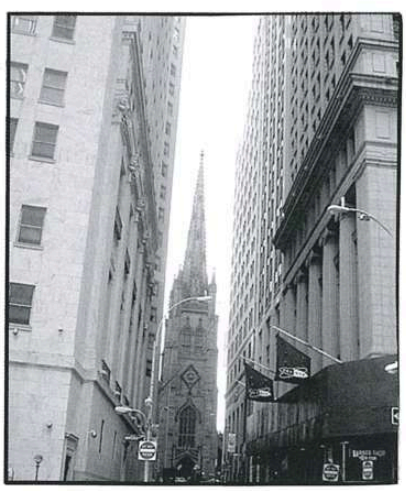


잠시 시간을 내어 미국 뉴욕 미술계의 흐름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을 질문도 하고, 많은 것 들을 들을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곳 첼시지역 대부분 화랑은 철저히 전속, 소속작가제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1년 내지는 2년에 한번 씩 초대전을 열어준다고 하였다. 꾸준히 홍보하여 한마디로 싹수가 보이면 유명작가로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화랑의 상술과 경제논리가 적용되겠지만 그 제도가 상당히 합리적이었다. 또한 중요시 되는 항목은 소속작가 섭외에서 화랑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뒤따르는 데 화랑 관계자가 작업실을 매년 수시로

직접 방문하여 작가의 역량과 작품량을 확인 한다고 하였다. 새롭게 발전된 모습이나 작품량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명성을 얻은 유명작가라도 곧바로 삼류작가로 전락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명작가 일수록 그 유명세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작업을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한국 같이 한번 명성을 얻으면 죽을 때까지 -작품량이 많거나 적음에 상관없이, 새롭게 변모되는 모습이 있던지 없던지- 지속되는 흐름과는 그 근본부터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철저한 검증은 화랑이나 작가로서나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창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월 2일 오전에 다시 한번 St Johns성당과 미국 동부에 있는 IVY리그 대학 중 유일하게 맨하탄 북부 Harlem 가와 가깝게 위치한 모닝사이드라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Columbia 대학교를 둘러보았다.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교로서 1754년에 개교하였다 하며, 개교 시 학교명을 킹스칼리지라 하였으나 독립 후 컬럼비아로 개명하였다 한다. 초입부터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구성 되어있는 대학정경은 300여년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특히 돔 양식으로 건축되어 진 도서관 건물은 노벨상을 50여명이나 배출한 콜럼비아 대학의 학구열을 느끼게 해준다. 걸어서 10여분거리 2050년에 완공예정으로 매일 공사를 하고 있는 St Johns성당은 조금씩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며, 사강암으로 건축하였기에 시간이 지날 수 록 불에 그을린 자국같이 검게 변한다고 한다. 오후에는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이자 뉴욕 맨하탄의 명소인 Metropolitan Museum 을 관람 하였다. 전 세계의 국보급 유물을 전시해 놓았는데 특히 건물 한 채를 그대로 미국으로 옮겨와 버린 이집트 유물과 중국 막고굴에서 통째로 뜯어다 전시해 놓은 돈황의 불화벽화(프레스코 기법으로 제작)같은 유물들은 세계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인 미국의 전리품 같은 생각이 들어 한편 씁쓸하였다. 중국관과 일본관 사이에 약 30여 평 크기로 만들어 놓은 한국관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부한 유물(고려청자, 민화 병풍, 자개분갑 등)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 규모부터가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초라해 개인적으로 생색만 내는 전시관 같아 아쉬움이 더 하였다. 한편으로는 피카소, 마네, 자코메티, 램브란트, 후안미로 등 같은 근대미술작품과 미국 추상표현주의 선구자인 잭슨 폴록 작품과 앤디 워홀, 바셀리츠, 재퍼슨 존스, 이브클라인 등의 세계적인 작가의 현대미술작품을 직접 감상하였다는 것이 큰 수확이었다.

주말이다. 평일보다 교통체증이 훨씬 덜하다. 좀 여유 있게 뉴욕의 미술관을 둘러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소호에 있는 화랑들, MOMA, 구겐하임, 휘트니 미술관 등을 관람하였다. 마침 휘트니 미술관 3층 전관에서는 미국에서 꽤나 명성을 얻고 있는 키키 스미스라는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다. 나에게 좀 충격적이랄까? 그의 작품은 일견 보기에도 대부분 한지로 제작되어진 사실에 깜짝 놀랐다. 평면, 설치, 철조, 목조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년대별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입구 중앙 벽면에 부착한 설치작품은 한지를 꾸겨서 만든 작품이었다. 한마디로 한지를 제2의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한, 한지 고유의 물성을 표현하려는 작품이었다. 궁금증이 더해 명패를 자세히 보는 순간 재료가 Japanese paper라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화지가 뉴욕에서 Japanese paper란 재료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휘트니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에서 영향력있는 작가에 의해 한지, 화지, 선지를 포함해서 닥으로 만든 종이를 Japanese paper라 불리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한지도 혹시 미국에서는 화지로 치부되어 버릴 수 도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들었다. 일본의 전통 문화에 대한 막강한 지원과 영향력을 여기 미국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뮤지컬관람, 워싱턴여행, 뉴욕상점에서 만난 한인 모녀의 삶의 이야기 등 못다 한 이야기도 많지만 10일간의 여행은 나에게는 또 하나의 귀중한 문화체험이었다.

마지막으로 전북회화회 뉴욕전시 개최에 많은 도움을 준 이우정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여백의 미

이 승 훈 (회원, 대성중학교)


강희안 고사관수도

한국의 조형미 성격은 느림의 미학에서 찾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느림과 한가로움은 상통하기도 한다. 조출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다. 물질과 욕망의 굴레를 버리고 은근함에 묘취 해버리면 어떨까. 佛家의 말을 빌리자면 욕계삼욕(欲界三欲)을 씻어 청정함에 이른 마음을 찾는 시간이라고 할까. 연꽃 같은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덕성을 찾는 것이리라.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그림을 보면 물도 잔잔하고 사람도 한가롭게 누워 있다. 바람은 불어도 조용하고 정중동 그 자체이다. 강희안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원예서를 썼다는 것은 풀 한포기 작은 것이라도 느긋하게 살피고 그 생물이 본성을 찾아 살아감을 살폈으며 그림에도 잘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원예서인 "양화소록"을 쓴 것은 그가 화초 기르기가 취미 이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고사관수도의 간결한 필치 속에 녹아 있는 식물은 자신 있는 필치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없는 것처럼 한 붓에 나타나 있다. 의암관수도를 그린 박제가는 조선 후기 북학파 실학자이다. 청나라 신문물을 수용하여 富國과 윤택한 생활을 꾀하자는 이용후생론을 주장했다. 그는 문인으로서 전인적 교양을 갖추었고 당대 학자로, 정치인이며, 외교관이었다. 바위에 의지한 채 물을 보고 있는 작품이다. 화제로 칠언시가 적혀있다. 귀는 물에 몸은 돌에 의지 했는데, 세 사람이 있지만 마음은 하나다.(耳爲水而身爲石 形則三而心則一)(유홍준, 이태호, 유희삼매, 학고재) 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물만 바라보고 한 마음이 되었을까.

산수화나 화조화 등에서 보이는 형체는 없음과 있음의 어울림 묘미가 있다. 무형과 유형이 다 있는 것이다. '有無란 空白을 말하며 공백이란 陰陽을 말하고 음양은 凹凸의 형태를 말한다. 동양화에 요철이 없으면 회화로서의 성립이 불가능하고 음양의 철학이 없으면 동양화의 眞意가 없어진다.'(김종태; 동양의 회화사상) 따라서 그 眞意는 화가의 흉중에서 자연의 도를 깨쳐 나오게 된다. 화선지에 붓으로 그리되 마음의 도를 그리는가 보다. 知者樂水요, 仁者樂山이라고 논어에 나오는가 보다. 자연의 도가 무형이지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여백 속에는 즐거움의 미학이 있다. 시는 무형의 그림이요, 그림은 유형의 시였다.(詩是無形畵, 畵是有形詩)라는 말이 있다. 한여름에 설경을 보고 시원함을 느끼고, 폭포수 산수화를 즐기며 여름을 나는 기분은 완상하는 법 중 하나일 것이다. 논어에 이해하고 있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 하고 있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라고 했다. 시라는 무형이 유형으로 나타나고 그 깨달음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여백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유형이라는 眞意를 간직한 곳간과 같은 것이다. 천천히 그림 속에 다가가는 느낌은 실로 흥분 경지에 오를 것이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화폭 속에 무한한 虛와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靜과 한가하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忘과 모든 속세를 초월한 無己(佛家에서 解脫 상태의 無我)가 있어야 한다.'(김종태 ; 동양의 회화사상) 한국 회화가 회화성을 바탕으로 하기 전에 천지만물과 소통하는 길로 여겼던 것이다. 여백에서 이만한 철학과 예술의 境地를 느끼기에 충분할 것은 없다. 寫實美보다는 理想美를 추구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아직도 실경의 寫景만 있고 理想美는 없는 그림이 횡행하는지 모른다. 운필과 포치 등 기능 적인면도 중요하지만 그 여백에서 오는 眞意는 없고 서양화 같은 재료성에 기능적 선수를 양산 하려고 하고 있다.



김홍도 (18후반) 주상관매도

미원남 매석계부도

박제가 (18후반) 의암관수도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즐거움이 또 하나 있다. 기운생동감이 문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용의 고급화라고 할 수도 있다. 송 휘종이 궁정 화사를 뽑는 시험에서 출제한 문제를 보고 그림을 적절히 그려 내는 것이다. 그 문제의 제목은 '깊은 산에 오래된 절이 숨어 있다.(深山藏古寺)' 라는 것이다. 대부분 시험 응시자들은 낡고 오래된 절을 그리거나 그 앞에 천년 된 고목, 그 뒤의 높은 산, 주변의 무성한 숲을 그리는데 힘을 쏟은 것이다. 그 가운데 재치 있는 몇 명만 깊은 산의 고목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절의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단지 산기슭의 작은 시내와 거기서 물을 긷고 있는 늙은 화상, 그 뒤로 구불구불 끝 없이 이어지는 산길만을 그린 것이 훌륭한 작품이었다. 그 자가 남송 화가로 원체화를 정립한 마원이라는 사람이다. 그의 매석계부도(梅石溪鳧圖) 그림은 비단에 채색한 것인데 베이징 고궁박물관에 있다. 이 그림은 많은 여백과 절벽의 한 모서리에 봄의 강물이 그려져 있다. 절벽에는 두 그루 나무가 뒤엉켜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파란 물결이 잔잔한 강물에 한 떼의 오리가 놀고 있다. 어미 오리와 새끼 다섯 마리가 물에서 뜨는 법을 배우는 듯하다. 어미 곁에서 응석을 부리는 놈도 있다. 어미 등에 올라탄 놈도 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재 빨리 물을 가르고 다가오고 있는 것도 있다. 행복한 한 가족을 보는 듯하다.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봄이 오는 것을 연상하게 하고, 화면을 통해 직접적으로 "봄 강물이 따뜻해지면 오리 들이 먼저 안다.(春江水暖鴨先知)"라는 시적 정취를 표현하였다.(황위펑, 시는 붉고 그림은 푸르네,학고재, 따옴) 이러한 '畵中有詩'를 더 알아보자. 궁정화사를 뽑는 문제에 '꽃을 밟고 달려온 말발굽의 향기'를 그리는 것이었다. 시험에서 꽃이나 말을 그린 사람은 죄다 떨어졌다. 입선작은 여백 속에 흙바람을 따라 날아오는 한 무리의 나비를 그린 작품이었다. 꽃향기가 날리는 곳에 어찌 나비가 없을까 하는 시적 발상이다. 부제 '한적한 산골에 강 건너는 사람 하나 없고 외로운 나룻배 종일토록 떠있네'라는 것이었다. 그림 속에 물결이니 계곡이니 나무니 하는 따위를 집어넣은 응시자는 떨어지고 뱃머리에 다리 괴고 누워 피리 부는 노인을 그린 사람이 장원으로 뽑혔다.(손철주,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효형출판, 따옴) 여백에는 시적 감동까지 붙잡아 오는 한가로움이 있기에 감상자의 여유로운 마음을 흡족하게 하리라. 쉽고 빠르게 살다보니 1억만년의 석유자원을 200년에 다 쓰고 지구는 멸망하고 있지 않은가. 숨 가쁘게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빠르게만 살려고 하는가. 김홍도의 주상관매도는 천하 태평한 그림이다. 배를 타고 안개 너머 봄 나뭇가지를 보고 있는 사람과 배 아래에서 바라보는 화가의 위치도 한가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반성하자. 새로운 고전을 추구해보자. 우리그림의 정체성을 살려보자. 한 폭의 그림으로 생활에 여유를 갖고 미래의 한국 화단에 샘물을 솟구치게 하자. 여백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그리지 않은 곳이란 말인가. 여백이야말로 화가와 감상자의 소통도구요, 시적 감정을 이끌어주는 무한한 공간이다.

우리그림-우리인물화 전통초상화에 대하여

이 철 규 (회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요즘 '전통이 미래다' 라는 문구와 프랭카드를 전주 일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전주가 전통 문화 중심도시로 특성화되면서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탐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새삼스럽지만 특히 국악, 판소리, 한지 등 전통에 관한 것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지속적인 홍보로 그 기틀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술 판에서는 우리 전통에 관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점 들은 미약하기만 하다. 예부터 예향의 고장으로 서화의 전통이 끈기 있게 이어왔던 전통 미술들이 활발하게 그 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위축되면서 단절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 정도이다. 그런 대로 문인화 및 산수화분야는 몇몇 재능 있는 작가들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통 인물화에 대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조선말에 화원화가이면서 어용화사인 채용신이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전통 초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그 명맥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특히 전통 인물 및 초상화에 대한 전공자가 급격히 줄면서 그 명맥 이어가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혹여나 전통 인물화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의견이 있어 전통 인물화(초상화)에 대한 제작과정과 그 우수성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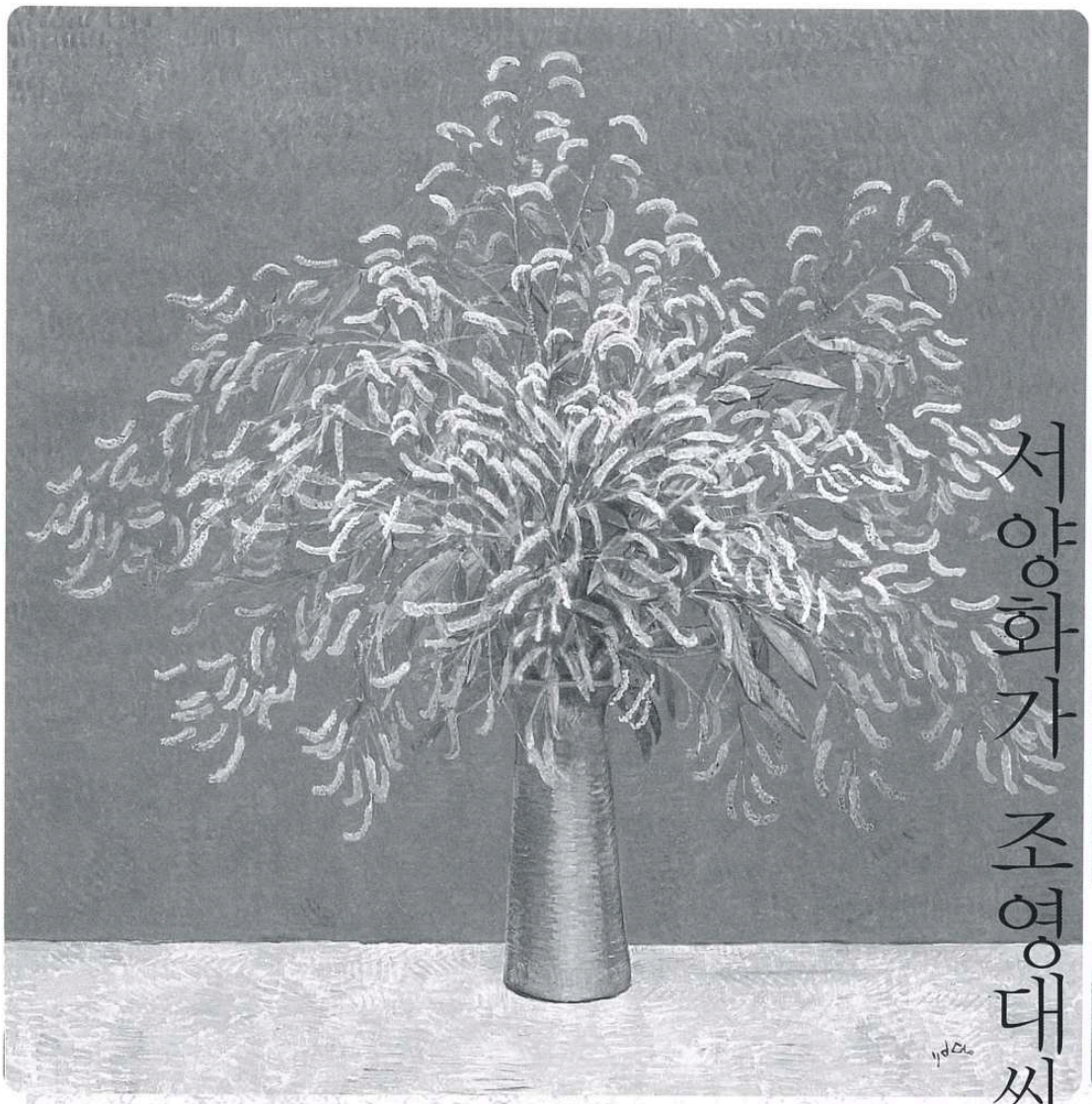
한국 전통초상화의 시초는 자료상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오는 총주부부상(塚主夫婦像)이라는 설이 정설이다. 이후 통일 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면면이 제작 되어 왔던 초상화들이 조선왕조 들어와 유교가 국가 건국이념이 되면서- 후손 및 유림(儒林)에 의해서 선조 및 이름 있는 학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의 뜻으로 -사당 및 영당(影堂)에 봉헌할 초상화의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게 된다. 이렇게 다량의 초상화를 제작하면서 그 기법도 중국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다양하고 독특하게 발달되었다. 특히 한국회화사에서도 주목할 만 한 초상화가 적지 않게 제작되었다. 한국 초상화는 중국과 일본의 초상화와 함께 정확한 골상법(骨相法)에 의해 과학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대상 인물에 대한 작가의 통찰력과 표현에 앞서서 정확한 안면 근육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작과정은 한, 중, 일 삼국의 초상화 제작방법 중 한국 전통초상화 제작방법의 그 독특함과 섬세함으로 인해 종종 서양의 초상화 제작 방법과 비교되곤 하는데 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자!

첫째, 전통 초상화는 서양초상화가 정확한 비례 및 형태, 명암 등 외부에 들어내는 형태표현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전신사조(傳神寫照)라는 큰 이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전신사조(傳神寫照)란 대상 인물에 대한 형태(寫形)을 정확히 표현하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을 먼저 파악하고 그 성품까지 표현해야한다는 것(寫心)이며 게다가 외부에 드러나는 '터럭 하나라도 똑 같이 그려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의 현대의학자들이 조선시대에 제작되었던 초상화를 보고 안면에 표현된 각종 색과 반점 등을 보고 병명까지 유추했다 하니 과거에 조선시대 화가들의 대상인물에 대한 관찰과 표현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둘째, 그 제작 방법이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예술관이 반영되듯이 색감과 종이(韓紙)가 하나의 몸이 되어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서양의 초상화는 캔버스라는 화판 위에 유화라는 물감으로 덧칠함으로써 물감과 캔버스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작방법은 서양인물화는 그리는 행위를 페인팅painting이라 하여 소위 얼굴 위에 화장을 하는 식의 방법으로 이해 될 수 있으며, 전통 초상화는 그리는 행위를 드로잉(drawing)하여 선(線)의 품격과 정신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통 초상화는 그 내면의 성품을 표현해내려는 의지의 반영으로 뒷면에 색칠하는 배채법(背彩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지의 투명성을 이용해서 한지의 뒷면에 색과 명암을 가미하여 우러나오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현해 내려는 자연합일(自然合一)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셋째, 재료상 서양화의 유화 물감과 붓은 전통 초상화의 물과 융합되는 천연재료와 세필 붓과는 표현상 그 방법의 차이가 있다. 즉 서양인물화의 초상기법은 명암과 덩어리 위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전통 초상화 기법은 인간 안면의 이목구비 표현에 있어서 골상법(骨相法)에 의거 선(細筆)으로 터럭 하나하나 까지 그려내며 심지어 땀구멍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말기 화가 채용신은 안면 근육의 문양 즉 육리문(肉理文)의 결을 따라 아주 극세필(極細筆)을 사용하여 안면부를 표현하고 있다. 넷째 초상화 작품의 배경 처리를 들 수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 전통초상화는 배경을 생략하여 인물 자체만으로 근엄함과 웅장함을 -경배 및 숭배의 대상으로- 한껏 표현하였다면 서양의 초상화는 주위인물을 함께 배경을 자세히 표현하여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였다. 배경의 有無 여부는 동서의 초상화의 하나의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초두에서 열거한 전통 초상화 기법은 대부분 왕의 어진을 제작하면서 그 표현기법과 채색법, 재료사용법 등 이 발달되고 다양화 되면서 고관대작 및 양반들의 초상화 제작에도 적용되어 다량의 작품을 제작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원류의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수하고 독특한 초상화 제작기법이 완성되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어진 제작 단계를 살펴보자. 도감(圖鑑)설치 - 어진화사(御容畵師)선발 - 초본(草本, 밑그림) 제작 - 상초(上綃, 밑그림을 비단, 한지 위에 옮겨 그리는 과정) 및 정본설채(正本設彩, 일종의 배채과정)- 후배(後褙, 종이 한 장을 붙이는 배접과정) - 표제(標題, 일종의 어느 왕이며 제작시기의 자료 표식)-봉안(奉安)- 논상(論賞, 어진제작에 참여한 화가들에 대한 포상)으로 까다롭고 정성을 요수하는 많은 단계를 거쳐서 완성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초본 제작 시 모사(模寫)와 달리 도사(圖寫)를 할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초가 나올 때 까지 제작을 계속하였으며 이때 직초(織綃)를 같이 병행 하였다. -광초(廣綃)를 사용하였다.- 상초는 묵(墨)을 사용하였으며 어용화사가 직접 제작하였다. 또한 상초를 한 후 초본은 명종 이후 종묘나 진전 후원에 묻어 버렸다 한다. 완성된 어진은 길일 길시를 택하여 봉안하였다. 여기서 전주의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건축되어 졌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일 것이다. 조선시대 어진 초상화 제작 시 가장 특기할 만 한 사실을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보면 첫째, 상초시 안면부 배채(背彩)를 할 때 눈의 표현을 매우 중요시하여 영조 이후로 왕의 어진제작 시 뒤 면에 이금(泥金)을 하였다는 사실(이금으로 인하여 후대까지 은은한 발광의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 즉 조선말엽에 가면 초상화가 두 경향으로 나뉘어 표현되어 진다는 것이다. 전래의 초상화법, 즉 골상법(骨相法)에 의거한 구륵법(鉤勒法)과 이에 음영법(陰影法)을 혼용한 형태의 초상화, 이른바 채석지필법(採石芝筆法)으로 육리문을 따라 무수한 세필을 가해 실재적 입체감을 주는 화풍으로 나누어진다.

위에서 언급한 어진 제작은 무수한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완성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세심한 배려가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어진제작기법은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참여했던 화가에 의해 대부분 고스란히 일반 고관대작 초상화 제작에도 적용되었으며, 그 제작 기법이 꾸준히 전승되어 대를 이어왔다. 지금 현재에도 제작되어지는 초상화 기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조선시대에 완성되었던 제작 기법이 전해져서 양식 및 표현법과는 대비되는 품격 높은 肖像藝術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즉 관찰한 대상 인물의 정확한 형태묘사 뿐 아니라 그 내면의 정신세계까지 그려내려는 傳神寫照를 대변해주는 수준 높은 전통초상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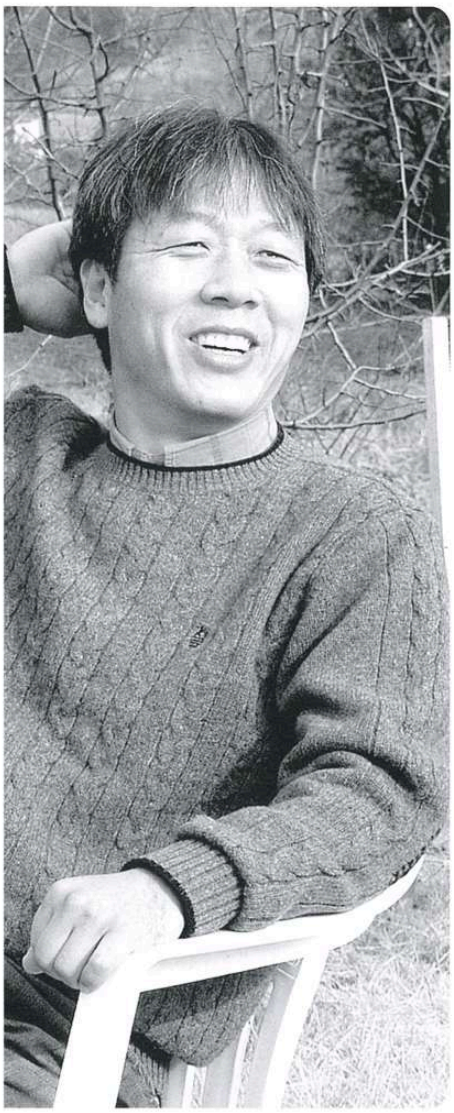
서양화가 조영대씨를 찾아서…

전업작가

조 영 대 (서양화가)

김영애 기자 (전북중앙신문)

'교실 환경미화'는 아담한 소도시에서 한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은밀한 기념사진과 같다.
서양화가 조영대씨(47).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그는 방과후 늘 환경정리를 도왔다. 그게 중학교까지 이어졌고,
그림과 무관했던 소년이 화가의 꿈을 키운 것은 그렇게 우연처럼 찾아왔다.
지금도 그는 조그만 세계를 음미할 때마다 어둠처럼 검은 커피 한 잔을 마시듯 그 풍경 속으로
걸어가곤 한다.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용복마을 언덕에 자리한 그의 작업실.
이미 꾀꼬리 울음 멎은 지 오래고 울울창창했던 녹음도 사라졌으나 바람소리, 나무 서걱이는 소리,
물소리는 여전히 향기롭다. 고즈넉한 산하와 마주한 텅 빈 작업실에서 그는 매일처럼 빛 알갱이들과
일대 전쟁을 치른다. 300호 남짓한 북창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따라 빛의 생사를 탐색하고 그 변화를 캔버스에 담는 것이다.
물론 소재는 지천에 널려있는 자연. 이들이 오색찬란한 빛과 만나 이루는 생과 사를 그려낸다.



용복마을 작업실에서 근무하는 그의 전업작가 인생은 평화롭다 못해 향기롭다.

그런 연유인지 그의 작업실에선 굳이 안과 밖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바깥에 '하늘 매발톱'이 존재의 퇴색함을 드러낼 양이면 안의 캔버스엔 '며느리 밑씻개'가 화폭 가득 화려함을 뽐내고 있다.

그의 그림을 보면 볼수록 화가의 가슴이 따로 있음을 실감한다. 색감과 터치는 그냥 나온 게 아닐 것이다. 명료함이란 얇은 비닐봉지처럼 위태로운 것이지만, 그의 작품들은 명료하면서도 평화롭다. '고흐'를 좋아하면서 시작된 빛에 대한 탐구가 뒤받침됐을까. 비판해부가 탁월하고 절약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도 그 만의 고집이다. 몇 년 사이 그는 주로 국내외 아트페어를 공략했다. 스위스 제네바 아트페어는 물론이고 20일까지 중국 상해 아트페어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내미술시장이 활성화됐다고는 하나 유명인들의 몫이고, 전업작가로 살자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상해 아트페어에서 정말 공부 많이 했다. 특히 그들의 치열한 열정은 속이 미식거릴 정도였다. 중국 역사가 3천년 아닌가. 뭘 볼까 고민했지만, 막상 그들과 마주하는 순간 이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의 최근 화두는 '정체성 찾기'. 우리나라 유화 역사가 일천하고 나름대로 인상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색에 대한 이해마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해보겠다는 희망사항에 다름 아니다. 그리하여 지금이라도 행위가 아닌 진리처럼 통용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싶다고 고백한다.

"고흐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상파 일부라고 쉽게 말하지만, 좀 다르게 정리하고 싶다. 그는 뉴톤의 원리나 법칙, 색채계를 충분히 이해한 보기 드문 화가다. 그의 그림을 들여다보면 색이 미끄러지듯 들어가 있다. 특정 색을 무턱대고 쓴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의 빛 알갱이를 이해하고 구사한 것이다. 그런 연유로 그의 터치 속에는 온갖 색이 묻어 있다." 이는 그가 최근 천착해 있는 자연물리적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그 역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빛의 반사나 분산, 간섭현상 등을 관찰하고 이를 화폭 속에 담아낸다. 막연하게 빛과 어둠을 생각했던 그가 이젠 어둠 속에서도 다양한 색을 찾아내는 경지까지 이르렀음은 물론이다. 이는 '환경미화'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격 입문한 30여년 만의 성과물. 운동과 놀기를 유난히 좋아하다 고교 진학을 앞두고 당황했던 소년이 붙잡았던 그림세계는 그리 멀고도 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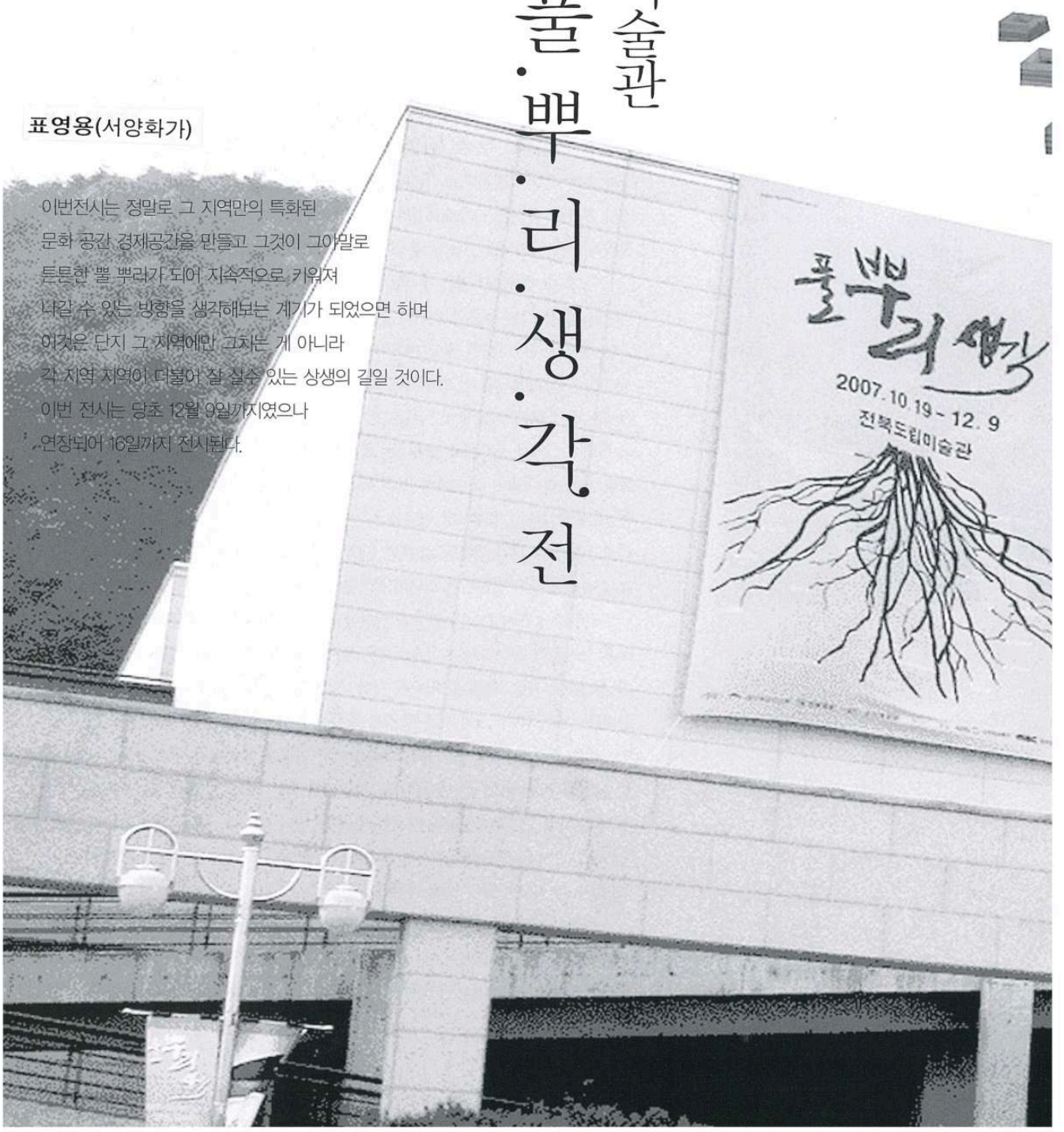
광주에서 태어난 그가 전북과 인연이 된 것은 원광대 서양화과 진학이 계기였다. 이후 사람들이 온순하다는 이유로 전주에 정착했고, 27년 살다 보니 도리어 고향보다 정겹다고 제2 고향론을 외치곤 한다. 그의 작품세계도 2라운드에 접어든 것인가. 풍경을 주로 그리던 그가 요즘엔 주로 정물이나 꽃을 다룬다. 주변에 널려 있는 고마리, 여뀌, 쑥, 오이풀, 망초 등이 화폭을 가득 채움은 불문가지. 사실 이는 유럽 사람들 입맛에 맞춘 자연스런 변화이기도 하다. "2년째 스위스 아트페어를 다녀왔는데 무척 좋아했다. 그 쪽 사람들과 정서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그들 취향에 맞추게 된다. 또 정물은 연출해놓고 그릴 수 있으니 작업도 용이한 편이다. 군소 아트페어도 초대하는데 여력이 닿지 못해 거절하곤 한다."

풍광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배운다는 이…. 자연의 무한한 가능성 대신 인간의 미약함을 새삼 확인한다는 이…. 오전 8시반 출근해 오후 7시면 어김없이 퇴근도장을 찍는 이…. 용복마을 작업실에서 근무하는 그의 전업작가 인생은 평화롭다 못해 향기롭다.

전북도립미술관
풀·뿌·리·생·각·전

표영용(서양화가)

이번전시는 정말로 그 지역만의 특화된
문화 공간 경제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그야말로
튼튼한 뿔 뿌리가 되어 지속적으로 키워져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이것은 단지 그 지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각 지역 지역이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상생의 길일 것이다.
이번 전시는 당초 12월 9일까지였으나
연장되어 16일까지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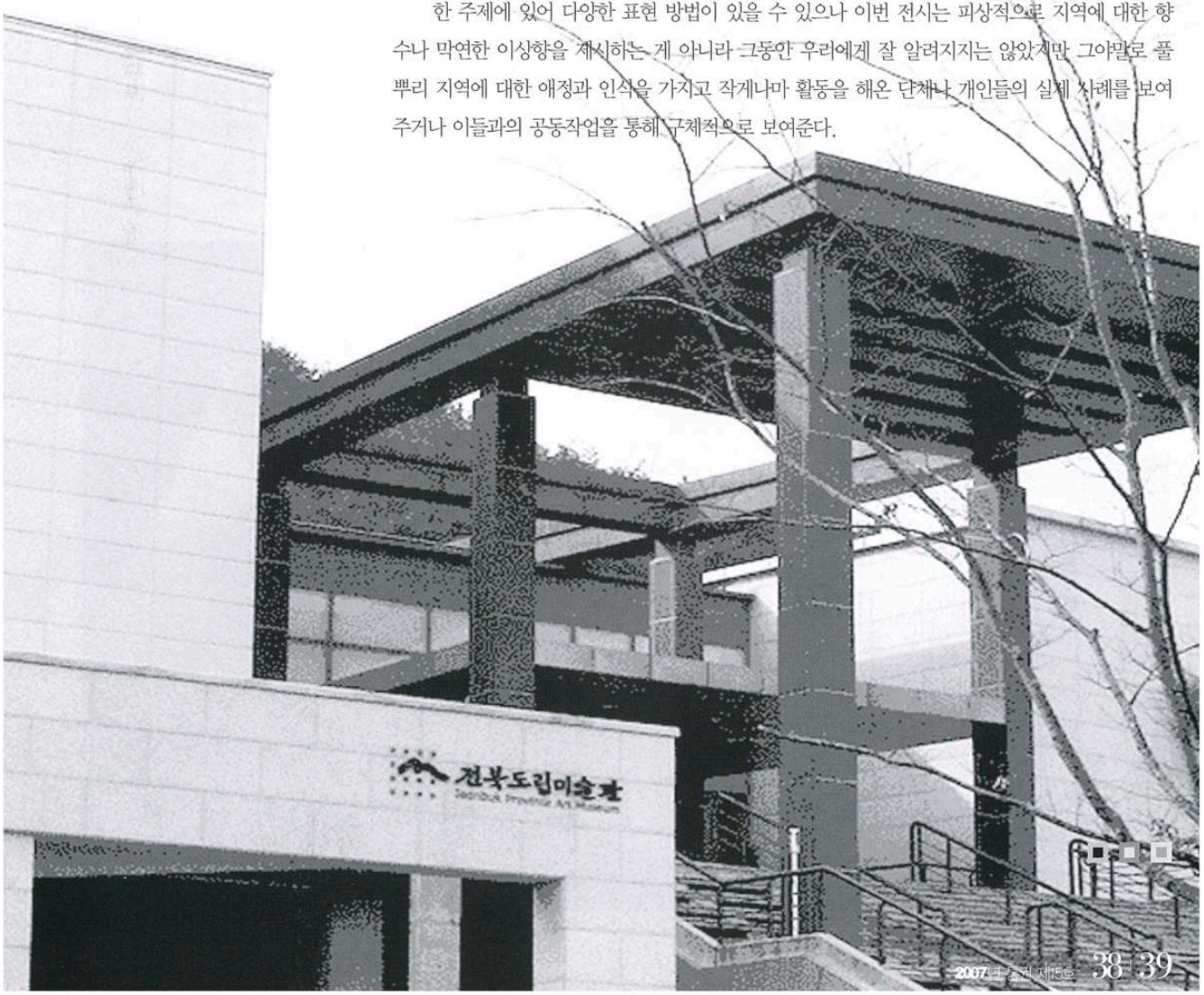


아침에 전북지역뉴스에서 아트폴리스 조성에 관한 보도를 접했다.

얼마전에 끝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전과 현재 '풀 뿌리 생각' 전을 보면서 우리도 도시의 공공성에 미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아름답게 조성하고 이것이 지역의 이미지가 되면 관광과 산업에 까지 좋은 부가가치가 산출되어 지역주민이 지역에 자부심을 갖게 되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풀 뿌리 생각'전은 그간 개발이란 명제아래 모든 가치를 생산성에 두고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에게, 또한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민들에게 우리지역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그간 지역공동체를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체험과 정보를 한 주제 아래 펼쳐놓음으로써 앞으로 지역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연스레 공감대를 유도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지역조성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그것에 대한 자각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 방향설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술관의 일반적인 기능인 작품성 있는 전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넓은 관점에서 지역공공미술관의 역할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생각할 때 좀 더 현실적인 문화의 공공성 문제를 지역의 특수성과 접목시켜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이다.

한 주제에 있어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전시는 피상적으로 지역에 대한 향수나 막연한 이상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풀뿌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인식을 가지고 작게나마 활동을 해온 단체나 개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거나 이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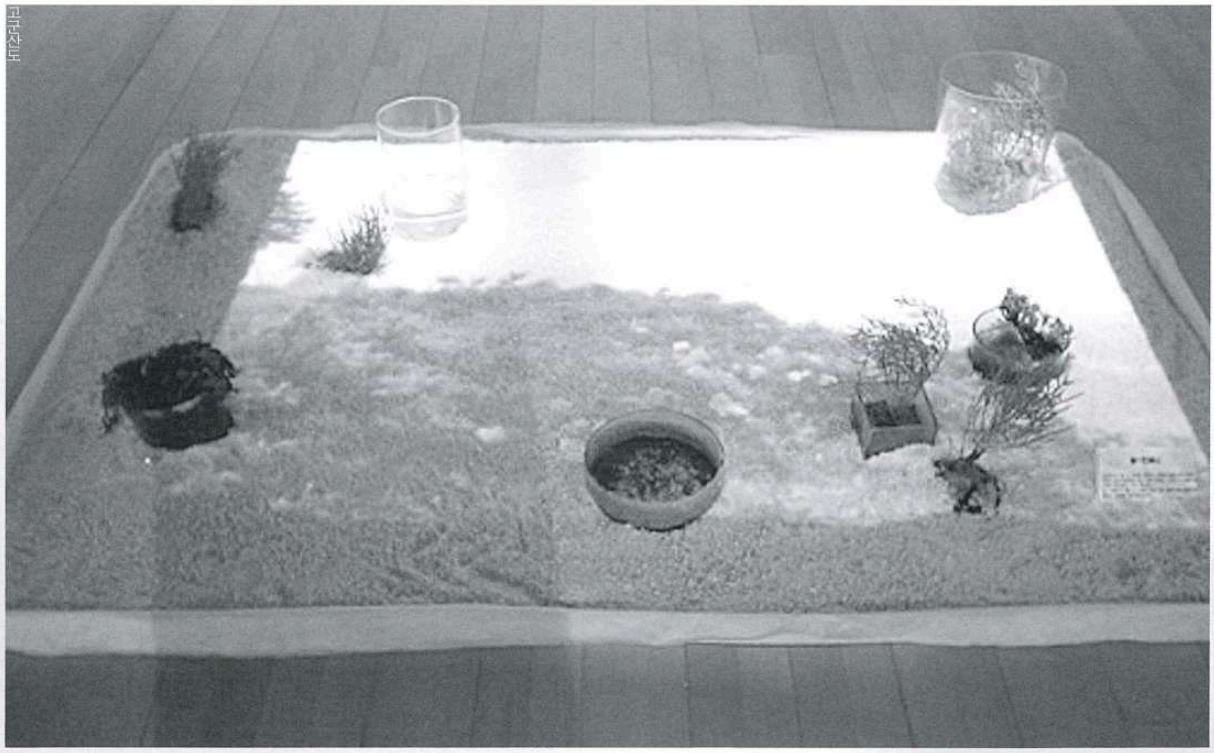


❀ 먼저 1전시실에 들어서면 이제는 우리가 미술관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설치가 나온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땅 얘기다. '전북의 땅, 우리의 섬. 고군산도!' 이 공간은 전북도민에게 전북의 땅 고군산도를 알리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섬의 역사, 문화, 생태 그리고 현지 삶의 모습을 짚어보아 섬의 미래를 꿈꾸어보며 이섬에 사는 이들이 각 섬의 문화를 지켜나가고 그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화공간 싹'에서 마련한 것이다. 2006년 11월부터 전북 섬 현황조사 및 답사내용을 바탕으로 전시구성을 평면, 입체, 설치, 사진영상 등으로 다양화 했고 또한 생생한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섬 어린이와 함께 진행 중인 "우리 섬 바로알기, 자랑하기, 지키기"라는 문화예술교육의 결과물과 각 섬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전시물을 함께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다.


천년한지-문화지도

1전시실이 직접적이라면 2전시실은 회화, 만화 디자인 ,환경사진, 관련책자를 통해 산업화 와 세계화 의 격랑 속에서 해체되어 온 마을들과 죽어가는 풀뿌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먼저 세계의 자연과 전통을 지켜 아름다운 도시들의 예를 보여주고 비교적 짧은 시간 고속성장으로 치달아온 우리 공간문화의 문제를 짚고 있다. 간판, 벤치, 도로 등 정글 같은 도시의 모습! 개발논리에 의해 침식당한 농촌과 그속의 삶의 모습들을. 진안군 용담 다목적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이주민의 인간적 갈등과 이주과정, 철거작업, 담수과정 등을 사진작가 이철수씨가 8년여 걸쳐 생생히 기록한 사진작품이 이주민들이 버리고 간 문패 액자 우체통을 함께 전시됨으로서 펼쳐진다.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생활에 쫓겨 의례 당연히 있는 것들로 치부해 버리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우리의 주변.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환경을 대상화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알 수 있다.

다음 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 '숨 조형연구소'의 완주 대승마을의 '천년한지-지붕 없는 박물관'이란 주제 아래 작가들과 마을 아이들, 마을 주민들이 공동작업과 마을 읽기를 통해 문화지도 작업을 진행했던 결과물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한지 80%를 생산했던 전통적 한지 생산방식과 아직 마을을 지키고 계신 10여명의 장인들, 도침방아의 보전, 대승마을의 문화적 자산들을 통해 한지마을로 재생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전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서 좀더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


고군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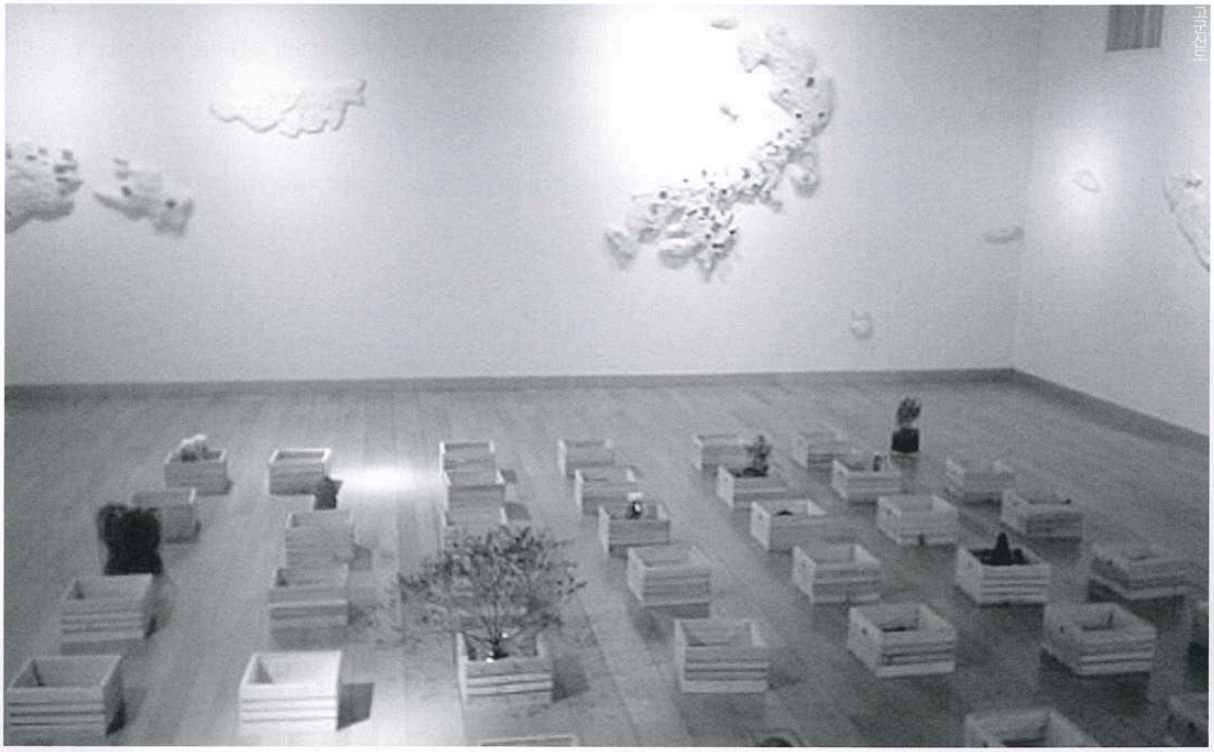
얼마전 동문사거리에서 아는 작가들의 전시 오픈 뒤풀이가 있었는데 한지로 만든 조형물들이 붙어 있었다. 영화제의 거리나 어떤 축제의 거리 느낌은 아니었지만 평소 작가들도 많이 모이고 나름 구시가지의 중심으로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들도 몇몇 볼 수 있어 예술의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젠가 한 적이 있었는데 5전시실에 들어서면서 '공동제작소 심심'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쇠락한 지방의 도심지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과 문화적 공간구성에 대한 노력으로 동문축제, 한옥마을 생활 체험관, 남부시장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 등을 통해 점점 도심에 집중화되는 시대에 지역이 어떤 자생의 노력을 하고 있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지 이것이 어떻게 중심부의 사람들을 주변으로 유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지원을 받아 마을 조사단이 지역의 문화자원 조사와 자연자원 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다음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지원을 한 경우, 작은 마을의 폐업한 정미소를 공동체박물관으로 만들어 마을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사례, 또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삶의 영역을 통째로 박물관으로 만든 경우, 철암의 빌리지움은 탄광마을 철암을 통째로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다양하고도 특색있는 탄광시설과 선탄시설, 광부 사택 등을 독특한 풍광과 함께 보여준다. 금산의 에코뮤지엄도 지역을 통째로 박물관으로 만든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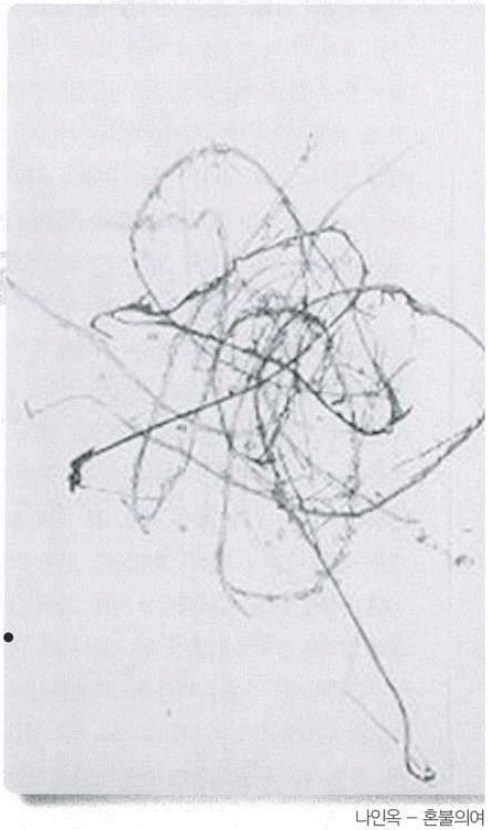
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슬로푸드, 슬로시티는 속도와 생산성의 미명아래 빠른 사회로 인한 우리의 존재방식의 변화와 환경파괴에 대항하는 자발적 해답으로 느림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진정한 문화는 미각을 무시하기 보다는 문화의 일부인 미각을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 지식 프로젝트를 국제적 교류를 통해 이뤄 나가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지자체들이 생태관광도시로서 이 운동을 접목 농촌관광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치타슬로 국제연맹에 가입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영국에서 지역에너지를 개발 도시와 지역차원에서 에너지 자립 율을 높이는 것, 부안의 유기농업과 로컬푸드가 있다.

지자체 이후 지역축제는 많이 생겼으나 그것이 단발성인경우가 많고 단지 지역인들 만의, 축제를 위한 축제가 돼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기에 이번전시는 정말로 그 지역만의 특화된 문화공간 경제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그야말로 튼튼한 뿔 뿌리가 되어 지속적으로 키워져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이것은 단지 그 지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각 지역 지역이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상생의 길일 것이다.

이번 전시는 당초 12월 9일까지였으나 연장되어 16일까지 전시된다.



'혼불' 전 문학과 미술이 만나다.



나인옥 – 혼불의여

고 기 현(회원)

서울에서 전주로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사 온지 어언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교동, 일명 한옥 마을이란 곳에 집터를 잡았고 그 덕분에 최명희 문학관을 자주 지나 칠 수 있었다.

'최명희란 사람이 유명한 문학인인가 보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터였다.

이는 필자의 바쁜 일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학에 관심이 없었던 무지함 때문이었기도 했다.

이런 필자에게 최명희 선생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줬던 전시가 있어서 이 회지를 통하여 소개해보고자 한다.

지난 8월, 전북대 앞에 위치한 공유갤러리의 기획전 '혼불'展은 전시 명부터 나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한 문학인과 그의 소설을 어떻게 작가들이 해석하고 풀어 나갈 수 있을런지 전시를 보기 전부터 자못 궁금했었다.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펼쳐지는 9명 작가들의 작품들. 김영란(서양화), 김철규(서양화), 나인하(서양화), 박순자(한복), 유기종(사진), 유미옥(서양화), 이은혁(서예), 최영문(설치), 최희경(서양화)씨 등 9명의 작가들은 소설 '혼불'을 매개로하여 각각 다른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종국에는 한길에 이르고자 했던 이번 기획전의 취지를 각자의 예술혼 속에 잘 녹여 풀어내고 있었다.

❀ 전시를 보면서 내내 소설을 읽어 봐야겠다는 충동심이 일어났고 그와 동시에 이 소설을 쓴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다. 이렇듯 '혼불'展은 나에게 작가 최명희 선생님의 문학과 삶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된 전시였다. 소설 '혼불'의 방대한 내용을 한 화면이나 공간에 시각적인 함축된 언어로 묘사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란 나의 짐작은 참여 작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실히 알 수 있었다.그들은 혼불처럼 스러져 가면서도 오직 '혼불' 집필에만 매달렸던 최명희 선생의 삶과 흔적을 느끼고 그들의 작품에 온고히 담아내고자 10권 분량에 달하는 대하소설을 세밀히 정독하였고 최명희 선생님의 남원 생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서양화가 김영란의 '꽃심 지닌 땅'에서의 꽃심은 꽃에 피워내려는 강한 의지이다. 천대 받았던 땅에서 전주의 넉넉함을 꽃심으로 표현하였고 이땅과 함께 뿌리내리고자 하는 더 나아가 죽어서까지 종가집을 지키려는 효원의 마음을 신발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서양화가 나인하의 '혼불의 여인들'은 스테인레스 스틸 이라는 현대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소재를 스크래치와 철가루를 부식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여인들의 얼키고 설킨 아픔을 실타래로 표현하였고 '청암부인' '효원' '강실이' 등 '혼불'속 여인들의 이름을 점자로 나열하였다.

사진작가 유기종의 사진작품들은 사실적인 표현과 다른 현실의 자연을 인간의 정서로 탐구하였고 'LOVE'라는 사랑의 의미를 이니셜로 기호화함으로써 최명희 선생님의 전주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사랑을 표현하였다. 전시장 정면의 강한 불기둥이 인상적인 한국화가 유미옥의 '혼불'은 방대한 소설의 질곡한 삶과 혼을 거대한 불기둥으로 표현하였고 불길 속에 꿋꿋하게 앉아 있는 '새'를 상징적으로 의인화함으로써 처절한 삶의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묘사하였다.

서양화가 김철규, 최희경씨의 작품들 또한 혼불에 녹아있는 정(情)과 한(恨)의 정서들을 작가 특유의 사유와 감성으로 풀어 놓았다. 종갓집 며느리의 장례식을 묘사한 소설 내용에 따라 직접 수의를 제작한 박순자씨의 수의와 갤러리 중앙 정원에 설치 된 최영문씨의 도예 작품 또한 인상적이었다. 이처럼 몇 번이고 '혼불'을 다시 읽은 작가들은 때로는 세밀하고 때로는 대범하게 '혼불'의 이미지를 펼쳐놓았고 자신의 작품을 소설의 내용에 충실하면서 제작하였다. 회화, 사진, 공예 등의 다양한 형식 속에서 작가들의 양식과 개성을 잃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었음은 갤러리의 치밀한 기획력과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주제전이라는 타이틀만 내놓고 작품에 '주제를 갖다 맞추는 식' '제목만 바꾸는 식'의 안일한 전시 행태들에 모범이 될 만한 전시였음을 자명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나고 자란 토양과 풍광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문화의 뿌리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것은 이런 이유로 너무나 중요하다.

'혼불'展은 여러 신문사의 보도와 JTV의 '이홍재의 문화읽기'와 KBS의 '낭독의 발견', YTN의 뉴스 등을 통하여 방영이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여러 신문지상과 방송들이 이 전시를 기사화 하고 특집화 한 것은 최명희 선생님에 대한 재조명, 문학과 미술의 만남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그 지역의 문화를 아끼고 지키려는 노력의 의지를 높게 평가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작가들의 작품이 감동을 주어 잠시나마 우리의 문화와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컸다는 생각을 해본다.

(부록)

'소설 '혼불'을 읽기에 도움을 주는 참고 문헌과 내용들의 요약 발췌본'

소설 「혼불」은 전라도 남원땅 양반가문의 몰락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내용은 무너져가는 종가를 지키는 며느리 대와 잡초같은 삶을 이어가는 보통사람들의 얘기로 이어진다. 일제라는 시대적 배경과 독립운동과 같은 숨가쁜 역사도 담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은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그 문장이 우리말 고유의 리듬과 울림을 고스란히 살리고 있다는 데 있다. 소리 내어 읽으면 그대로 판소리가 되었다.

유미옥-혼불



실제로 작가는 원고지 한 칸을 메울 때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소리 내어 읽어 나갔다고 한다. 눈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율을 타고 가슴에 척 안겨드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소설의 배경인 남원 땅은 산천초목도 떠는 듯한 호령조의 동편제의 산실이었으니까 꿋꿋했던 조상들의 정신을 담기에는 제격이었다.

또 하나는 당시의 세시풍속 관혼상제 음식 노래 등을 담아 남원 거멍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를테면 관례를 시켜주는 장면에서 나오는 옷은 「연두결마기다홍겹치마연두폭대무자기여덟폭 겉풍무지기 모시분홍속적삼」 등 수 없이 많다. 班家(반가)의 혼수세간들 역시 다양하다. 주철삼층장 의걸이장 반닫이장의 모습을 재현했다. 정월대보름날의 달맞이나 상가의 풍속 상여 나가는 모습은 민속조사보고서처럼 치밀했다. 사찰의 사천왕상을 취재한 원고지만도 백쪽에 달했으니까 혼불은 한낱 소설만은 아니었다. 『남녀가 만나 옷고름 한번 제대로 푸는 일이 없다』고 할 만큼 말초적 재미라곤 전혀 없는 이 소설이 지금까지 여만부가 팔려나간 것은 년대 한국문학이 거둔 가장 큰 성과였다.

소설들이 기교만을 앞세운 언어를 찾아서 혼란을 부추길 때 작가는 그 앞에서 「모국어정신」으로 버틴 것도 잊을 수가 없다.

『시인은 끝끝내 언어를 통해서만 자신을 완결하는 사람』 「백석전집」 이동순이라고 했지만 작가에게서 언어란 민족의 순수 그것이었다. 그 고유어를 찾아서 중국 옌볜과 선양을 두달 넘게 두루 찾아다녔다. 순수한 우리말을 찾아서 작품으로 되살린 것이다. 지난해 월 문화계와 정-재계인사 백명이 모여 「혼불을 사랑하는 모임」을 가진 적이 있다. 작가의 고독한 창작작업을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작품읽기를 널리 펼치자는 취지였다. 위대한 작가와 예술활동은 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와 동시대인들의 관심과 격려를 통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혼불」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혼불이란 우리 몸안에 있는 불덩어리라고 했다. 사람이 제수명을 다하고 죽을 때 미리 그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혼불은 목숨의 불 정신의 불이었다. 그러니까 존재의 핵이 되는 불꽃이다. 혼불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재생시켰고 풍속사를 정리해줬다. 무대는 1930년대부터 43년까지였다. 그 이후의 현대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작가는 「완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소설은 한 시대를 증언하는 역사책이다. 양반들의 허위를 고발한 박지원의 「호질」이나 신분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허균의 「홍길동전」은 곧 그 시대의 역사였다.

홍명희의 「임꺽정」은 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그렇다. 잃어버린 역사와 말을 복원하는 데는 한 시대를 닮은 소설이 제격이다. 「혼불」은 훌륭한 역사자료이다. 현지에서 조사한 우리말 사전이다. 그 속에 담긴 민속을 모아 풍속사를 만들 수 있고 천민들이 사용하던 말을 찾아 문학사전을 만들 수도 있다. 또 외국어로 번역해서 「혼불」이 세계 속에서 타오르게 하는 사업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가 최명희의 뜻이 계속 이어져서 민족혼을 찾아야 할 때다.



김영란-꽃심의 땅

「혼불」의 말과 역사를 찾아서신찬균 논설고문文化칼럼세계일보 1998년 12월 14일

「혼불」에 온 생명 다바친 문단의 진정한 장인

- 1972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1972 1981 전주기전여고,서울보성여고 국어교사
- 1980 중앙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쓰러지는 빛」)
- 1981 동아일보 창간기념 장편소설공모당선(「혼불」제1부)
- 1988 1995 월간 [신동아]에 [혼불] 제2부에서 제5부 연재
- 1996 [혼불] 제1~5부 (전10권) 출간
- 중앙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단편 「쓰러지는 빛」 당선 (1980)
-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공모 소설 「혼불(제1부)」 당선(1081.5)
- 도서출판 한길사 제정 제11회 단재상 문학부문 수상 (1997.7)
- 제16회 세종문화상 문화부문 수상 (1997.10)
- 98여성동아 대상 수상(1998.1)

그는 여느 작가들처럼 몇몇 문예지에 단편소설을 발표하고, 그리고 장편소설 하나쯤 써 작품집을 내고, 이어 발표했던 단편들을 모아 창작집을 내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신춘문예 당선 후 곧바로 소설 「혼불」 집필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듬해 1부를 완성해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2천만원 고료 장편소설 공모에 응모, 당선된다. 「혼불」을 쓴 이유에 대해 작가는 '근원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전에 말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윗대로 이어지는 분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캐고 싶었다는 것.

그는 1988년부터 월간 신동아에 「혼불」2부 연재에 들어간다. '거짓이 아닌 글을 쓰게 하소서'라는 기원과 함께 매일 밤 12시에 만년필을 잡고 원고지 칸을 메워나갔다. '모국어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신념으로 소설 차원을 넘어 '우리 풍속사를 담아낸 박물관' '아름다운 우리말의 보고'라는 평가를 얻은 이 작품은 1995년 10월까지 만 7년 2개월간 5부까지 집필하며 국내 월간지 사상 최장기 연재기록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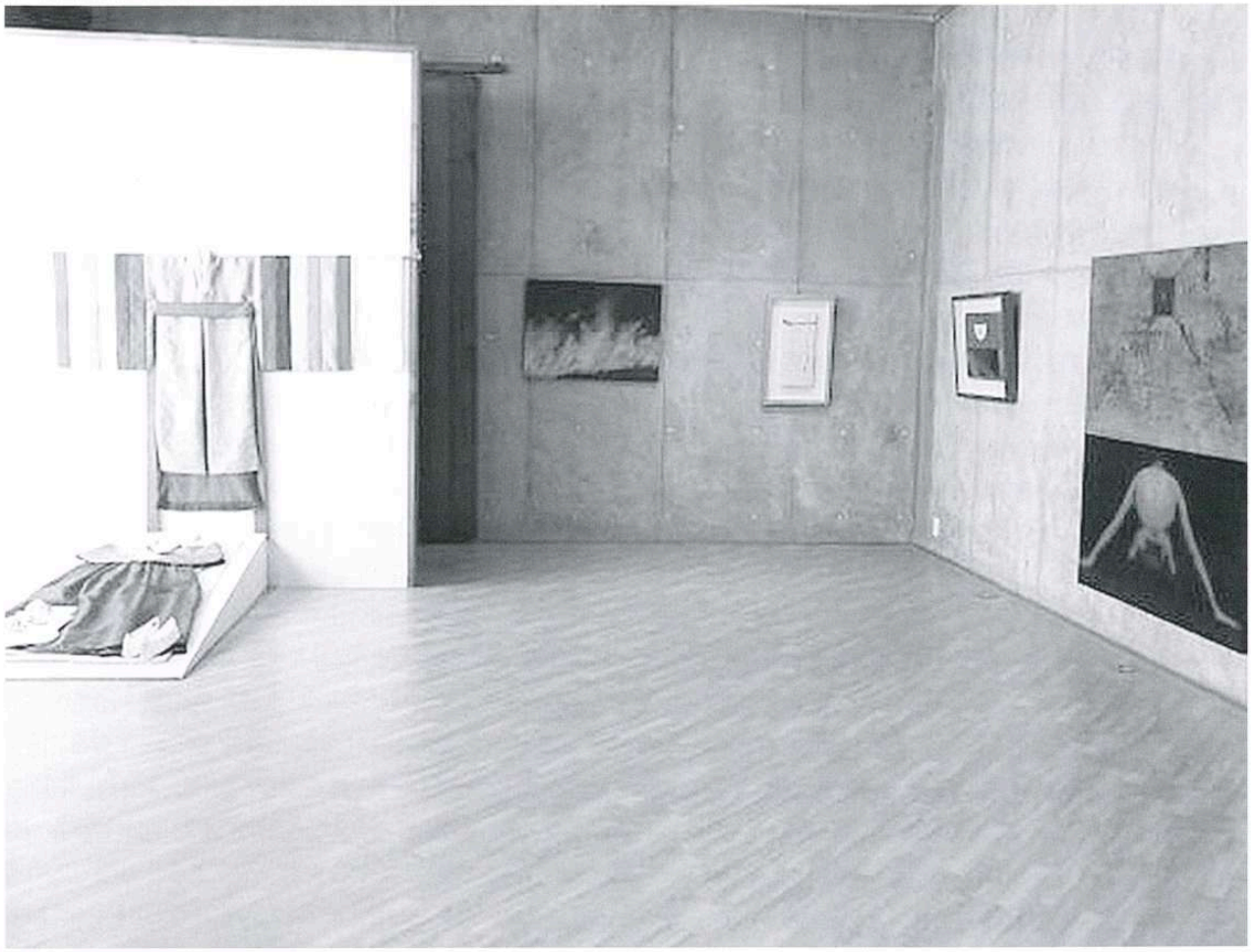
1983년 첫권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1996년 12월까지 전 10권이 한길사에서 완간된 「혼불」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작가는 이 작품에 매달려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며 고통스런 집필의 대가로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다.

5부를 집필하던 1996년 8월경 이미 암이 발생했고, 무리해가며 원고를 완성한 결과 아이만 살고 산모는 죽는 결과를 낳았다.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만 17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그의 모습은 주위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1997년 7월 당시 국무총리였던 고건 서울시장을 비롯 강원룡 크리스천아카데미원장 등 정치 경제 학계 언론계 등 인사 70여명이 '작가 최명희와 혼불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 그의 투병의지를 북돋우기도 했다. 그가 집필에 매달렸던 서울 청담동 성보아파트는 '성보암'이라 불렸고, 그 성보암에서 그는 도를 닦는 주지스님이었다. 마지막 탈고 4개월 동안은 자리에 제대로 눕지도 않았다. 그는 결국 1998년 12월11일 쉰 한 살의 나이로 이승에서 삶에 마침표를 찍었다.

1930년대 남원 매안 이씨 집안의 삼대 종부(宗婦)가 커다란 축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있었다. 청상의 몸으로, 다 기울어져 가는 이씨 집안을 힘겹게 일으켜 세운 청암부인 그리고 허약하고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는 종손 강모를 낳은 율촌댁, 그리고 그 종손과 결혼한 효원이 그네였다. 이들이 전통사회의 양반가로서 부덕을 지켜내는 보루로 서 있다면 그 반대편엔 치열하게 생을 부지하는 하층민의 '거멍굴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양반계층을 향해 서슴없이 대거리하는 옹골네와 춘복이, 당골네인 백단이가 강력한 자장으로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이런 갈등의 그물은 우선 효원과 혼례를 치른 강모와 사촌 여동생인 강실이 사이의 근친상간에서 시작된다. 애틋하게 바라만 보아오던 두 사람이 마침내 건너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어섬으로서 제각기 가파른 벼랑으로 내몰린다. 우유부단한 강모는 그를 따라나선 술집 기생 오유끼와 함께 머나먼 만주 봉천땅으로 도피를 해버리고, 강실이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홀로 삭이며 닥쳐오는 암운 앞에 무방비로 놓인다.

한편 상피에 대한 소문이 거멍굴로 전해지자 자기 자식만은 자신과 같은 운명에 놓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 춘복이가 양반댁 강실아씨를 탐내기 시작하고, 춘복이와 몰래 동거를 하고 있던 과수댁 옹구네도 양반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춘복이를 잃고 싶지 않은 집착에서 모종의 음모를 꾸미게 된다. 그 음모란 상피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서 강실이를 내치게끔 하고 그때를 노려 춘복이가 강실이를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박순자-수의

차츰 은밀히 웅구네가 퍼뜨린 소문은 그물처럼 강실이와 효원을 죄어들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춘복이는 강실이를 겁간해 임신을 시키게 된다. 이후 이런 모든 정황을 알게 된 효원은 애증이 교차된 마음으로 강실이를 피접시키려고 하나 그만 웅구네가 중간에서 강실이를 납치함으로서 상황은 예기치 않은 국면으로 치닫는다. 여기에 이씨 문중의 노비인 침모 우례에게 상전의 피가 흐르는 아들 봉출이가 번득이는 비수처럼 성장해 가고, 청암부인의 묘에 투장을 했다가 덕석말이를 당한 당골네의 원한도 무서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계급적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을 타파하려는 강모의 사촌형들, 강호와 강태도 강력한 전운을 드리우며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이런 갈등의 씨줄과 날줄이 촘촘히 짜여서 이제 생생하게 날뛰는 인간군상들을 막 건져 올릴 찰나에 허망하게도 소설은 끝이 아닌 끝이 나버렸다.

이야기 사이사이 마다, 아니 이야기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저자는 당시 시대의 풍속사를 깨알같이 묘사하고 있었다. 첫 장면인 혼례의식을 비롯해서 연(鳶) 이야기며 청암부인의 장례절차 그리고 유자광이나 조광조, '새로 쓰는 백제사'의 이야기도 돋보였다. 여기에 조왕신의 습속이나 복식에 대한 묘사, 윷점이야기 같은 내방의 섬세한 면면들도 감탄 속에 눈길을 끌었고 봉천땅의 구체적인 지리묘사라든지 사천왕의 긴 이야기도 사물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는 대목이었다. 도대체 이런 기술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료와 공부를 필요로 했을까 책을 읽는 내내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그리고 그런 정성이야 말로 말로 바로 '혼불'을 만들어낸 근원이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된다.

모종의 틀을 덧씌우거나 그런 틀거리에 맞추어 작품의 의미를 잘라내는 순간 『혼불』은 이미 혼불이 아니다. 작위적인 분석법으로써 이를 대하지 말고, 그 언어의 세계가 운행(運行)하는 길〔道〕이 닿는 데 우리의 지각을 내맡겨 이를 이해하려고 해야만, 이 작품의 진면목을 깨칠 수 있게 된다. 이때면 서사적 실재가 있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텐데, 이를테면 사건 중심으로 소설을 읽는 태도나, 굳이 주동 인물의 의식이 변화하는 추이에 초점을 맞추어 읽거나 주요한 서사 구성 요소들만을 추려 읽는 독법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사건의 전개보다, 인물의 행위나 의식 같은 전경(前景)보다, 그 밑그림이 되는 배경이 더 주요한 이해 문면으로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혹은 굵직한 이야기 줄거리보다 세공된 언어의 세부들이 더 큰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우리는 『혼불』을 통해, 몸의 느낌에 맞게 조율된 문장의 리듬감이나, 우리네 이야기 방식에 걸맞게 구현된 서사나, 삶의 미세한 부분마저 놓치지 않은 담론 등이 한데 어우러진 마당에 참여하게 된다. 때로 우리는, 극채색의 이미지를 구사하여 생생한 감각을 전하면서 우리의 느낌에 파고들어 사무치기라도 할 듯한 언어의 주술에 은연중 휘말려들 것만 같다. 그것은 아마도 굿판에서 구구절절 터져나오는 넋두리의 정조에 휩싸여 어우러지거나, 판소리의 마당에 함께 하며 소리에 사로잡히는 것과도 비슷한 체험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열규 교수가 "한국인은 삶의 크고 작은 토막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라고 했다"고 운을 떼고서 "전통적 이야기, 곧 전통적 서사가 오늘의 역사를 만나서 이룩한 최절정이 곧 『혼불』"이라고 고평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당당히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얻어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의외로 대단한 문화적 사건인 것이다. 다만 그 가치 있는 이야기를 이제 더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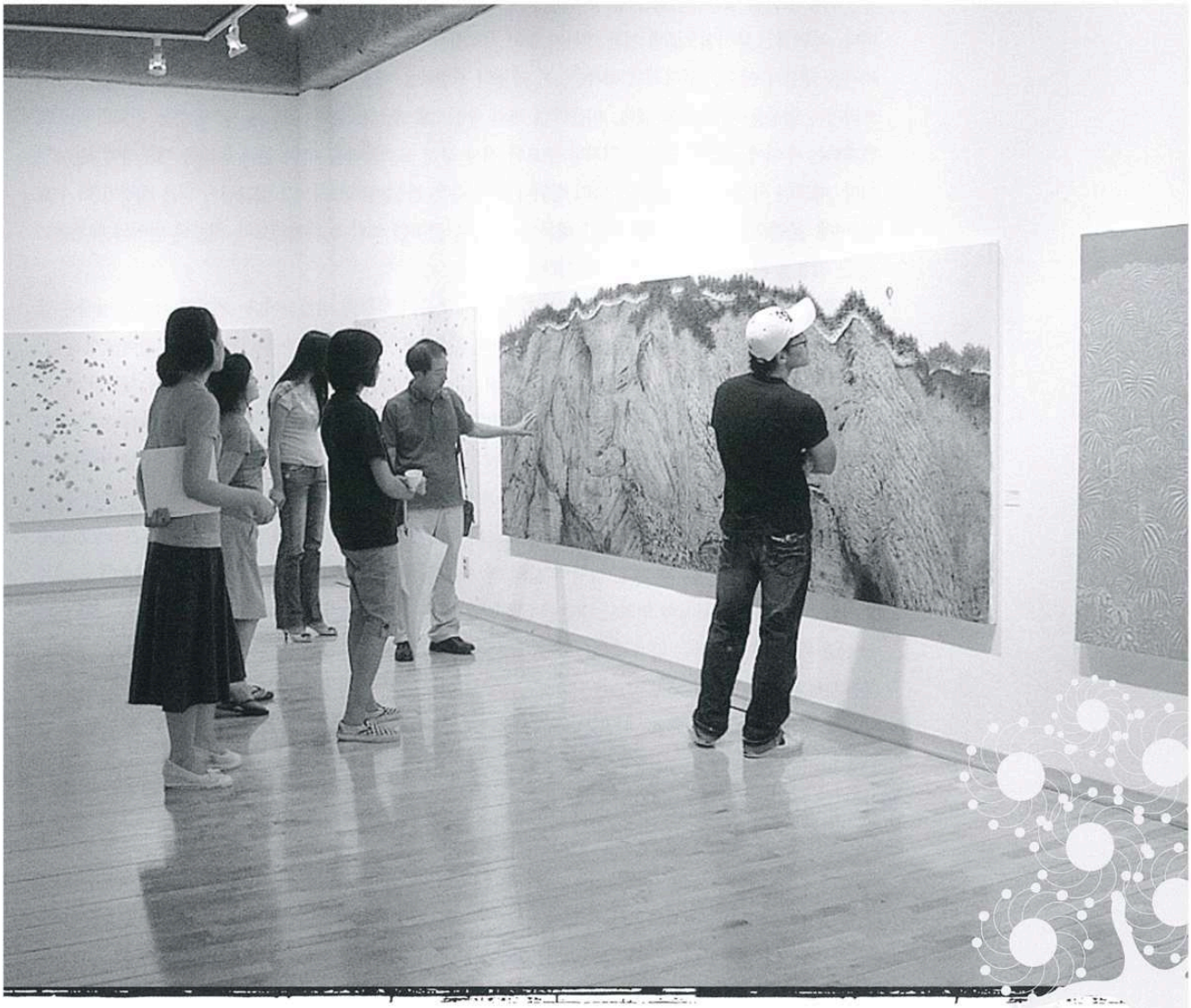
계간 문학동네 1999년 봄/제6권 제1호/통권18호,

「교감의 서사, 우리 이야기 "혼불"」, 장일구

사매면 : 남원시의 북서부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은 32.39㎢, 인구는 2,694명(1995년 현재)이며 면 소재지는 오신리이다. 백제의 고룡군에 속하였으나 그 뒤 매안방(梅岸坊)이 되었다가 1914년 남원도호부가 폐지되면서 사동(巳洞),매안(梅岸) 2방이 합하여 사매면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형은 화강암이 심층풍화되어 북쪽으로 열린 분지이며, 동서남북은 높이 300-400m의 산지로 둘러 쌓여 있다. 산업은 주곡농업외에 양잠업, 축산업과 잎담배가 성하다. 교통은 전라선 철도와 전주-남원간의 국도가 통과한다. 유적으로는 조선 숙종대에 사액을 받았던 노봉서원(露峯書院)과 매계서원, 오리정(五里亭)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다. 오신(梧新), 서도(書道), 계수(桂樹), 인화(仁化), 화정(花亭), 대율(大栗), 월평(月坪), 관풍(官豊), 대신(大新)등 9개 동리가 있다.

〈남원지방 민간신앙연구, 오종근, 도서풀판鄭,1997〉 〈www.namwon21.com〉

자세한 내용은 〈http://www.namwon.go.kr/dongpage/same/index.htm〉



엄 기 석(회원)

新山水風景

21세기 산수화는 반복되지 않는다

2007.8.23 – 9.4 (우진문화공간)

신산수풍경 참여 작가들의 서문을 보면 새로운 조형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풍경과 산수는 수세기동안 예술가들이 즐겨 사용해온 거대한 주제이자 소재이다. 풍경(인간의 지배를 받는 자연)과 산수(야생의 자연)는 모두 자연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수는 풍경에 속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삶의 근원이자 터전으로서 의미를 지닌 만큼 예술적으로 표현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담고 있는 예술이 동양의 자연주의 사상에 태생을 준 산수화와 서양의 합리적인 우주관에 근거하고 있는 풍경화이다.

산수화와 풍경화는 자연에 대한 각기 다른 사상을 적절한 매체로 화폭에 담아내면서 한때 회화의 주류를 이루며 발전해왔다.' (중략)

'동양에서 산과 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산과 물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생성원리인 음과 양의 상징이다. 만물은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생겨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감지하고 동참하려는 의식구조로부터 출발한 전통 산수화는 자연의 정지된 외관이 아닌 생동하는 자연의 원초적기운의 특성을 화면에 담고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겐 높이 솟은 산보다는 빌딩이, 지형의 곳곳에 흐르는 물길 대신 도로가, 산새의 신비함을 더해주는 안개보다는 도시의 하늘에 낀 스모그가 더 친근한 듯하다. 오히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이제 야산은 매우 낯설고 위험한 곳으로까지 여겨지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수(순수한 야생의 자연)보다 풍경(야생의 자연을 포함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 자연)이 그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화의 정신성을 담보로 도시적 삶에서 자연의 보편적인 기운을 생리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다시 다양한 풍경 속으로 대입을 감행하는 것은 산수화의 새로운 지평을 요구 할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어떤 풍경이든 산과 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고려해 볼 때 산수풍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이다.(중략)

이 전시에 참가한 작가들은 김범석, 김봄, 김윤희, 박능생, 박병춘, 박영길, 이용석, 이현열, 임 택, 조용식, 한경희, 홍주희 등이다. 이 작가들이 보여주는 신산수풍경전은 확실히 전시대의 산수화보다 실험적이며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산수풍경은 현시대의 자연과 도시, 수묵과 채색을 한 화면에 혼용하는 한편, 사진, 평면, 입체까지 표현영역을 확장하면서 기존 산수화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그 개념을 변형하고 확장시키려는 강한 조형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회화에서 전통적인 산수화를 어떻게 해석하며 그 정신성의 현대적 해석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전통산수화에서 말하는 전통 '정신'이란 과연 무엇이며 현대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어떤 맥락에서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계승되어야 하는지 수많은 미학적, 철학적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현대와 전통은 반드시 분리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에 따른 표현방법과 재료도 구분되어야 하는 가 등이다.

작가들의 치열한 내면의 인문정신과 새로운 감수성, 그리고 수많은 화면의 붓질 속에 자신을 내던지는 작업 혼을 통해서 새로운 산수풍경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 전시를 바라보는 감상자들은 전통민화와 현대적민화, 현대적산수와 전통산수화, 혹은 현대적 문인화와 전통문인화의 간격과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였다.

앞으로 계속되는 작품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그리고 한국성이 강하게 드러나면서도 국제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신산수 풍경전을 기대해본다.





상하이 아트페어를 보고...

고 형 숙(회원)

정신없는 일상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상의 탈출은 삶의 큰 활력을 준다. 9월 말경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에게 왔다. 서신갤러리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서신갤러리 연중 기획 전시인 '젊은 시각전'에 선정 되었던 작가들과 '두께를 위한 연습전'에 초대되었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항공료 및 숙박비 등 주된 비용을 지원해서 상하이 아트 페어 참관단을 마련했고, 2004년에 젊은 시각전에 참여한 나에게 상하이 아트페어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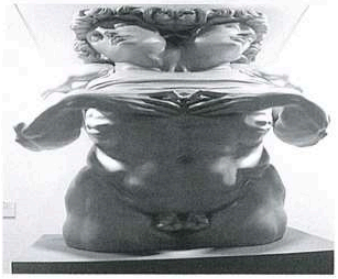
이 참관단의 주된 취지는 서신갤러리의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고 젊은 작가들의 국제 아트 페어를 통한 시각의 확장과 창작의 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번 참관단의 구성 멤버는 양순실, 서희화, 김중수, 고형숙, 조헌, 이일순, 윤철규, 김성민, 윤길현, 김용수 작가와 서신갤러리 박혜경 관장님, 큐레이터 양정은씨 였다.

11월 16일 아침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상해에 2시경에 도착했다. 올해 초에 친구들과 상해, 항주, 소주, 남경을 기차를 타고 여행한 경험이 있는 터라 상해의 풍경은 낯설지 않고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거대한 건물들과 끝도 없이 펼쳐지는 넓은 대지는 비행기 안에서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었고, 북경에서 유학중인 친구인 탁소연 씨가 상해로 와주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기쁨이 피곤한 기분을 달래주었다.

2박 3일의 주된 일정은 상해 아트 페어 관람과 무간상루(莫干山路) 예술가촌 관람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상하이 국제 아트 페어는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 국제 아트 페어(KIAF) 그리고 베이징 국제아트페어와 함께 동아시아 3대 국제아트페어로

꼽힌다. 상해 아트 페어는 국제적인 아트 페어로써 중국작가와 우리나라 작가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브라질 등 11개국의 140개 화랑이 참여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 페어다.

전시는 1층, 3층, 4층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공간을 부스로 나누어서 많은 작품이 설치되었고, 다양한 작품들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공간도 넓고 작품이 많은 관계로 둘러보는데 반나절 이상은 족히 걸린다. 이번 상해 아트 페어에서는 전반적으로 평면 작업이 주로 전시되었고, 현란한 색채의 작품들과 실험적인 작품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관람객의 수도 예상보다 많아서 작가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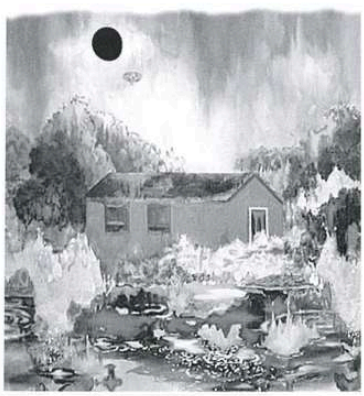
무간산루는 상하이의 현대미술 갤러리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으로 갤러리와 작가 스튜디오가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다. 무간산루는 1930년대의 방직공장을 개조한 예술단지로써, 빈 공장들에 신진 작가들이 스튜디오를 하나둘 열면서 다양한 갤러리들이 자리하게 되어 형성된 지역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은 지난 겨울 여행 중에 방문한 북경 다산즈(大山子) 798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도 오래된 공장터에 젊은 작가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되어 지금은 우리나라 갤러리 뿐 아니라 외국의 갤러리들도 많이 들어서 있다. 무간상루도 북경의 798지역과 비슷한 예술촌으로 현재 우리나라 갤러리들도 진출해 있고, 홍콩,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예술가들도 갤러리와 스튜디오를 꾸미고 있다.



여행 중 무간상루에 자리하고 있는 스콜라 갤러리에서 학교 후배이면서 한국화 작가인 박성수 씨가 개인전을 하는 관계로 그 지역을 우연치 않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번 여행에서의 의외의 수확이었다. 무간상루는 기본의 공장의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갤러리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랜 건물의 옛스러움과 화려한 색채의 현대미술의 미묘한 조화는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마다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갤러리들이 모여 있고 독특한 색깔의 회화 설치미술 공예 등의 작품이 가득하다. 북경 따산즈의 798지역보다 규모는 작지만 좀 더 세련된 모습이었고, 예술단지 입구에는 예술서점과 카페도 있어서 쉬어가며 관람하기 좋은 형태였다. 중간 중간 작가들의 스튜디오도 함께 있어 작가들이 작업하는 모습도 훔쳐 볼 수 있는 묘미가 있다. 무엇보다 부러웠던 점은 갤러리와 작가 스튜디오가 함께 하는 모습이었다.

상하이에서의 2박3일의 일정은 바쁜 일상에서의 짧은 휴가를 즐기는 기분과 더불어 작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 현대 미술의 흐름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상하이 아트 페어의 참관단에 지역의 작가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좋은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고 했던가? 하지만 좋은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다. 무엇보다 젊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신갤러리 박혜경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쉬지 않는 손, 머물지 않는 정신』展

김 서 영(회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에 위치한 소마미술관은 개관 3주년을 맞이하여.
2007년 10월 18일부터 2008.1.6까지 박한진, 이건용, 김주호 세 분의 작가를
『쉬지 않는 손, 머물지 않는 정신』展이란 주제로 작가의 작업실을 그대로 재연하며 현장에서 창작의 순간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어렵다고 생각되는 현대미술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현대미술의 제작과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한다.

'행복한 미술관'

'행복한 미술관'을 모토로 한다는 소마 미술관, 공원 산책을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동네 미술관이라고 하기엔 규모와 전시성격이 흥미로왔고 자연속에 미술관이여서 공간의 아름다움마져 느껴졌다.
만물이 익어가는 가을의 향취와 어울리는 노련한 예술의 세계를 선보이는 박한진, 이건용, 김주호 작가는 오랜 동안 작품 활동을 통해 예술혼과 열정으로 쉬지 않고 수십 년간 작품제작을 해온 과정을 읽을 수 있었다.

박한진 선생님은 이천에서, 이건용 선생님은 군산에서, 김주호 선생님은 강화도에서 각각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며, 작업실에서 볼 수 있는 밑그림과 작업도구들, 작가의 철학적인 자양분이 되어준 많은 책들, 애장품, 취미를 알 수 있는 기호품까지 이 모두 작품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부분들이였으며, 이들의 작업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 '이건용의 미술세계

작가에게 있어 세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건용은 학창시절 노장사상, 선사상과 같은 동양철학과 현상학, 분석철학과 같은 서양철학을 접하면서 그의 개념적 작업의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지식은 인생과 사물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인식), 인생과 사물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표현, 전달)라는 고민에 봉착했던 그에게 단비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세계의 구조와 삶의 의미에 대한 논리적 탐구를 시작한다.

이건용의 작업 초기인 70년대의 작업은 비트갠슈타인의 분석철학에 의거한 철저히 자신의 개념적 논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매체를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신체항〉, 〈장소의 논리〉와 〈달팽이걸음〉과 같은 로지컬 이벤트, 〈신체드로잉〉 등이 있다. 이 시기 그의 주요 논리는 "작가에게는 신체가 있고 신체에는 사물(세계)에 접근하려는 행위가 있듯이 세계에는 장소라는 것이 있고, 장소는 신체가 세계와 맞닿는 지점으로서 양자가 관계를 맺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그리고 "세계가 장소와 신체를 통해서 파악될 때 가장 구체적이며 그 이외에는 세계를 개념적 추상과 같은 허구에 의해서 잘못 파악하는 결과가 되든가 그것의 허상(일루젼)을 이해하는 데에 그칠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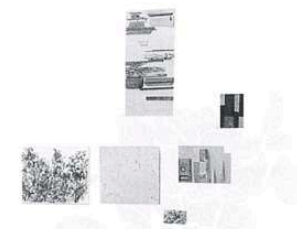
이후 80년대의 작업에서 신체는 자연물과 같은 오브제로 대체되는데 〈무제〉 연작이 그러하다. 이는 80년대 철저한 비판 금지와 사상 통제 속에서 작가가 나설 곳이 사라진 이유도 있겠고, 한국적 개념미술의 특징으로서 '자연'과 끊으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인 이유도 있겠다. 그 시기에 이건용은 창작활동에 있어서의 의식적 단절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예술을 개념적 논리만으로 묶어두는데 현실적 한계를 느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논리적 개념으로 완결됨을 추구하는 작업 대신 80년대 후반부터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포괄하는 주제들을 예술적 소통과 소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풀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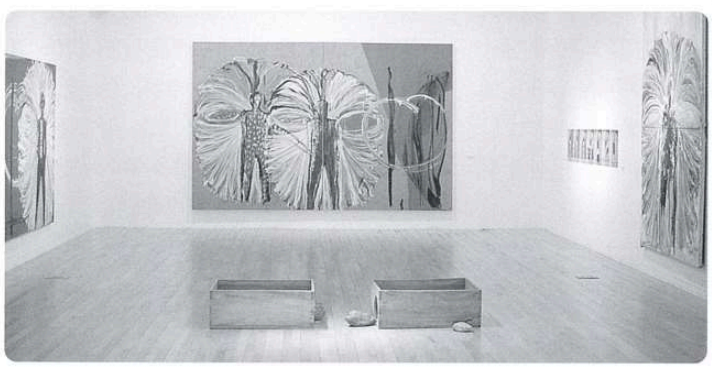
〈물로부터〉, 〈독 속의 문화〉, 〈망각의 물〉, 〈예술의 소멸〉과 같은 작업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여느 개념미술가들처럼 작업 초기에는 회화에 대해 회의적 사고에 젖어 있던 그는 이 과정에서 회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시각예술의 영원한 장르인 회화 또한 작가의 신체 행위와 세상이 만나 형성되는 것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회화의 오랜 역사와 효용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건용은 그동안의 작업들을 바탕으로 입체, 드로잉, 이벤트를 다양하게 혼용하여 설치, 퍼포먼스로 확장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회화 작품을 통해 일상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소통하고자 한다. 때론 '신체항', '로지컬 이벤트', '신체드로잉', '독 속의 문화'와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기도 한다.

이때, 이건용이란 인물의 신체(또는 이를 대체한 오브제)가 동일한 매개물로 사용되지만 새로운 상황과 환경(장소)에 의해 새로운 결과가 창출된다. 그의 작업이 오랜 세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매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삶과 예술의 관계항 中.....

정 나 영 (SOMA 큐레이터)









마티스, Blue Nude IV, 1952, Gouache on paper cut out, Musee Henri Matisse, Nice, France.

여행 중에 생겼던 조그만 에피소드, 그리고 니스의 미술관들....

고 기 현(회원)

지난여름, 난 두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23일 일정으로 유럽 배낭 여행길에 올랐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시기와 맞물려서 내 작업의지도 강해졌었기에 근래에 변변한 대화한번 못 나눈 터였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유럽여행이었다. 가족단합이 여행목적이었기에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패키지여행상품은 사양하고 나름대로 여행루트와 일정을 짜보았다. 23일 동안 5개국을 거치는 다소 빠듯한 여행일정은 우리가족에게 많은 에피소드와 추억거리를 만들어준 값진 여행이었다.

북경의 화랑가[1]를 돌다가 골목을 잘못 들어서서 발견한 화가의 작업실. 그곳은 200~300평 규모의 공장창고였고 넓은 작업공간에는 아무런 시설(에어컨, 티비, 쇼파 등) 없이 단지 창고가운데 조그만 둥근 탁자만 덩그러니 놓여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의 두 눈에 꽉 차 들어오는 거대한 대형 인물작품들에 매료되어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상의를 벗은 빡빡머리의 남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쳐 나왔던 순간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폭염의 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펼치는 그들의 작업에 대한 의지는 가히 본받을만한 것이었다.

각설하고 전북회화지에 유럽미술관 여행기를 올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난 무척이나 망설였다. 글 솜씨도 없거니와 우리의 유럽여행은 미술관 중심의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의 여러 도시는 어디를 가도 수많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고 특히 파리와 같은 도시는 그 전체가 하나의 미술품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숙소나 무인락커에 짐을 맡겨 놓은 채 거의 모든 도시를 걸어 다녀야 했던[2] 우리의 무리한 여행일정은 루브르와 같은 대형박물관을 돌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었고 유럽 어디를 가나 산재 해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도는 일이 둘째인 아들놈에게는 엄마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 같아 보였는지 내내 불만스런 표정이었다.

1) 북경의 화랑 가는 오래된 낡은 공장 지대를 예술가들의 감각으로 재탄생된 화랑 밀집 지역이었다. 미로와 같이 연결된 화랑 가는 구석구석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에어컨도 없는 폭염 속에서 그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고 거대한 작품들 속에서 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2) 영어실력의 부족으로 몇 번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했었던 터라 차라리 걸어 다니는 것이 속편했다. 그리고 유럽의 도시들은 작아서 걸어 다니다보면 어느덧 그 곳의 관광명소들을 다 둘러보게 된다. 각 도시마다 다르게 풍겨오는 거리의 인상들과 경험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유럽여행은 처음이고 사전 준비를 한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여러 나라를 돌겠다는 빠듯한 일정으로 길 찾기에 온 힘을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니 아이들 심정도 이해할만 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각보다 많은 미술관을 탐방하지 못했고 미술관에서 찍은 전문성 있는 사진자료도 별로 없었던 나에게 '유럽미술관 여행기' 제의는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생각 끝에 남프랑스에 위치한 해안도시 '니스'에 대해서 쓰기로 하였다. 휴양지로 알려진 니스에서의 바닷가 추억은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줄 수 있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해안가에 몰려있던 탓에 시내 곳곳에 위치한 크고 작은 미술관들은 비교적 한가로워서 여유 있게 작품을 감상 할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니스를 향하던 중 생겼던 오스트리아에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의 화두로 시작해보기로 하겠다. 우리에겐 값진 추억이고 다소 딱딱한 미술이야기를 끌어내기에 완충역할을 해 줄 것이기에...

니스 행 에피소드[3]

2007년 7월 27일 오전 8시 30분. 우리는 유럽의 첫 여행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근교인 그린징에서의 추억을 뒤로한 채 두 번째 여행지 프랑스 니스를 가기 위해 또 다시 긴장해야만 했다. 오전 10시 오스트리아에서 니스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남역(sudbahnhof) 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기위해 오전 일찍 그곳으로 갔다. 리무진 버스표는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3명분의 버스 티켓 값을 지불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잔돈이 부족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100유로 지폐를 잔돈으로 바꿀만한 곳이 없었다. 서툰 영어실력 때문에 표를 구입할 때 잔돈을 바꿔달라고 하는 간단한 회화도 쉽지 않았던 터라 간신히 안내원에게 카드로 지불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안심하고 버스 티켓을 끊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진짜 난감한 상황은 이때부터였다.

오전시간이라 공항으로 가려는 단체 손님들이 많았고 리무진 버스는 남역 정거장에 오자마자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 리무진 버스도 마찬가지였다. 기다리던 다른 외국인들도 난감해 하던 표정을 짓더니 그들끼리 다급한 표정과 언어로 몇 마디 나누고는 급하게 승합차 한대를 대절하였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 좌석 몇 자리가 비는 듯 했다. 그들도 내 표정을 읽었던지 급하게 우리에게로 다가와서는 같이 타고 가자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리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한국식이라면 서로 돈을 합쳐서 자동차 한대를 대절하는 것이니 나눠서 같이 내자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카드로 구입한 버스표는 이었지만 여전히 잔돈이 없었다. 100유로 (한국돈 13만원) 지폐만 있었으니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니스행 비행기를 타야만 했었기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봉고차에 올라탔다. 비행장 가는 내내 영어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할까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걱정뿐이었다. 공항에 거의 가까이 오자 외국인들은 잔돈을 걷기 시작했다. 난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잔돈이 없다고 하면서 100유로를 내보였다. 그들은 재빨리 몇 마디 협상을 나누고는 그 돈을 다 모아서 내게 주었다. 잔돈은 내가 갖고 운전기사와 직접 계산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 기사가 잔돈이 없으면 어떡하나하는 생각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걱정이었다. 그 사이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다. 난 100유로를 기사에게 내보였지만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 기사도 잔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두 아이까지 데리고 외국에서 이게 웬 창피인가. 하지만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 되었다. 바쁜 비행시간에 쫓기는 그들이었지만 한명도 빠짐없이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봤고 미국인인 듯한 여자가 나서서 남은 일행들에게 돈을 걷었다. 그들은 두말없이 잔돈을 걷어서 우리들 몫까지 기사에게 주었다. 난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덜기 위해서 주머니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잔돈들을 합치려고 했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미소만 남긴 채 바쁘게 제 갈 길로 사라져갔다. 아~ 여행의 묘미는 이런 게 아닌가 싶다.

니스행 경비행기 안에 몸을 싣고 두 어 시간을 날아가니 짙고 푸른 코발트색 바다가 벌써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었다.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지중해의 맑은 하늘과 공기, 그리고 푸른 바닷물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싱그러움으로 그 동안의 피로와 누적된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이미 눈 녹듯이 풀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깔깔거리며 물놀이를 하고 놀았고 나도 자갈이 깔린 해변에 앉아 온몸을 내맡기고 오렌지 빛 태양과 코발트 색 하늘, 비취색 지중해, 일광욕을 즐기는 싱싱한 젊음들을 보며 오랜만의 여유를 가져 보았다. 저녁을 먹기 위해 나왔던 메세나 광장이란 곳은 음악공연과 길거리 퍼포먼스로 도시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길거리에 동상처럼 서있는 각종 캐릭터 모형이 실제 사람이란 사실에 신기해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니스의 미술관들

다음날 아침 해변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구시가지 근처 살레아 광장(Cours Saleya)의 아침 재래시장을 만날 수 있었다. 각종 올리브 오일과 향신료들, 각종

3) 니스를 가는 과정에 생긴 일이라 편의상 니스행 에피소드라 지었다.

민속품과 동물모양의 과자들은 보는 재미를 선사했고 탐스러운 꽃과 과일들은 신선한 아침 공기와 함께 더욱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산 갓 구어 낸 바게트 빵들과 신선한 과일들로 아침식사를 풍성하게 해결하였다. 해수욕을 하루 더 하느냐, 미술관을 돌아보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술관을 둘러보자는 딸의 의견을 거들어 간신히 아들놈을 설득했다. 교과서에서 잘 나오는 샤갈과 마티스의 그림을 지척에 두고도 못보고 간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일단 숙소에서 나와 니스 역으로 가서 무인 락커에 짐을 맡기고는 시미에(Cimiez) 언덕 쪽으로 올라갔다. 해안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한적한 마을은 중세도시를 연상케 하는 크고 작은 저택들이 있었고 파스텔 빛 건물들은 올리브와 삼나무로 둘려 쌓여 그야말로 맑은 느낌을 주는 조용한 동네였다. 올라가는 언덕길가의 고급스러워 보이는 호텔들이 우리가 묵고 있는 해안 쪽 호텔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관광 시즌이라 숙소를 구하지 못하게 될까봐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예약했던 것을 후회했었다. 물론 안전하게 숙박은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숙소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한 때도 있었고 예상보다 못한 숙소시설에 약간은 실망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은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에겐 결코 권장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좋지 않았다. 동네의 골목 한쪽에 자리 잡은 샤갈(Chagall, Marc 1889~1985) 미술관은 잘못하면 지나쳐 버릴 정도로 아담하고 소박한 모습이었다. 미술관은 지중해 지방에서 자라는 전형적인 나무들인 소나무, 백리향, 올리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정원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

16세 미만은 어린이로 인정되어 아이들의 관람료는 무료였고 나 또한 국제학생증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갔던 터라(현재 석사과정중이다)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밝은 노랑색이 인상적인 태피스트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태피스트리 뒤에 위치한 메인전시실은 성서를 주제로 한 작품 12점이 걸려 있었으며 책으로만 봐왔던 낯익은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붉은 색이 주조를 이루는 '노래 중의 노래(1958-1966)' 다섯 편 연작은 성서의 인물을 주제로 하여 그린 것이었지만 에로틱한 면을 띠었으며 성서 자체 보다는 인간의 삶, 사랑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았다. 니스의 하늘과 바다. 태양과 색채에 대해 깊은 인상과 자극을 받은 나에게 샤갈의 작품들은 빛의 의미를 한번 깊이 되새겨 보게 해주는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주제로 한 작품들은 청색와 녹색이 주조색이고 그 색들 사이에 옥색이 자유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유연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니스의 조용하고 나지막한, 그리고 싱그러운 옥색의 느낌이 샤갈의 작품에서 풍겨 나오는 듯 했다. 샤갈미술관에서 시미에 언덕으로 조금 올라가면 마티스미술관이 있다기에 우린 또 걸었다. 생각보다 좀 멀었고 이제 아이들은 조금씩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진 건물외관은 푸른 하늘과 녹색의 숲과 어우러져 마티스의 그림에서와 같은 원색의 조화가 느껴졌다. 마티스는 1917년부터 195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니스에서 살며 코트다쥐르의 푸르디푸른 하늘 아래서 예술세계를 펼쳤다. 1890년대에 제작한 초기의 정물화 작품에서부터 말년의 오려내기 기법으로 제작한 대작에 이르기까지 마티스의 미술세계를 조망 할 수 있다.

마티스[Henri Matisse, 1869.12.31~1954.11.3]미술관은 여러 유파의 작품을 모두 전시한 종합 미술관과는 다르게 작가 특유의 개성이 느껴지는 미술관이기도 했다. 또한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은 마티스의 작품[4]을 접할 수가 있었다. 제 8 전시실이 인상적이었는데 '댄스' 시리즈의 드로잉 작품들은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필요한 과정을 설명하였고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시도한 다양한 작품들은 그가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니스에는 마티스, 샤갈, 피카소, 르누아르 등 유명화가들의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곳은 신으로부터 맑고 화창한 하늘과 대지와 공기를 약속 받았으며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좇아 마티스, 샤갈, 피카소, 고흐, 르누아르 등 많은 화가들이 니스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리라.

파도가 거의 일지 않는 잔잔한 지중해와 결코 강렬하게 내리쬐지 않는 니스의 축복받은 태양은 그들에게 풍부한 영감을 선사하였을 것이며 과거 그들의 작업실이 오늘날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시미에 언덕을 올라가면서 이미 많은 힘과 시간을 소진했고 파리 행 야간열차를 타야만 했기에 아쉽지만 다른 미술관들을 둘러보는 것은 포기 하였다. 니스 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20여분을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니스 항구행 버스를 탔다. 그곳의 노천카페에서 아이들은 콜라, 난 맥주 한잔으로 지친 몸을 쉬면서 두 시간 남짓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다시 구상하기 시작했다. 여행가이드 책을 보던 중 딸아이가 항구근처에 또 다른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우리는 합의하에 그 곳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왜냐하면 폐장 시장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다.

4) 68점의 유화와 오려내기 작품, 236점의 드로잉, 218점의 판화, 57점의 조각

근현대 미술관(Muse d'art moderne et d'art)은 이름과 걸맞게 외관부터가 현대적이었다. 직각의 엄격함과 정확함에 곡면이 주는 부드러움이 잘 조화된 건물이었다.

근현대 미술관은 전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현대미술관이다. 미술관 내부에는 그 날의 피로를 잊게 해 줄 정도로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현대 작가들이 표현한 미국의 추상미술, 미니멈 아트, 신리얼리즘과 팝아트들은 지금까지 봐왔던 작품들하고는 사뭇 많이 틀려서인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2층으로 올라가 시작되는 4전시실을 들어서는 순간 멀쩡한 자동차 한 대를 완전히 찌그러 뜨려 세로로 벽에 걸어 놓은 특이한 설치 작품에 아이들은 환성을 질러댔다. 폐장 시간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아무도 없는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품과 함께 느끼고 같이 호흡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샤갈, 에펠 탑의 부부 LES MARIES DE LA TOUR EIFFEL, 1938-39년, 캔버스, 유채, 148×145cm



근현대 미술관 (Muse d'art moderne et d'art), 작품 속에 들어간 듯한 착시 효 과를 느끼게 하는 현대미술

2층의 5전시실의 콜라쥬 작품들. 6전시실의 이브 클렝[5]의 작품들 3층의 엔디워홀, 스텔라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대 대표 작가들 또한 눈에 띄었지만 폐장시간이 다가오기에 대충 훑어보고는 마지막 전시실로 갔다. 그곳의 유쾌한 설치 미술들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거울에 반사된 우리의 모습이 작품에 투영 되면서 마치 내가 작품안의 인물이 된 듯한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거울작품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쪽저쪽 사방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작품들을 향해 우리는 뛰어다녔고 우리의 즐거움을 아는 듯 안내원 또한 미소를 머금은 채 폐장시간을 재촉하지 않았다. 미술관이라면 진저리를 치던 아들 녀석의 입에서 "엄마! 난 현대 미술이 좋아." 란 말이 튀어나왔고 비로소 미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아들의 말에 보람을 느꼈다. 파리행 야간 열차 시간이 40분 남짓 남았기에 우리는 니스역 앞의 '아시아 쾌찬점' 이라는 중국식 뷔페 식당을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그 곳에서 오랜만에 동양식으로 포식을 할 수 있었다.

파리로 가는 야간열차의 컴파넌트에 자리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피곤함에 금방 잠이 들었고 기차는 어느덧 야자수가 어울러져있는 칸느를 지나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 풍경은 미술관 이곳저곳에서 본 그림들과 겹쳐서 영상처럼 창밖으로 스쳐지나가고 있었다.

가족은 항상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자칫 멀어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엄마 아빠로서 혹은 아내와 남편으로서,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서, 누나로서, 동생으로서 말이다. 당연히 그곳에 존재한다는 절대적 존재감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끔은 그 소중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은 상대방에 대한 존재감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투정부리기도하고 또는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면서도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 공동의 궤적을 그리면서 우리는 달려왔기 때문이다. 함께 곤경을 겪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다 보면 가족간의 '팀웍 다지기' 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이해와 유대는 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여행에서 내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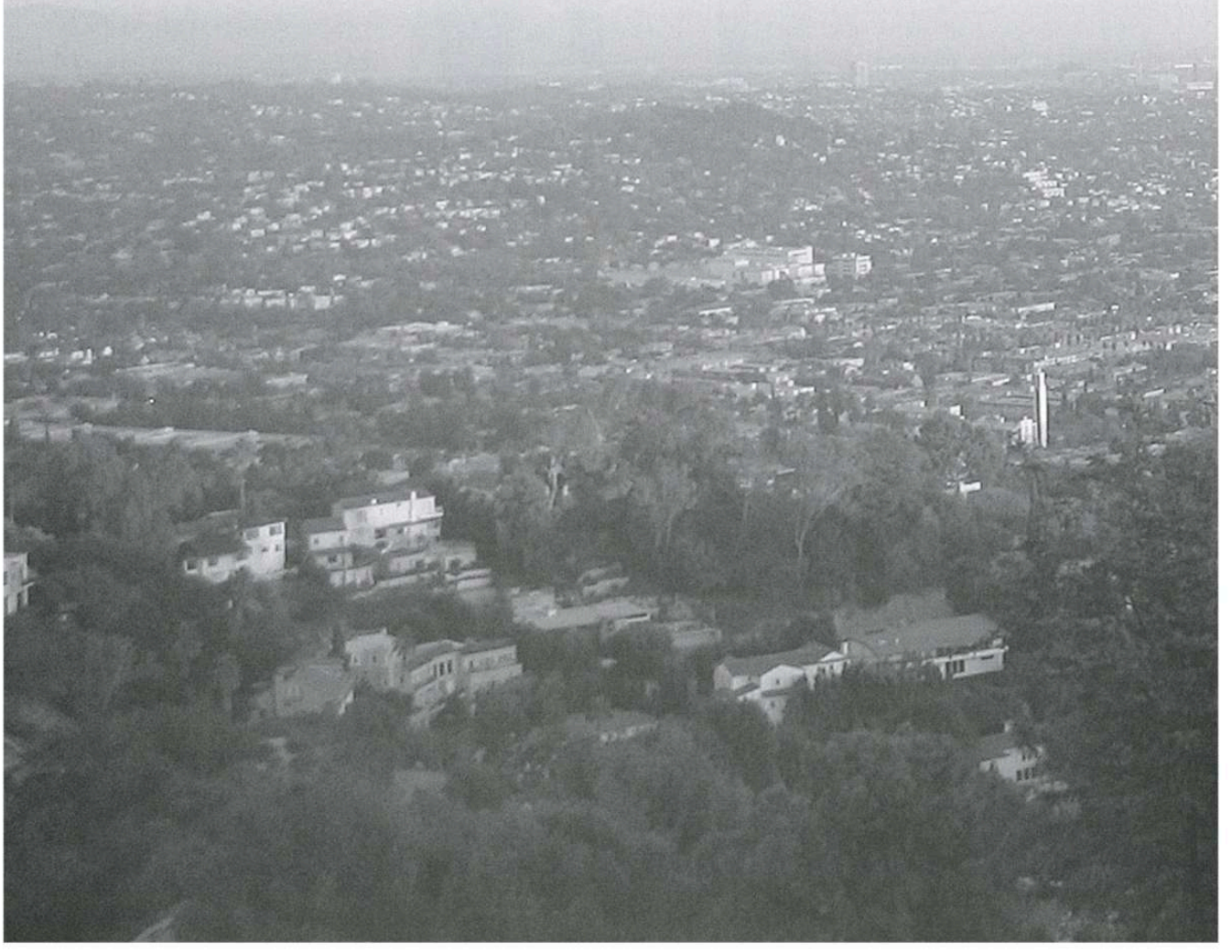
여행기를 쓰고 있던 나에게 아쉬움이 있는지 큰딸이 소리치듯 말한다.

"엄마! 다음 여행 때는 박물관 중심으로 돌아 다녀 봐요.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해서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5) 쪽빛 해안의 푸른색을 자신만의 독특한 푸른색으로 재창조한 이브 클렝 역시 니스에서 활동한 작가이다.

가을하늘을 날아서 미국으로

이 광 원(회원)





산다는 것은 꿈을 품으며 그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실력을 갖고 용기를 갖는 것은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무작정 훌쩍떠나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외로움과 싸워

승리할 것을 생각한 게 여행이었다. 미국에서 31박 32일 긴 여정은 나에게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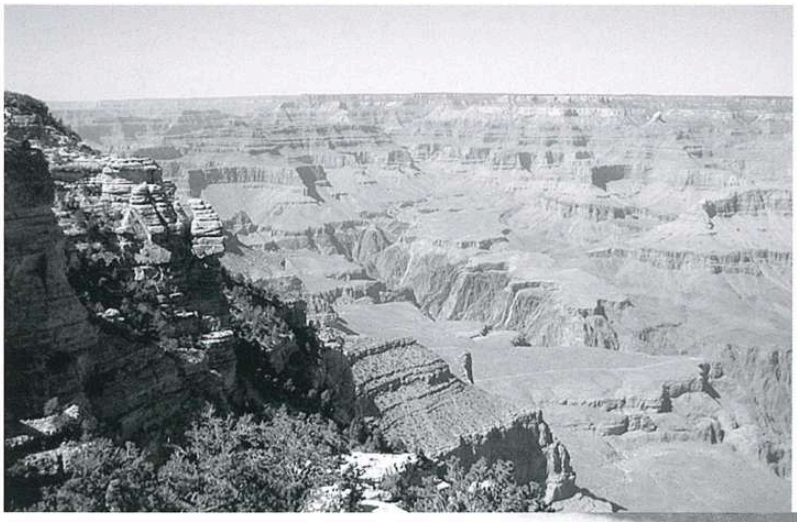
체험은 내게 진실의 의미를, 그 의미의 기준을 재조정하는 지침이 되어주었고 진실의 확신을 심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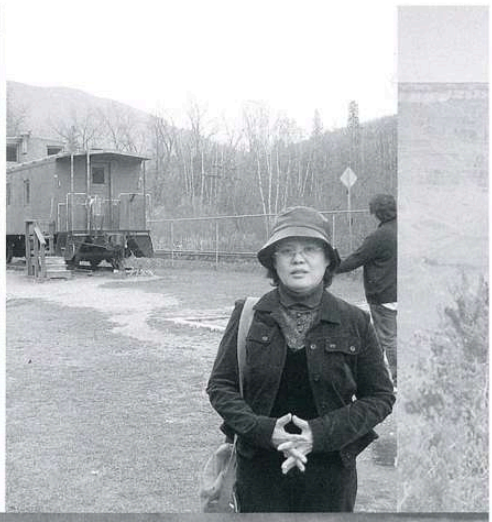
계기가 되어주었다. 여행은 기쁨을 주었다. 새로이 발견되는 경이를 터득하게 했으며

또한 평정을 찾을 수 있었다. 즐거운 추억은 희열이 따르고 그 체험은 매순간

나를 재검토 하게했다. 고독을 사랑하고 허탈감을 누르고 영혼의 영상을 만나게 해주었다.

기억에 의지해 영상을 펼쳐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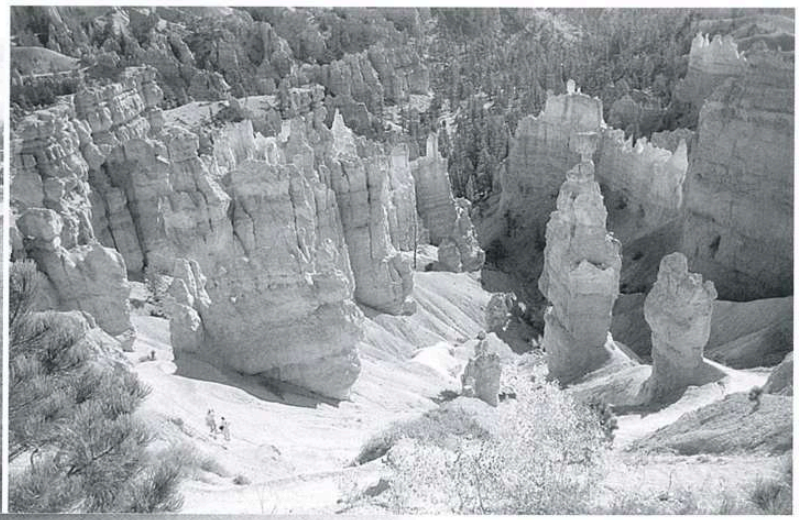
긴 한숨과 함께 사랑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젊음의 한때를 놓친 순간순간들이 해변을 싸고돌아
철썩이는 에머랄드 빛 파도소리와 함께 모래사장을 걸어보았다.

❀ LA를 도착한 후 군데군데 도로를 장식한 팜추리는 시선을 멈추게 하며 나를 맞이했다. 처음으로 관광버스로 찾아간 곳은 산타바바라 해변 춥지도 덥지도 않은 해변의 경치는 아름다웠다. 긴 한숨과 함께 사랑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젊음의 한때를 놓친 순간순간들이 해변을 싸고돌아 철썩이는 에머랄드 빛 파도소리와 함께 모래사장을 걸어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LA에 있는 도시공원 그리피스 파크 내에 있는 그리피스 천문대에 갔다. LA거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세워져 있었다. 도시는 점점 어두워져 별들을 하늘로 쏟아내고 있었다. 내부에는 우주에 관한 전시품과 플라내타륨이 있는 박물관이 있었다. 그리피스 땅은 160ha 거대한 공원으로 세계의 공원으로 테니스장과 승마코스 야외극장 동물원도 있었다.

미국 최대의 도시공원으로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점이 놀라웠다. 다음일정으로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라플린에 도착 비치색깔의 강을 보고 반짝이는 금물결에 취해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한순간 강물과 함께 나만이 간직한 속세를 흘려보냈다.







대자연은 넓었고 다양했고 그곳에서 나는 짧은 시간이나마 그 문화를 접했음을 행복해 했다.

시간의 차이로 낮에는 잠에취해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며칠은 힘이 들었다. 몇 시간을 이동하여 그랜드캐년의 관문 윌리암스에 도착 신의 최후라는 최대의 걸작 그랜드 캐년의 매더포인트를 관광하게 되었다. 경비행기를 이용 깊은 계곡의 경치를 가까이서 보게되었다. 붉은 사암층의 첨탑 신의 예술품이라는 브라이스 캐년 신의 정원이라 불리우는 남성적인 자이언캐년을 보고 느낀게 신의 섭리가 이렇게 인간에게 감동을 주다니 웅장하고 거대한 경관 신의 창조를 실감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도 움직이게 되어 발을 멈춘곳은 세계 최고의 위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도착하여 야경을 구경했다. 투숙하게 된 벨라지오호텔로비에는 생화로 장식되었으며 천정은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아름다운에 감탄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베네치아 호텔로비를 구경하게 되었다. 이태리를 옮겨놓은 풍경이 아주 인상적이고 작은 규모이지만 천정은 하늘모습과 지상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아 5년전 베네치아를 구경했는데 한순간 추억에 젖어들어 그때를 회상했다.

다음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미국최대의 농경지 베이커스 필드를 구경 모든 것을 기계화로 일손을 덜어주는 것을 접했다. 그 나라의 문명을 읽을 수가 있었다. 요새미티 국립공원 엘카피탄 하프돔, 면사폭포, 요새미터 폭포를 보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후 유람선을 타고 한때를 즐겼다. 샌프란시스코의 베이브리지 차이나타운을 구경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상징물인 금문교는 세계에서 가장아름다운 다리의 하나라고 한다. 차고 빠른 조류와 안개가 많은 날씨이고 지형의 복잡함으로 건설 불가능한 다리로 여겨졌던 이 다리는 4년의 세월과 3500만달러의 건설비, 그리고 11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어가며 조셉스트라우스에 의해 1937년에 완성되었다 한다.

태평양연안의 최고의 절경, 몬트레이해변을 관광하고 산타마리아와 덴마크 민속촌 솔뱅을 구경했다.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일교차가 심해 가볍게 옷을 걸친 탓에 얼어붙을 뻔한 게 기억에 남는다. 미서부 대륙을 완전일주를 하며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글로는 다 표현 못한 것 같다. 그 대자연은 넓었고 다양했고 그곳에서 나는 짧은 시간이나마 그 문화를 접했음을 행복해하며 일상 속으로 돌아오는 10월의 마지막 날 태평양을 건너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다른 일탈의 여행을 꿈꾸어 보았다.

아를의 햇볕은 강렬했다.



원형경기장에서 본 아를 시가지

마치 고흐의 인생처럼....

이 진 숙(회원)

지난 여름 나는 두 번째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명목은 에딘버러에 유학하고 있는 아들내외를 보고 싶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33년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또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여행을 한 것이다.
많은 준비를 했었다.
가방을 못 찾았을 때, 길을 물을 때, 물건을 살 때,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에
사용 할 수 있는 말들을 외우고 또 외우고 하는 영어 회화공부를 했다.
그리고 여행가이드 북을 열심히 읽었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턱 없이 부족한 준비였다.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고 여행자보험을 들고 전화카드를 샀다. 그리고 면세점에 들어가 실컷 눈요기를 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이제부터는 무려 10시간이상을 이코노믹이라는 좁디 좁은 의자에 앉아서 가야한다.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통로를 열심히 걸어 다니고 간간히 준비된 간식도 꼭 챙겨먹고 잠도 자두어야하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을 하였다. 이제는 에딘버러행 비행기로 갈아타야 한다. 눈치껏 찾아서 안전하게 탑승을 하였다. 약 두어 시간을 달리니 눈 밑으로 하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 다름 아닌 양떼들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와 보니 앗뿔싸 인천에서 붙였던 내 짐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다 직원의 안내로 국내선 도착지점에 가보아도 감감 무소식, 마침 그곳까지 들어온 아들내외와 일년 만에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결국 가방을 다음 날 받기로 하고 집에 가는 이층버스에 올라탔다. 밤 9시가 훨씬 넘었는데도 하늘은 파랗다. 백야의 끝자락인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시차고 무엇이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잠을 잤다. 공항에서 찾지 못했던 짐이 다음날 도착하였다. 걱정했던 물건들도 무사히....

영국령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이곳 에딘버러는 8월이면 공연을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이다. 이미 보름 전부터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이고 곳곳에서 거리공연이 펼쳐지고 로얄마일이라 불리는 거리는 홍보포스터로 넘쳐나고 마치 인종전시회를 하는 듯, 세계인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 한국의 비보이공연팀을 거리에서 만나니 그 반가움이란..... 화이팅을 외치고 눈인사를 하며 헤어졌다.

첫 번째 가는 행선지는 스코틀랜드 북쪽 지방인 하일랜드, 상상을 초월한 이곳의 기후와 풍경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특히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스코티쉬들,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타탄체크의 고장, 우리의 아픈 역사만큼이나 아픔을 지닌 그들에게 나도 모르는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에딘버러에서 5시간 기차를 타고 도착한 킹크로스역에서 만난 헤리포터, 그리고 영국박물관의 어마어마한 유물들 속에 초라하게(?) 자리잡은 한국관, 차이나타운, 너무 흥겹게 관람한 '맘마미아' 공연은 중년을 지나 노년을 바라보는 부부들이 공연내내 흥겹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눈물을 훔쳐내기도 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로열아카데미 어브 아트에서 본 썸머컬렉션에서의 진지한 관람모습을 보면서 문화선진국 사람들이 무척 부러웠다. 건설 후 한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빅뱅시계탑과 국회의사당, 테임즈강을 가로지르는 밀레니엄다리를 건너 관람한 테이트모던 갤러리, 웨스트민스터사원, 우리의 청학동과 같은 포토벨로 거리에서의 눈요기는 즐거움이었다. 하이드파크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겼다.

영국의 마지막 밤에는 런던의 야경을 보았다. 테임즈강주변의 빅뱅과 국회의사당, 런던브릿지, 런던아이 등이 한데 어우러져 또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저가항공만 운행한다는 겟트윅공항에서 스페인 바로셀로나행 비행기를 탔다. 바로셀로나 공항은 밤에 보았음에도 예술적 감각이 넘쳐난다. 다음 날 람블란스거리를 걸어서 바닷가에 우뚝선 콜롬부스상을 보았다. 한가하게 거리를 구경하고 가우디가 처음으로 만든 레이알광장의 가로등을 보니 감개무량하다. 물론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했지만.... 구엘저택 까사밀라. 까사바트요, 구엘공원등 가우디의 수 많은 작품 중 내 숨을 멈추게 만든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본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생전에 완성한 탑을 보면서 그의 높은 실험 정신에 경의를 표했다. 밤이 새도록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과연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내 생전에 완성이 되어 내가 다시 이곳을 구경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어느 영화 감독이 자기 작품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신이시여 이것이 진정 내 작품이란 말입니까' 라고 했다는데 정말 신이시여 가우디가 인간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하고 묻고 싶었다.


고흐의 그림을 찾아가는 길바닥 표지판

시체스 해변의 밀가루 같은 모래사장,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일광욕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특히 바다 물색은 딱히 어느 색이라고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투명하며 아름다웠다.

바로셀로나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남부 프랑스 아를 행 기차를 탔다. 기차 속에서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함에 한껏 부러움을 느끼면서 이제라도 이러한 여행을 할 정도의 건강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스페인 국경을 넘어 프랑스 땅에 들어왔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이곳은 여권 검사도 없이 국경을 간단하게 넘을 수가 있었다.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역에서 한 시간 가량 있으면서 간단히 샌드위치로 점심을 해결했다. 아를의 햇볕은 너무 강렬하여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감개무량했다. 내가 고흐를 만나다니.....시내 외곽에 위치한 숙소에 짐을 풀고 시내 구경을 나섰다. 하늘은 가슴이 시리도록 파랗다. 곳곳서에 고흐를 느낄 수 있다. 밤의 카레 테라스에서 그와 함께 에소프레소를 마시고, 강가에서도, 아름다운 화원에서도, 도개교에서도 그를 만났다. 아쉽게도 노란 집에서는 그를 볼 수가 없었다. 이곳 아를은 로마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곳으로 지금도 로마의 유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원형경기장도, 목욕탕도 , 특히 원형경기장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어린 소년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조용히 골목골목을 스케치하고 싶었다.

아를을 떠나기는 무척 아쉬웠다. 하지만 다음 목적지인 아비뇽에 대한 기대 또한 컸다. 아비뇽역에서 내려 숙소를 찾으려니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친절한 시내버스 기사 덕분에 시내버스 종점에 위치한 일본식 숙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본사이라는 이름의 이 호텔은 벽에 TV가 매달려있고 덩치가 큰 사람은 몸을 구겨야 들어갈 수 있는 샤워실, 세면대,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도 일본인들의 알뜰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 아비뇽은 특이하게 구도심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유럽 어디나 마찬가지로 구도심의 거리는 좁디좁지만 모든 거리가 돌로 포장이 되어있고 언덕길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작은 강이 흐른다. 이곳 아비뇽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유럽여행 중 유일하게 갤러리를 들리지 않고 충실하게(?) 관광객의 자세로 아비뇽의 거리 거리를 구경하였다. 이곳에서 약 한 시간 반가량 버스를 타고 간 악생프로방스는 분수의 도시였다. 골목골목에도 아름다운 분수가 있었다. 아주 작은 도시인 이곳에서도 쟈코메티, 세잔, 그리고 피카소를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전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가난한 유학생인 아들내외는 절약생활이 온몸에 배어있다. 마트에 가도 하루가 지나서 가격이 싸게 쓰여있는 물건에 먼저 눈길을 보내고..... 여행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볼 수 있었던 아비뇽에서도 언제나 마트에 들리면 싸고 양이 많은 물건을 찾아서 쇼핑을 하곤 했다. 그런 모습을 본 나는 한편 대견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모처럼 한가한 일정을 보낸 아비뇽을 떠나 파리를 향했다. 모든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한 파리. 말로만 듣던 TGV를 타고 파리를 가는 길목은 아름다웠다.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 그리고 해바라기 밭, 빨간 지붕이 아름다운 시골집들, 좀처럼 산을 보기 힘든 이곳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지평선이 보인다. 마치 세잔의 풍경화를 보는 듯 했다. 그리고 고흐의 삼나무 밭과 해바라기를 보았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장소인 파리에 내리니 비가 내리고 춥다. 방금 전에 떠난 아비뇽과는 확연하게 다른 날씨이다. 지하철안은 매우 좁고 지저분하고 끈적거렸다. 서울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거리에는 나뭇잎들이 떨어져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오니 한여름에서 금새 깊은 가을로 빠진 것 같다. 숙소는 여느 유럽의 숙소와 마찬가지로 꾸불꾸불 미로같은 계단을 한없이 오른 뒤에야 방이 나왔다. 여행내내 트리플룸에서 같이 지내다 싱글룸으로 바뀌니 아들내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어서 홀가분 했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더욱이 맨 꼭대기 층이어서 빗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밤을 꼴딱 샜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지하철을 타고 세느강 변을 걸어 루브르박물관에 갔다. 듣던대로 인산인해, 유리피라밋을 한바퀴정도 돌아설 만큼 긴 줄이었다. 넓디 넓은 루브루광장과 건물곳곳에 있는 조각상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분할 만 했다. 드디어 9시 정각 루브르광장의 분수가 물을 뿜고 입장이 시작되었다. 내 눈앞에 미켈란젤로의 '노예상' , 헬레니즘시대의 '니케상' , 밀로의 '비너스상' '모나리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 '메듀스호의 뗏목' '나폴레옹 대관식' '레카미엘부인상' 등 수 없이 많은 작품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의 아파트를 보면서 허무한 마음까지 들었다. 반나절 이상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루브르를 보고 나오는 것은 이곳에 대한 모독(?)이란 생각을 했었다. 루브루광장 맞은편에 있는 카루젤 개선문,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 이곳과 일직선상에 있는 개선문, 그리고 콩코르드광장, 그곳에 있는 오벨리스크와 상제리제 거리를 보면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하면서 파리의 참새와 잠깐의 망중한을 즐겼다. '오! 상제리제' 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들른 미술관에서 뜻하지 않게 쿠르베의 작품들을 만났다. 그리고 피사로, 시슬레와 모네, 부르델, 무어, 로댕의 작품들을 보았다.

햇볕이 나더니 이내 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리고 바람이 불며 추워진다. 이곳에 며칠 머무르며 한여름인데도 트랜치 코트에 목도리, 부츠를 신고 장갑을 끼고 다니는 파리지엥들의 옷차림을 이해할 수 있었다. 카루젤개선문에서 빤히 보이는 이곳 개선문까지는 아름다운 상제리제 거리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멀었다. 개선문 꼭대기를 가기위해 무려 50m나 되는 계단을 올라가 내려다본 12개 방사선모양의 거리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아름다웠다. 상제리제거리, 빅토르위고거리를 제외한 모든 거리는 장군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단다. 빅토르위고 거리를 걸어서 에펠탑을 가는 도중 파리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또 한번 우리를 당황하게 했다. 거리의 카페에 앉아 에소프레소 한잔을 마시고 에펠탑에 도착하였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선 줄도 에펠탑을 올려다보고 여기저기에 있다는 소매치기(?)들을 신경쓰다보니 어느새 우리차례가 되었다. 300m높이의 탑을 올라가기가 처음에는 겁이났다. 너무 높아서..... 그곳에서 내려다본 파리는 감탄이었다. 특히 세느강의 아름다운 모습이란.....늦은 시간에 에펠탑에 불이 들어오고 거리는 더욱 아름다웠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에펠탑을 뒤로하고 한참 걷다보니 갑자기 주위가 환해진다. 뒤를 돌아보니 에펠탑이 반짝거리며 빛이 나는 것이다. 하루에 두 차례 밤10시와 12시에 반짝이 등이 켜진단다. 그 광경을 지켜본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낸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찾은 레스토랑은 에펠탑을 보러온 사람들로 붐볐다. 그곳 웨이터의 상냥한 미소와 유모어 넘치는 친절함은 오래오래 머릿속에 남아있다.

지난밤 늦은 귀가로 오전 10시 넘어서야 오르세미술관에 도착하였다. 역을 개조하여 만들었다는 이곳은 고전주의부터 19세기 미술까지 시대별로 관람하기 좋게 전시가 되어있었다. 특히 쿠르베의 대작들은 보는 이를 압도하였다.

밀레, 고흐, 세잔, 마네, 모네, 르느와르, 피사로, 시슬레, 도미에르, 폰아방파, 나비파,등등 교과서에서, 그리고 목마르게 한국에서 하는 특별전시에서 봤던 작품들을 눈으로 직접 보며 감탄, 감탄 또 감탄하였다. 그리고 운 좋게도 특별전으로 마련된 '세잔에서 피카소까지' 라는 전시도 볼 수 있었다. 또 마이욜의 '지중해' 라는 작품도 보는 행운이 있었다. 물론 다른 조각가들의 작품도 보았지만.....오래오래 작품을 감상하고 조금 늦긴 했지만 노트르담사원에 갔다. 오래전에 본 '노트르담의 곱추' 란 영화가 생각이 났다. 안소니 퀸과 지나 롤로브리지다라는 여배우가 주연한 매우 어린나이에 본 영화였지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사원, 에딘버러성에서도, 스테인드글래스화가 인상적이었지만 이곳 사원의 스테인드글래스화도 정말 아름다웠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곳에서 나와 여행책자에 소개된 먹자골목을 찾아서 여기저기 식당을 기웃거리다가 중국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갔다. 실은 아들이 자장면을 먹고 싶다하여 중국식당을 찾다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마구잡이로 들어간 곳이다. 한국이라면 별 맛도 아닌 요리에 녀석은 감탄을 하며 맛있게 먹는다. 숙소에 오는 길에 파리시청사 앞의 분수가 예뻐서 잠깐 앉아있는데 바람기 많은 듯한 프랑스 남자가 말을 걸어온다. 젊은 여자를 보고 실은 유부녀인 내 며느리를 보고.....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2002월드컵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 때문에 프랑스 팀이 졌다며 혀를 끌끌거린다. 이 이야기는 아비뇽에서도 들었다. 그들은 지금도 그때의 슬픈(?)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아를 도시 풍경

베르사이유궁전에 왔다.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끝이 보이질 않는다. 듣던대로 베르사이유궁전의 정원은 탄성이 절로 나왔다. 정원 곳곳에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있는 분수들, 일렬로 서있는 수많은 나무들, 보트를 타고 한 시간동안이나 노를 저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할 만큼 넓은 호수, 마리 앙뜨와네트는 이 길들을 드레스자락을 끌고 시종들이 받쳐주는 양산을 받으며 산책을 했겠지. 자신의 불행한 운명도 모른 채..... 거울의 방은 탄성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멋있는 정원과 집이 있으면 무슨 소용일까, 부귀영화라는 것이 하룻밤의 꿈인 것을.....

여행자의 바쁜 시간은 시계도 멈추는 것 같다. 오후엔 부랴부랴 서둘러서 오랑주리 미술관엘 갔다. 오랑주리미술관에서 만난 모네아저씨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이었다. 전시실 내 벽면을 가득채운 수련은 그의 나이 78세 때의 작품이란다. 시력을 거의 상실한 채 사후에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그린 작품을 보면서 넋이 나간 채 오래오래 앉아서 모네를 만났다.

파리의 날씨는 듣던대로 변덕스러웠다. 비가내리다, 햇볕이 나고, 춥고, 다시 더워지고.....밤새 비가 내렸다. 천정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로 잠을 설쳤다. 늦은 아침까지 비가 와서 오늘 일정을 어쩌나하며 늦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뒹굴뒹굴 오랜만에 여유를 부리고 있다가 다시 여행자의 자세로 돌아와서 파리시내의 유명한 재래시장에 갔다. 비가 온 탓인지 상인들은 늦은 아침인대도 문을 열지 않은 곳이 많았다. 청바지 한 개를 신문지 위에 놓고 손님을 부르는 사람, 한국에서는 쓰레기취급 할 것 같은 금이 간 그릇, 때가 꼬질꼬질한 중고 옷들, 족히 수 백 년은 됨직한 고가구들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시장이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던 야바위꾼까지 합세를 한다. 이곳 포장마차에서 먹은 파르페의 맛도 오래오래 입안을 즐겁게 했다.

오후에는 로댕갤러리에 갔다. 정원과 실내에는 로댕의 수많은 작품만큼이나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곳에는 로댕의 애인으로 더 유명한 까미유 끌로델의 작품도 같이 전시가 되어있었다. 여행 내내 갤러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지만 항상 사람들로 넘치는 곳이 갤러리였다.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갤러리도 항상 사람들의 발이 머물고 있었다. 이들의 문화생활에 질투를 느낀 적도 있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밤이다. 26일간의 일정들이 영화처럼 떠오른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한국에 간다. 그간 혼자 고생했을 남편 생각도 나지만 여행을 끝낸다는 것이 더 서운하다. 에딘버러, 하일랜드, 런던, 바로셀로나. 아를, 아비뇽, 그리고 파리..... 곳곳의 풍경들, 가는 곳 마다 들린 갤러리, 수많은 그림, 조각, 공예품들 하나씩 떠 올려본다. 잊지 않으려는 듯이....

몽마르트언덕에 올라 오래된 카페에 앉아 피아노연주를 들으며 먹은 에소프레소, 그리고 못 먹고 오면 아쉬울 것 같아서 다음 날 다시 오른 몽마르트에서 먹은 퐁듀, 아를의 인도음식점에서 먹은 전기통닭구이, 에딘버러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먹어 본 엥구스 스테이크, 그리고 그곳 전통음식이라는 하기스등등..... 특히 바로셀로나에서 만난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시체스 해변의 누드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밤새 한 잠도 못 자게 한다. 파리에 도착한 날도 비가 오더니 떠나는 날 다시 비가 내린다. 낙엽이 길바닥에 뒹굴고 날씨는 마치 초겨울을 연상케한다. 춥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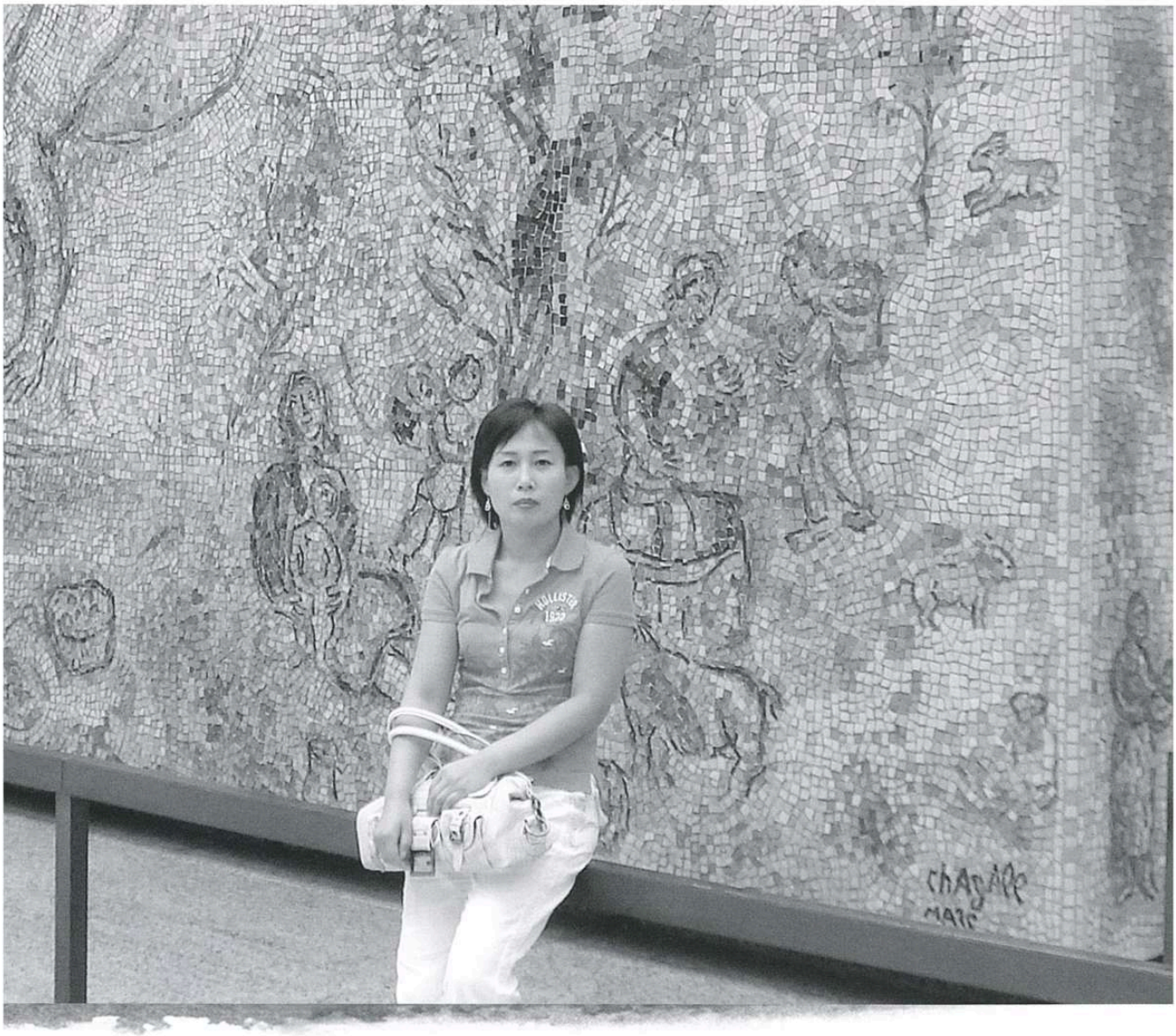
10시간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다시 시계를 10시간 빠르게 돌렸다. 오늘은 하루가 14시간이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숨이 막히게 덥다. 그래도 이곳이 좋다.
모두가 같은 모습, 오랜만에 듣는 우리말 등등, 그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미안합니다.' 했다가
'I'm sorry', 'pardon'하던 일을 생각하며 혼자 웃었다.



미시간호를 품에 안은 시카고

서 진 숙(회원)

인천공항에서 일본의 나리타공항을 경유하여 미국의 미네아폴리스까지 13시간의 비행, 미네아폴리스에서 목적지까지 승용차로 1시간 30분, 정말 힘든 여정이었다. 1시간 30분가량 주행을 하는 동안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지는 끝없는 옥수수 밭, 정말 장관이었다. 농장 뒤로 보이는 숲들은 말 그대로 밀림지대였고 고속도로는 영화에서나 본, 끝이 없이 직선도로로 이어져 조금은 지루한 느낌, 그래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가끔씩은 있다고 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는 화장실과 자판기2~3대 정도만 있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게 잔디밭에 벤치 탁자시설이 잘되어 있어 간간히 싸 가지고온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고 차량들은 과속하지 않고 규정 속도로 일정하게 거의 추월하는 차량도 없이 잔잔히 물 흘러가듯 달리는 풍경들이 여유 있어 보이며 워낙 대지가 넓다보니 물류이동은 대형차량들로 이루어지고 기차로 물류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끝과 끝이 없이 어림잡아 적어도 100칸은 넘어보였다.

조그마하고 조용한 인상을 주는 도시 오클레어, 난 여기서 며칠을 묵는 동안 따로 피서를 즐길 필요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잔디밭과 울창한 숲, 도로를 제외한 모든 공간은 녹색지대, 아침에 조깅을 하다보면 집집마다 스프링클러가 잔디를 흠뻑 적시고 새벽부터 먹이를 찾아 나선 사슴, 토끼 등이 나타나 눈을 마주쳐도 도망가지 않고 언제까지나 제자리에 서서 서로를 지켜보며 눈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곳의 날씨는 햇볕이 무척 따가웠지만 습도가 없어 그늘 밑에만 있으면 맑고 시원한 느낌은 정말 머리를 맑게 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곳의 사람들은 비만인 이 너무 많아 관절환자가 많고 더위를 참기가 힘든 모양인지 마트를 가보면 입구에 수십 대의 전동휠체어가 준비되어 있고 실내공기는 추울 정도로 매우 싸늘했다. (참고로 마트규모는 우리지역의 대형할인마트의 4.5배정도) 또한 거리 어디를 가나 종종 눈에 띄는 낯선 표지판이 있었다. 그것은 이지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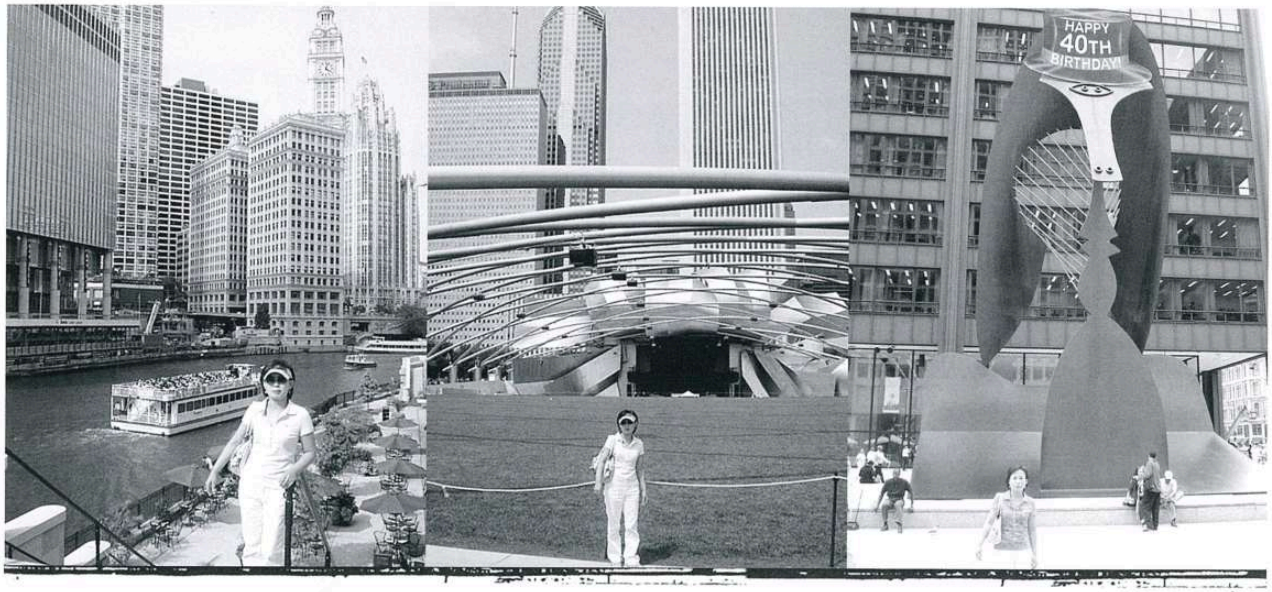
야생 사슴이 많아 가끔씩 도로로 뛰어나와 사고의 위험이 있어 사슴주의 표지판이었다. 내가 머문 지인의 집 앞마당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슴이 먹이 감을 찾아 종종 새끼들을 데리고 나타나곤 하였는데 그 모습이 정말 정겹고 아름다워 보였다. 몸보신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곳은 지형적으로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호수를 이룬 곳이 수없이 많았다. 쉬페리어호나 시카고를 끼고 있는 미시간호는 미국의 5대호의 호수로서 우리나라 면적보다 크다고 한다. 바다로 보일뿐이다. 지형조건이 그러다 보니 보트나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보트나 캠핑카를 달고 달리는 차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오클레어에서 6시간동안 차를 몰아 찾은 시카고, 미국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이었고 다운타운 거리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길거리를 수놓았고 건축물 하나하나가 견고한 예술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으로 정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눈을 뗄 수가 없는 도시였다.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불과 몇 년 안 된 것처럼 보이며 송신탑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시어스타워, 110층으로 무려 높이가 442m, 103층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시카고 전경은 각자 나름대로 독특하게 위상을 뽐내고 있는 건물들과 앞으로 펼쳐지는 미시간호와 정박해 있는 수백 척의 요트들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존 헨콕 센터는 100층의 건물로 96층의 여자화장실에서 보는 전망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가보지는 못하고 94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밖을 보니 구름이 건물을 휘감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들이 펼쳐지곤 하였다. 일명 옥수수 빌딩이라고 불리는 건물은 1~20층까지는 주차장이며 위로는 아파트와 사무실 등이 있다. 언젠가 책에서 본 건물이라 낯 설지가 않고 아하 이 건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시카고 강을 끼고 있어 더욱 아름다워 보였으며 시카고 시내를 통과하는 시카고 강은 우리나라 한강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유람선들을 타고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었으며 중간 중간에 철로 다리가 있어 다리가 열리는 것도 볼 수 가 있었다. 우리 일행은 미시간호에서 범선을 타고 시카고 야경을 투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처럼 현란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다. 즉 길거리의 간판이나 네온사인이 없기 때문에 건물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카고는 종합예술의 근거지로 볼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나하나마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었고 상상력이 풍부한 건축양식, 시카고 건물들은 벽면장식이 독특해서 벽 구성이 매우 재미있는데 시카고 트리분(신문사)건물은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돌조각들이 박혀있는데 안타깝게도 동양의 여러 나라의 돌들은 볼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돌은 없었다. 피카소가 시카고시에 기증한 거대한 추상 조각품, 미로의 조형물, 샤갈의 사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타일 모자이크 작품은 나의 발길을 한참을 머물게 하였다. 뒤뷔페의 조형물도 볼 수가 있었다. 헨리 무어와 콜더의 작품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정도면 미술에 조금은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구미가 당기는 볼거리가 아닌가. 이렇듯 예술작품들을 언제나 생활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이곳 사람들이 부러웠다. 요즘 TV를 보면 가끔 모회사의 제품, TV CF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배경이 시카고 공원에 있는 조형물이 배경이 되고 있어 새삼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게 한다. 밀레니엄 파크 거리는 매우 좁고 혼잡하여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도로 지하로 5000대정도의 주차 공간이 있고 주차요원대신 주차요금은 셀프 판매기를 이용하였다. 지상으로 올라와 앞의 내용처럼 몇 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위와 같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었다.



이젠 시카고 미술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기로 하자. 시카고 미술관은 회화, 조각, 판화, 사진, 수공예품등 다양한 소장품들이 전시되어있는 세계적인 아트뮤지엄으로 미로처럼 수많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별로 전시되어있는 방이 있는데 우리 나라 방은 대부분이 고려청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국내외 적으로 명성을 지닌 예술가들의 작품을 근대 · 현대를 막론하고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특히 19C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나를 취하게 만들었다. 마네, 모네, 드가, 르노와르, 고흐, 고갱, 세잔, 더불어 밀레의 그림과 브랑쿠쉬의 브론즈, 자코메티의 조소작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난 쇠라의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 라는 작품 앞에서 전율을 느꼈다. 환상적인 색채로 점묘를 이용한 기법은 내가 교육현장에서 수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쳤지만 도판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를 매료시켰다.

추상화의 거장, 몬드리안, 칸딘스키, 잭슨 폴록 등 여러 작품을 감상할 수 이었으며 매우 만족할만한 점은 후레시만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진촬영을 할 수가 있었다. 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자료로 쓰기 위하여 셔터를 눌러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이 내 맘을 알까 의심스러웠지만...

미술관 내부가 워낙 넓다보니 틈틈이 쉴 수 있도록 전시 공간 내에 의자나 실내에 음식점, 상품판매점은 다양한 물건들이 관람자들의 주머니를 비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하루쯤 더 묵으면서 자세히 더 둘러보고 싶었으나 내가 돌아오는 항공편이 다음날이라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다시 6시간의 차를 타고 오클레어에 새벽에 도착하여 몇 시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짐을 꾸리고 다시 2시간의 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 12시간정도를 비좁은 비행기 안에서 앉아있을 생각을 하니 짜증이 났는데 다행히도 항공사의 배려로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하여 오는 내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오면서 지난 2월에 다녀온 태국의 아유타야와 캄보디아의 앙코르 왓트가 뇌리를 스치며 한나라는 역사는 짧으나 무에서 유를 창조, 세계의 제일의 국가가 되고 또 다른 나라는 조상이 물려준 유산만 안고 관광수입만 바라고보고 있는 조금은 안타까운 나라, 그러나 온갖 수난에 시달려도 한반도의 작은 나라는 당차게 일어나 발전하는 모습이 우리의 국민성을 말해 주고 있지만 좀 더 큰 세계를 보고 많은 것을 깨닫기를 염원해 본다.



차를 마시며

이 성 자

술을 좋아하는 민족은 망하고, 차를 좋아하는 민족은 흥한다. 이 말은 다산 정약용선생이 술 보다는 차를 권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뜻이 담긴 것이다.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하면서 마시는 사회는 마음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한다.

말차(抹茶)라고 하는 가루로 된 차를 마셔 보셨나요. 말차는 다완에 차 잎을 갈아서 만든 가루차를 버금이 일어 날 때까지 풀어서 마시는 것이다. 1통을 사면 수개월은 마실 수 있다. 하루 1잔 씩 마셔도 좋으니까요. 차는 그 찻잔이라고 하는 다완을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그 맛과 향에 취하게 되니 좋고, 먹는 시간 내내 담소를 나눌 수 있어 좋고, 건강에 좋으니 일석삼조입니다.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게 차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풍류를 모르고 세월만 갑니다. 마음이 한가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차의 종류별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차 마시는 사람은 마음을 수련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신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詩)와 서(書)와 화(畵)를 다 잘하면 삼절(三絕)이라고 했습니다.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를 쓰신 '조용헌' 님에 의하면 선암사에 삼절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원통전 뒤쪽의 600년된 매화이며, 둘째는 뒷간이라고 하는 해우소를 말하며, 셋째는 지허 스님의 차라고 했습니다. 지허스님은 14살 때 선암사에 출가해서 50년 동안 다각(茶角;절에서 차를 담당하는 소임)을 맡아오면서 전통의 맥을 이어온다고 합니다. 차를 좋아하신 분이 한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름이 알려진 것은 영화감독 임권택에 의하여 알려졌다지요. 초의선사는 물론 다 아시고, 고산 윤선도, 추사 김정희 등 문인 묵객들이 즐겨 드셨죠. 다음은 초의선사의 시 石泉煎茶(돌 샘물로 차 끓이다)이다.

天光如水水如烟 (천광여수수여연) 하늘빛은 물과 같고 물은 이내 연기같이 피어오르고
此地來遊已半年 (차지래유이반년) 이 땅에 와서 놀은 지 이미 반 년
良夜幾同明月臥 (양야기동명월와) 명월과 함께 누워 지내던 좋은 밤이 몇 번이던가
淸江今對白鷗眠 (청강금대백구면) 맑은 강에는 지금 조는 백구를 마주하구나
嫌猜元不留心內 (혐시원부유심내) 의심하는 것은 본래 마음에 없으니
毁譽何會到耳邊 (훼예하회도이변)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 어찌 귀에 들어올까
袖裏尙餘驚雷笑 (수리상여경뢰소) 소매 속에는 아직도 사나운 웃음소리 남아 있으니
倚雲更試杜陵泉 (의운갱시두릉천) 구름에 의지하여 두릉 샘물로 또 차 끓여요

차의 맛이 이 풍류를 알고 마시면 더 좋은 것이다. 이에 막사발로 치부하는 다완에 담아 마시면 어떨까 한다. 일본에선 '이도다완(井戶茶碗)'이라고 해서 떠들썩하잖아요. 외형적인 특징은 육각형의 氷裂(빙렬)인 유약의 균열과 굽 부분에 눈물이라고 하는 유약의 덩이가 매화피의 갈라진 모습이고, 유약이 묻지 않은 태토(胎土) 부분에 정착된 것으로, 찻물이 들어가 검어진 빛깔, 비파 빛깔의 표면, 몸체의 가벼움, 몸체를 두드렸을 때 나는 소리 등은 천하게 여길이도다완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도자기가 명물로 일본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그 질박한 형태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형태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찻잔으로서의 기능성에 더 큰 의미도 있다. 너무 지나치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말차(抹茶)의 '타닌' 성분의 일부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성이 있다. 도자의 몸체에 기공이 많아 '타닌' 성분을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점은 수분이 안과 밖으로 서로 통한다는 점이다.

이 다완이 고려다완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좋아 했던 것이다. 사실 조선 임진왜란 이후 벌어진 이야기 이다. 고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시대의 브랜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도공이 임란때 남원 등에서 일본으로 끌려갔고, 이후 일본의 도자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의 모든 막사발에 해당하는 도자기를 이도다완이라고 했다. 이는 기자에몬 이도 다완이라고 하는데 기자에몬은 그 옛날 소장자의 가문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본 국보이다. 그래서 일본사람이 모두 좋아하게 되었지만, 가장 아끼던 사람은 센노 리큐(千利休, 1521~1591년)라는 선사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할복자결한 사람이 이 스님이다. 이 분은 일본 다도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엄격성에서 간소한 의식을 정하기도 하였다.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다다미 3장, 2장의 작은 방에서 당(唐)으로부터 들여 온 다도구를 사용하여 다회를 개최하는 습관이 되었고, 다실에 꽂는 꽃도 화려하지 않게 계절의 들꽃을 가볍게 꽂는 것을 최상으로 여겼고, 봄과 겨울에는 엷은 동백꽃을, 여름과 가을에는 무궁화로 장식했다. 차 끓이는 법과 차 요리, 복장, 차회에서의 휴대품 등에 도 많은 개혁을 했다.

센노 리큐는 다실에 들어설 때 그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문을 만들었다. 이 분은 선사이면서 진정한 다인(茶人)이었다. 그는 자득의 경지를 이렇게 노래했다고 한다.

"꽃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두메마을 봄 풀을 보여주리." 이 고려다완은 일본인에게 신앙이요 마음의 고향인 것이다. 우리에겐 이제 생활의 지인이요 웰빙의 주신이라. 현란한 생활에서 술을 멀리하고 찌든 일을 제쳐두고 그림을 그리며 책을 읽으며 평안과 건강을 챙기면 어떤가요.

이 성 자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졸업,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등 공모전 다수 입상, 한국차문화협회 익산지회 명예원 회원
2007 전주 전통문화도시 홍보위한 들차회 참가, 동심원 한공다례 들차회 참가, 제5회 전북청소년 차예절 경연대회 들차회 참가
전주 덕진 연꽃축제 들차회 참가

먼저 이 사람을 30여년이 넘는 세월 변함없이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외조해주신 남편을 소개하겠습니다.
2년여 전 30년간 다닌 농촌공사를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장동에 있는 작은 터전에서 텃밭을 가꾸고 풀과 씨름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나에게는 지금 에딘버러에서
글래스와 쥬얼리를 전공하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서울IBM에 다니며 예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딸과
자랑스러운 사위, 손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 또한
나를 편안하게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랑하는 식구들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이 진 숙(회원)

처음 교직에 들어설 때는 나에게 이런 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서 어느 덧 33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채씨 기름을 팔아서 수업료를 내겠다던 아이들, 준비물이 없어서 꾸중을 들을 때 교단까지 성큼성큼 걸어와서 나보다 더 큰 키로 내려다보던 철없던 아이, 물론 지금은 40이 넘은 장년이 되었지만, 선생님을 만난 것은 나에게는 큰 기쁨이 예요, 하며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에 감사한다는 어린 학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같이 나이를 먹어가며 우연하게도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제가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임지에 있을 때 학교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오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인사를 건네며 격려한 덕분에 내리 3년을 한달도 빠짐없이 종합우수학급을 했던 일, 신혼 초 학교를 옮기려 할 때 나이 많은 교장선생님께서 신혼은 떨어져 사는 것도 좋은 추억이니 제발 남아달라고 부탁했던 일, 작은 읍내에 있는 공립학교보다 훨씬 월등한 고교입시 성적을 내서 그 학교 동문들이 모교교장을 항의 방문했던 일, 학교를 옮겨와서 많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보람있는 일, 10여년 전부터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모인 미술교사들과 만든 전통미술교육연구회가 올해로 10회째 전국청소년 전주 한지 미술제를 개최하며 미술시간에 우리종이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 많은 지역 언론과 뜻있는 분들의 협조를 얻고 또한 바다건너 중국시안82중학과의 교류가 이제는 섬서성 전체의 학생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한중교류미술제가 성립이 된 일등,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붓을 놓고 있다가 지난 15년 전부터 그림을 다시 시작하며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그룹전 국제 교류전을 갖고 전북회화회라는 전북지역에 있는 중견 한국화가들의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한 일등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더 좋았던 것은 학급을 맡어서 하얀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입니다. 형무, 락진, 재영, 석현, 수민, 호경등 많은 아이들 이름이 떠오릅니다. 개중에는 벌써 중학교 학부형이 된 아이(?)도 있습니다. 단어 시험에서 틀렸다고, 가감승제를 못한다고, 한글을 잘 못 읽는다고, 지각하였다고, 참 많은 아이들이 혼나고 기합을 받기도하고.....지나간 세월이 추억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이제는 지난 30여년의 영화가 끝이 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영화관에 가서 끝이라는 자막도 오르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영화 한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자막을 통해서 오르는 글자들을 읽은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자막에 오르는 많은 이름들을 기억하며 제2의 인생을 사작하렵니다. 정말 어떤 새로운 영화가 만들어질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약간은 예상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넓은 뜰을 가진 아주 작은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밭에는 고추, 상추, 시금치, 옥수수도 심고 밭에 있는 잡초도 뽑고 때론 테라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책도 읽으렵니다. 그리고 가끔은 마당을 뛰노는 손자의 재롱도 보겠지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흰머리가 나서 언젠가는 온통 은발로 물들면서 나이가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한가하게 여유롭게 노년을 즐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오래 전 아주 오래 전부터 꿈꾸어오든 제2의 인생입니다.

30여년동안 혹 나로 인해 아픔을 겪었다거나 무시를 당했다거나 또는 올바르지 못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이 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남보다 하나만 적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남보다 휴지 한 장만 더 줍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고 완산 중학교의 많은 발전을 진심으로 기도 하겠습니다.

2007.08.31.이 진 숙

읽을 만한 책



그림 보는 만큼 보인다 : 손철주의 동서양 미술 산책2 (양장)

〈 손철주 저 | 생각의나무 | 2006년 11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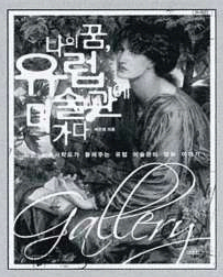
『그림 보는 만큼 보인다』는 1999년 초판 발행 이래 미술교양서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으며, 전문가들로부터 90년대를 대표하는 책 100선으로 뽑히기도 했다. 작가들의 덜 알려진 과거에서 고집어낸 이야기, 동서양 작가들의 빗나간 욕망과 넘치는 열정, 졸지엔 읽히지 않는 작품에 숨겨진 암호, 흥미진진한 미술시장 뒷담화, 푸근한 우리네 그림이야기 등이 담겨 있어 미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한국화를 비롯하여 중국화, 일본의 우키요에, 서양화, 팝 아트, 체 게바라 사진, 과학 사진가 헬무트 뉴튼, 그에 더불어 고려 다완이나 토우, 옹기 등 옛 사람에 담긴 추억의 정조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림을 읽어주고 있다.

새빨간 미술의 고백 : 우리가 미술관에서 마주칠 현대 미술에 대한 다섯 답안

〈 반이정 저 | 월간미술 | 2006년 07월 〉



미술관에서 의미는 커녕 앞뒤, 위아래조차 구분되지 않는 현대 미술 작품 앞에서 좌절한 적이 있지 않은가? 독특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철든 미술 평론가 반이정이 난해한 현대 미술에 칼을 빼들었다. 2003년부터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칼럼 '반이정의 거꾸로 미술관'을 토대로 한 이 책은 난해한 기발한, 엽기적인 이라는 수식어와 동격으로 간주되는 가장 최신의 미술 경향이 반영된 60여 점의 작품을 골라 한 조각 한 조각 정리보며 그 의미를 풀어냈다. 미술,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이 책은 기존의 미술 책들이 근대 이전의 미술, 기껏해야 1950~1960년대의 팝 아트의 언저리에 국한된 작품을 소개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동시대 미술'의 근황을 소개한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미술가들이 2000년 전후 내놓은 따끈따끈한 작품을 통해 우리가 지금 미술관이나 갤러리로 나가면 바로 마주칠 수 있는 작품의 의미와 현대 미술과의 만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출발이 된 '반이정의 거꾸로 미술관'을 《중앙일보》에 연재했고, 현재 《한겨레21》에 '책이정의 서울 보기'를 연재하고 있다. 그가 번역한 책으로 『에드바르드 뭉크』를 만날 수 있으며, 저널은 성산아트에 출강하고 있다. 더 궁금하시면 www.dogstylist.com에 방문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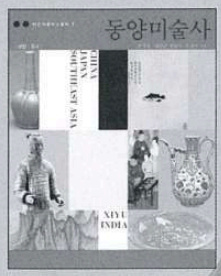
나의 꿈, 유럽 미술관에 가다

〈 허은경 저 | 삼우반 | 2007년 09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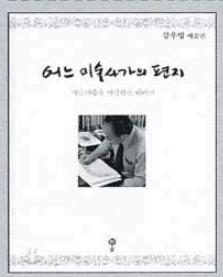
젊은 미술사학도인 저자가 유럽 미술관을 순례하고 나서 미술관의 내력과 그곳에 소장된 명화들에 대해 꼼꼼하게 서술하여 펴낸 책이다. 영국-벨기에-네덜란드-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의 40여개의 유럽 미술관을 차례로 다루었다. 루브르 박물관과 같은 방대한 규모의 유명 미술관뿐만 아니라 그렇 한 잠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는 조그만 미술관까지 상세부었다. 이 책은 도서별로 묶어 7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비 여행자에게는 안내서의 성격을, 또한 일반 독자들에게는 직접 그곳에 가지 않고서도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신화나 신화를 주제로 한 명화들의 숨겨진 의미와 감상 포인트, 재미있는 일화 등을 300여 점의 도판과 함께 쉽게 서술하였다. 지은이는 성서를 위한 작품에서는 관련된 성서 속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여 줄 뿐 아니라 도상학적 해석을 통해 그림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명화의 표현 방식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어 독자들에게 좀더 쉽게 명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양미술사(상) : 중국

〈 한정희,배진달,한동수,주경미 공저 | 미진사 | 2007년 04월 〉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인도, 서역, 동남아시아 모두 5개 지역의 동양 미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개설서. 각 지역 전공자 10명이 참여하여 선사시대부터 1945년경까지 시대별로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중국과 일본은 회화, 조각, 건축, 공예 각 분야별 해당 전공자들이 집필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어느 미술사가의 편지 (양장)

〈 강우방 저 | 솔 | 2007년 11월 〉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사가로 손꼽히는 강우방의 4번째 에세이집. 작가는 신라 불교미술과 석굴암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며 지난 40여년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경주국립박물관 관장 등 문화유산 유동의 현장에서 미술사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 책은 그의 학문적 변화과정과 심경의 변화를 소심히 밝히면서 그의 독자적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가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하였다. 작가는 서양문화의 관점에서 동양문화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고동안 격하되어왔던 고구려의 조형미술에 주목한다. 작가는 그리스나 중국은 물론, 더 넓게 동서양이 모두 같은 우주관과 인생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역사가 간 조형예술의 우열을 보존과 해석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생산적으로 만들어내는 담론은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킨다. 이 책은 한국미술사연구원 개원3주년을 기념해 홈페이지 www.kangwoobang.or.kr에 있는 자유게시판 글 가운데 2004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의 글을 엮은 것이다. 작가의 다양한 학문적 스펙트럼과 예술관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 원고를 보낸 분들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청소년 문화 정책 제안 공모전 당선작 『서울시 청소년 문화 정책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평을 쓰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의 일반적 생각이 아닌 청소년 문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응모 작품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많은 청소년들이 응모하여 주었고 그 내용 또한 매우 훌륭하여 심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한 서울시의 청소년 문화 정책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 기준에 따라 응모작들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문화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문화 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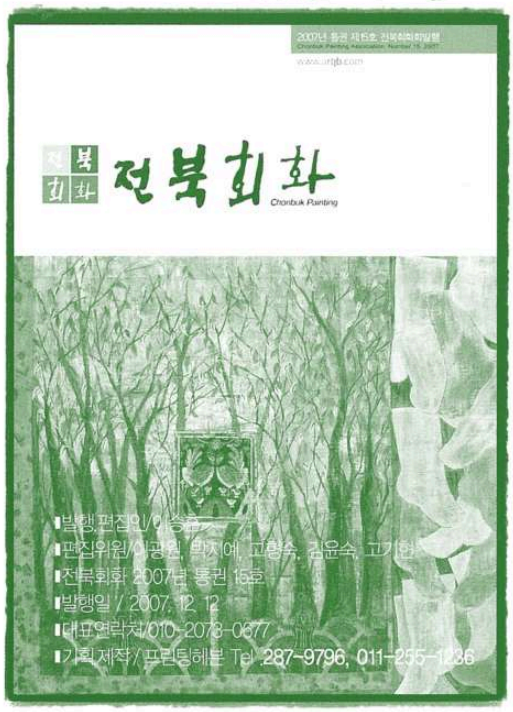
우리사회는 문화의 차이로 늘 다른 문화 안으로 녹고 싶고 그 차별성도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역동적 문화 속에 있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청소년 문화 정책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청소년 문화 정책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집후기 】

서울시 청소년 문화 정책 제안 공모전 및 심사평을 통해 이루어진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해결로

편해룡
조 은
이철규
이인숙
이무경
이숙영
이용탁
황경숙
서진숙
김순금
방형철
박진혁
김세원




2007년 통권 제15호 전북회화협회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15, 2007
www.ungb.com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발행,편집인/이승훈
편집위원/이광원, 박지예, 고형숙, 김윤숙, 고기헌
전북회화 2007년 통권 15호
발행일 / 2007. 12. 12
대표연락처/010-2078-0677
기획,제작 / 푸른등해본 Tel 287-9796, 011-255-1236

2007



http://cafe.daum.net/artjb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 문예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았습니다.